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B/D 3층 902호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7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80 호

자비의전화 자원봉사상담원 이석진씨(36·여). 7년째 1평반 남짓의 작은 상담실을 통해 아픈 세상을 어루만진다.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다음달 아침 9시까지가 그가 자청한 상담시간이다.

꼬박 밤을 세워 상담실을 지켰으나 몸이 꽤 지쳤으련만 그이의 눈빛이 맑다.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다. 마침 하늘도 햇살도 좋은 여름날의 아침이다. "목소리만으로 내담자의 표정과 성격을 파악해야 하니 늘 긴장되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몇일 전에 걸려온 상담전화로 아픈 세상의 얘기를 전한다.

"아이들의 다툼이 있었는데, 다친 아이의 어머니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니 어찌 하면 좋겠냐는 전화를 받았어요. 자식 키우는 어머니가 어찌 그것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큰 돈을 달랄 수 있겠어요? 하며 한숨을 쉬더군요."

수화기 보살



상담실을 통해 본 세상은 슬프고 힘겨웁다. 40대의 한 이혼녀는 7년째 전화를 해온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날 있었던, 차마시고 친구 만나고 한 얘기를 마치 독백하듯 쏟아낸다. 자비의전화에 대고 그렇게 상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한 중생에 팔만의 병고와 번뇌라고 했지만, 몇몇 상담원들은 아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상담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석진씨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알았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적성에 맞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특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느덧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피안으로 안내하는 등대지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동국대 사회교육원에 등록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다.

"꼭 기회를 만들어 상담원교육을 받아보세요. 흡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으로 보일 거예요."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 복원등 대북포교사업

"汎종단 힘모아 추진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개발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금강산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를 비롯한 금강산 지역 사찰들에 대한 복원에 범종단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계의 여론은 문화재 복원과 물질적 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실질적 교류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와 정부차원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등을 넓은 안목으로 조망하는 신중성과 대표성을 띤 단일 창구를 통한 대북 사업의 전개도 각계에서 주문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능관스님은 "대북접촉과 활동을 특정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불교계가 한 목소리로 다가설 때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내놓았다.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냉철한 판단과 의지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국성스님과 금강산 유적복원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진각복지회 사무국장 지현정사도 "불교 전체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본부장 법륜스님은 "각 교류단체의 협력과 대북산회 획득을 위해서는 범종단적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대표성을 유지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강산 불교문화재 복원등의 사업은 종교교류를 통한 통일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대승적인 정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은평사암연합회 회장 성운스님과 불교언론인회 신광식회장은 "신계사 복원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들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북사업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신계사 복원이 합의된 만큼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는데서 불사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여론도 높다. 동국대 문명대교수는 23일 열린 '북한문화재 현황과 보존실태에 관한 세미나'에서 "북한 문화재 조사단 파견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신계사 등 사찰 복원을 위해 평불협이 금강산 국제그룹과 맺은 계약의 충실한 이행여부와 정부차원의 북한 방문관련 법안의 개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대북 교류의 산작로가 통일의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신중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교계의 전반적 여론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관련기사 2 · 3 · 11면



1500명 찬불가 음성공양

'경제난 극복기원 찬불가제전'이 6월26일 서울 관문사 4층 목불전에서 천태종 주관으로 열렸다. 천태종 산하 35개 합창단 1백5백명이 한 무대에 선 이번 찬불가제전에는 5천여명의 관객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관문사에서 처음 열린 문화행사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종 '종단발전 기획위' 설치

남북 통일불사 위한 국제불교연구소도
국난극복 기원 육자진언탑 10월 제막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6월 23일 통리원 종의회회의실에서 제 313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종단발전기획위원회와 국제불교연구소를 설치키로 결의했다. 또 총인원 내에 국난극복 기원 육자 진언탑을 세우고 10월15일 제막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종의회에서는 통리원장 직속연구 심의기구로 '종단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책에 반영하는 기구로 활용키로 했다. 4~5명의 연구원을 둘 종단발전기획위원회는 종헌종법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위원회 활동은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108대 과제를 추출하고 년차별 종단 발전백서를 발간하는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2년 종조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또 종의회는 '국제불교연구소'를 설치해 본격적인 통일불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리원 문화사회부 산하기구로 둘 국제불교연구소는 통일 및 남북불교교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보고, 통일불사에 대한 종단의 입장 정리, 통일문제 대외창구역할 등을 담당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국난극복 전국순회 참회대법회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하며, 호국 불교와 관련된 불교계 단체들이 후원 참여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7월5일과 10일 잇따라 서울과 대전에서 장엄하게 열립니다.

이번 대법회는 천태종과 관음종이 주관해 전국의 불자 총 1만5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철야로 정진하는 불교전통 수행법과 함께 전통의식의 시현을 통해 국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할 예정이어서 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철야 관음정진 **참회 영산대재**

4 · 5일 서울 관문사 **10일 대전 엑스포광장**

제3차 "동체대비 구현 철야 관음정진"

- 철야정진: 1998년 7월4일(토) 오후9시 5일(일)오전3시
- 회향대법회: 1998년 7월5일(일) 오전11시
- 주관: 천태종 총무원
- 장소: 서울 관문사(02)3460-5300

제4차 "대참회 영산대재"

- 일시: 1998년 7월10일(금) 오후1시
- 주관: 관음종 총무원
- 장소: 대전 엑스포광장(02)763-3345

※ 법회 현장 생중계 불교방송(101.9㎒)
※ 녹화 중계: 불교TV(ch32)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후원: 국민회의연동회 · 자민련불자회 · 한나라당불자회 · 군승단 경승단 ·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7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에서는 윤 5일을 맞아 3사 순례의 더불어 자신의 업장을 씻고 선업발기를 발원하는 재의식인 예수재 법과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동해안 일출로 유명한 등명낙가사, 현재 국보 심의중인 철불이 봉안돼 있는 두타산 삼화사, 적멸보궁으로 유명한 정선 정암사 등을 참배하며 '모래시계'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정동진 해맞이도 합니다.

7월 "윤오월 3사 순례로 무량공덕을"

'삼화사 · 등명낙가사 · 정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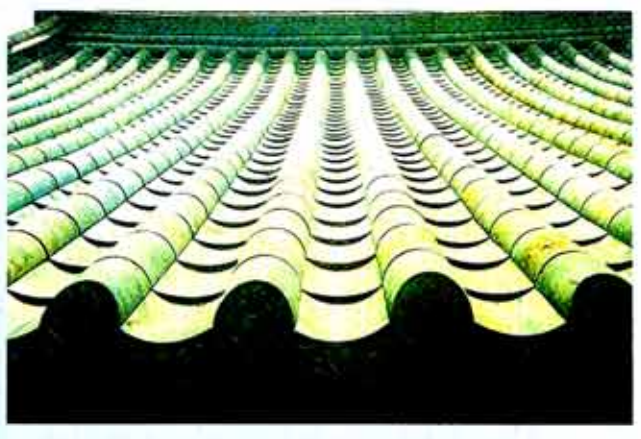
◇출 발: 7월 1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아침 · 점심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한장한장에 혼을 넣어 장인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 기와불사는 청동주물기와로 시작하십시오.

청동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성공!





특 허 출 원 제 15145호
실용실안등록 제 119053호
의장등록출원 제 15785호

KBS 1TV「체험 삶의 현장」
96년 9월 9日 방영

● 특장점 ●

■ 내구성 및 경제성
재래식기와의 무거운하중(평당 600~700kg)과 잦은 동파 및 부식으로 건축수명이 단축됨을 청동주물로 주조하여(평당 200~300kg)으로 경량을 대폭감소 하였으며 천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리, 주석, 아연을 합금하여 만들었습니다.

■ 방수성
접토, 백토, 감회를 혼합하여 건고히 시공하여 기와 시공시 1m/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목탑을 가구처럼 시공되므로 100%방수를 자신합니다.

■ 미관성
청동제품의 진가는 수천년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루감을 증기어 왔으며 청동주물기와도 세월과 함께 고풍이를 더해가며 변치않는 영원한 멋을 지향하여 우리의 사찰 및 건축물을 더욱 깊은 감동으로 디가서게 할 것입니다.

■ 영구성
청동제품의 수명은 수천년전에 사용하던 유물들이 땅속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출토되듯이 영구적이며 건축물노화로 인한 재시공시에도 100% 재사용됩니다.

주요시공내역

1986년 ※아세안게임 이등성화로 제작
1988년 ※올림픽, 통일대종조각 주조
1986~1996년 광주, 전주, 청주, 여수, 전국체전 성화대조각 청동주물 제조
1992~1996년 일본마이니비 갤러리 청동주물 공예품, 납품
1995년 3월 경남 함안 인비문중 제각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5월 천안 각원사에 경주 황룡사 응실물 치미 국내최초로 복원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범어사 (청련암)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구씨문중제각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7년 성륜 영각사 대웅전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 함께 일할분을 모십니다. ⊙
· 전국대리점 모집(각도별)
· 수출 및 무역, 사업에 동참하실 분

우영기업
본 사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
주 물 사 업 부 : 02)473-1958
인테리어사업부 : 02)482-3587
F A X : 02)474-1550
http : //www.wooyong.co.kr/

사 설

통일불사의 과제

정주영씨의 소몰이 방북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관문점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부의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물론 최근에 북한의 잠수정이 영해를 침범해서 이러한 햇볕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북쪽이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갈라진 한민족의 통일을 향한 대화와 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잠수정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긴 여정은 결코 평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이다. 차분한 자세로 평화공존의 틀 속에서 통일을 향한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불교계도 당연히 그 통일의 행진대열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단과 여러 불교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불교교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평화통일불교협회의 '금강산문화유적 복원추진사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7월중에 신계사 복원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각종도 금년부터 매년 2억원의 통일기금을 마련해서 북방포교연구소를 설립하여 북한포교에 앞장설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태고종 영산재 보존회도 오는 9월 북한에서 개최될 윤이상음악제에서 영산재 시연을 위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러한 불교계의 남북교류의 움직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통일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며 남북한 전통문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삼국통일을 이루어 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의 이런 통일불사가 성공을 거두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흥적으로나 단순한 경쟁의식에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우선 여기에 필요한 몇가지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다.

첫째, 재정적인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남쪽과 북쪽이 지금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제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사상과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정토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시와 희사의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범불교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실업인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기심을 과감히 버리고 서로서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둘째, 인재를 길러야 한다.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통일역군을 기르는 불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인재양성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셋째, 북한불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북한에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의 정밀조사와 역사적 고증도 이루어져야 한다. 유형문화재의 복원뿐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회나 불교행사에 있어서 불교의식의 전파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서 그 바탕위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내실있는 남북 불교교류가 추진되길 바란다.

실업극복운동 | 북동포돕기 | 통일운동

종교계 '한마음 한뜻'

공동성명-평화행진 등 가져

각 종교 지도자들이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구제, 북동포돕기와 통일운동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김수환추기경,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이사장 등 3명의 종교지도자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실업자들의 손잡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문화방송 한겨레신문이 주관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정치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40여명이 위원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실업자돕기 운동기구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기금의 자율적인 집행과 아울러 △국민의식 개혁운동 △실업기금 모금활동 △실업자 구호 및 자활 지원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사회보장를 마련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종교지도자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함으로 각종 실업대책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 민족종교협의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6·25전쟁 48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공동 메시지를 발표했다. 23일 실업극복국민운동 출범식 직후 가진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메시지' 발표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소모적인 분단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은 기아에 허덕이고 남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 정부는 정부대로 통일의 밑그림과 과정을 협의해 나가고, 민간차원에서는 인도적 목적에서의 교류를 점차 넓혀 분단의 벽을 허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메시지 발표직후 김원기 노사정위원장과 오찬간담을 갖고 "정부와 노동계, 기업이 합심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을 보여 줄 것"도 주문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신부)도 21일 장춘단공원과 남산 일대에서 펼쳐진 '실직자와 북한동포돕기 남산평화대행진'에 참가해 "실업의 아픔을 함께하고 북동포들을 위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종교지도자들이 사회현실문제에 대한 해법제시에 앞장서며 국민적 힘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진은 23일 출범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 월주스님, 김수환추기경, 강원룡목사(우측부터).

분야별 전문포교사팀 구성

조계종, 어린이 · 교도소 · 군등 12개팀으로

어린이 · 청소년 · 군 · 교도소 등의 포교를 전담할 전문포교사팀이 구성됐다. 이로써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후 더욱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각종 현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은 6월 20~21일 화성 신흥사에서 1백4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를 주제로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2차 워크숍을 열고 12개의 포교팀을 구성했다. 분야별 포교팀 구성 현황은 서울 · 경기지역에 어린이 · 교도소 · 경찰 각 1팀, 청소년 · 군 각 2팀, 지역별로는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 대전 · 충청, 전주 · 전북, 광주 · 전남 각 1팀이다.

이날 구성된 포교팀은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성운 · 강지연 기자 〈swjung@buddhapia.com〉

국방부 군부대 점유사유지 정리키로

사찰토지 수용 가능성

조계종 '대책 부심'

국방부가 2001년까지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私有地) 1천8백48만평을 정리키로 함에따라 일부 사찰의 토지도 수용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망된다.

국방부가 밝힌 사유지 정리방안은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토지 감정가격과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입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는 소유주에게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한뒤 반환 △계속 군이 필요로 하지만 소유주 보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 등은 지상권 설정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적법한 사용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재무부는 "한번 수용된 토지는 되찾을 수 없을뿐 아니라 대토가 어려울 경우 정재의 유실로 이어진다"며 "지상권 설정을 유도해 최소한 매각은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의 사유지 정리 방침과 관련 최근 양평 용문사(주지 의광)는 30여년전부터 20사단 유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지 수용문제를 놓고 해당부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조계종 中信會 내분 조짐 운영위 소집권 놓고 갈등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운영위원회 소집권을 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신도회보를 통해 사퇴성명서를 발표한 송재건씨가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키 위한 운영위원회를 6월27일 소집하자 총무원과 김한곤 회장직무대행이 반발하고 있다.

김한곤 직무대행은 6월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송재건 전회장이 소집한 운영위원회는 사임한 회장의 권한없는 회의 소집"이라며 "6월27일자 운영위원회 소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건씨측은 "김한곤씨는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만 돼있는 상태이므로 운영위원회의 추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예정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추인하든지, 다른 사람을 선임하든지 운영위원들의 뜻에 맡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7일 운영위원회 성원 여부와 결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주 속보〉

한편 총무원은 6월22일 중앙신도회에 공문을 보내 "김한곤 회장직무대행은 회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혀 김씨가 회장직무대행임을 확인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그날이 빨리 오기를…

구독료를 자동이체 하면 편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 란?
구독자의 통장계좌에서 현대불교신문의 통장계좌로 매월 구독료가 자동으로 지불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 이렇게 좋습니다!
① 직접 은행에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② 같은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③ 본사는 매달 구독료 청구 지로를 발송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도 간소화 됩니다.
④ 6개월이상 계속 자동납부를 하시는 독자에게는 사은품으로 대나무찻잔을 증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은행에서 직접 신청
◇준비물: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해당은행의 신문사 이체 계좌번호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정확한 수납관리를 위하여 신청후 꼭 구독료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확인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자동이체 현대불교신문사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평화은행	052-25-0001-512
농협중앙회	053-01-227471	보람은행	002-22-00951-0
한일은행	082-031951-01-201	주택은행	504537-01-000064
신한은행	324-05-012374	외환은행	150-22-01008-2
조흥은행	322-03-00314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상업은행	113-04-106884
제주(지방)은행	50-01-124050	한미은행	100-51057-249
제일은행	100-20-14486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8-2269109		

향운정주 set 출시 ▶ 향운청주, 청자향로, 고급향



향운정주 - 정성과 정결함이 깃든 향운정주를 사용하십시오.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미타경' 과 '법화경' 에 유리는 금, 은, 자거, 마노, 산호, 진주등과 함께 극락세계를 장식한 보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인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법당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미타경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넘쳐 흐르며 연못 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려 있다.
사방의 길과 계단은 금·은·유리·파려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누각이 있으니 역시 금·은·유리·파려·자거·붉은구슬로 아름답게 장엄했다

●법화경
악취대수소표라도 청기영호하면 즉득천처히여 악유백천만억중생이 위구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등보하여 입어대해커딘 가사혹풍이 취기선방하여 표타나찰귀국하여도 기중에 악유내지일인이 칭관세음보살명자하면

향운정주를 애용하시는 분들의 개별구입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저 최상품의 향과 향로로 향운정주 set를 마련하였습니다..

● 향운 정주 set :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향



■ 향운정주는
■ 유리로 만든 작은 구슬로 쌀과 모래보다 실용적이며 향이 잘 꽂아집니다.
■ 사용이 간편하고 반영구적입니다.
■ 유리제품이므로 환경오염과는 무관합니다.
■ '향운' 은 향운공(香雲供),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향운정주 취급점 을 모집합니다.
· 실용신안등록 97-18095 ·

株式會社 世湖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7-30
TEL : (02)272-8886/7
FAX : (02)278-6675

香雲淨珠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엽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열리고 있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제3·4차 대회가 7월4~5일 서울 관문사와 7월10일 대전 엑스포 광장에서 잇따라 열린다. 범불교계가 한마음으로 국난극복의 기치를 든 참회대법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불교계의 군 경 승과 정치 언론 단체등이 후원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제3차 동체대비 구현 철야 관음정진법회를 주관하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이어 제4차 대참회 영산대재로 진행하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만났다.



4~5일 서울 관문사 철야 관음정진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인과법 되새기는 정진기회로"

-서울 관문사에서 치러질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는 첫 실내행사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종단내 규모가 큰 사찰도 많지만, 서울 관문사에 국난극복법회를 유치한 것은 총무원격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관문사로서는 이번 법회가 대외적 행사로는 처음인데, 마침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의 극복을 기원하는 대법회여서 대단히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관문사는 7층 대법당을 낙성하고 개원법회를 오는 10월11일 봉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가계 기업 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지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우리가 맞닥뜨린 국난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 가르침안에서 생각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상은 인과에 의한다는 것이지요. 한 푼도 한 순간도 덜하지도 않고 또 더하지도 않는 것이 인과법칙입니다. 철저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자의든 또는 시류에 편승했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인연을 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 허황된 삶을 살아왔고 그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취지 자체도 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때도 천태종도들이 주로 수행하는 관음정진을 철야로 하게되지요?

▲4일 밤9시부터 새벽3시까지 기도실과 법당이 꽉 메워지도록 신도들이 국난극복을 위한 관음정진을 합니다. 특히 천태종도는 철야기도는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운들이 모여서 반드시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마음과 뜻을 모아 좌절과 실의에 빠지는 일 없어야 하며,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어야합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파장입니다. 지금 어려움은 한 때입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극복을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농 축 수 임산업 협동조합의 참여로 우리 산물 공동직거래장도 열리지요?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을 함께 위하는 장터입니다.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실직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4~5일 서울 관문사 철야 관음정진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10일 대전 엑스포 대참회 영산대재



"윤달 영산재로 국난극복 기원"

-대참회에 이은 천도의식인 영산재를 벌이는 셈인데 의미가 크겠습니다.

▲재(齋)라는 것은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의식으로 종교의 상징성이 가장 크게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대참회 영산재도 우선 법회장에 영산회상을 상징하여 괘불을 모시고 상, 중, 하단에 온갖 공양물을 갖춥니다. 우리 종단은 예로부터 의식을 중요시했습니다. 의식전문 스님들이 10여분 있어 종단차원의 대소 행사를 집전해 오고, 재물도 여법하게 구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를 매년 열다시피하니 평균 1만여명에 달하는 동참 종도들 질서의식 또한 대단합니다.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영과 재정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행사 준비에 동분서주 바쁘신데 동참할 불자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이날 대전 엑스포 지구탑 광장이 워낙 넓어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난극복 참회법회 가운데 최대 인파가 집결될 것으로 봅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해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도 1만여개를 준비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달에 재의식도 지내고 참회를 통한 국난극복도 기원하는 뜻깊은 법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일 입장료와 주차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종단협의회와 관음종에서 배포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므로 행사전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목어 — 남의 종교 이야기

"추기경님은 우리의 영원한 애인"
"영원한 젊은 오빠 사랑해요"
"추기경님은 우리의 등불"
"당신은 별이셨습니다"

6월22일 명동성당에서는 '추기경님과 함께하는 감사미사'가 봉헌됐다.

3천여 천주교 신자들은 존경과 감사의 뜻이 담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은퇴하는 김수환추기경과의 석별을 아쉬워했다.

김수환추기경은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으로서는 마지막 집전하는 이날 미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여러분이 참아주고 도와준 덕분에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다. 나의 부족으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입힌 일, 섭섭하게 해준일등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여생은 여러분을 위해 살겠으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묵주의기도, 미사영성체등 6가지 영적 예물을 김추기경에게 봉헌했다. 또 김추기경에 대한 추억만을 모아 책으로 엮어 선물하기위해 신자들의 글을 모았다.

미사에 이어 추기경과 사제 그리고 신도들은 김추기경의 애창곡인 '만남' '사랑을 위하여' 등을 합창했다.

보도를 통해 다 알고있는 남의종교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는 이유는 감동적이고 부러운 이 정경을 거울로 삼고 싶어서다.

만약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 임기를 30년으로 정했다면 어떠할가. 부끄럽지만 상상하기가 어렵다.

한국불교의 큰집 조계종에서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스님들을 위해 감사법회를 봉행하고, 스님과의 추억담을 담은 책을 만들어 봉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신도는 스님을 존경하고 스님은 신도들의 등불이 되어주는 모습. 생각할 수록 아름답고 정겹다.

가을에 있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입에 담기 거북한 언행이 오가고 있다. 마치 정치판처럼. 제발 개혁전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재연되지 말아야 할텐데….

일선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재가법사들은 말한다.

"불미스런 소식이 들릴때마다 10년 포교가 무너집니다."

북 포교 기반다져… '햇살 보일듯'

신계사등 복원합의와 교계 대북교류

평불협 북 불교유적 복원추진 '10년 성과'
남북화해 통일불사 "성급한 기대는 위험"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 합의사항

신계사등 금강산 지역 3개 사찰 복원불사는 지난 3월 14일 북경에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대표 법타스님과 북한 금강산국제그룹 회장 박경윤씨가 만나 복원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격화됐다.

합의서는 △평불협의 신계사 복원 후 금강산 소재 불교 문화재에 대한 복원범위 확대 △금강산 성지순례에 관련된 남한내 일체의 권한 평불협에 위임. 성지순례와 수련 편의를 위한 숙소등의 시설 금강산 인근 지역에 별도 건립 △금강산국제그룹은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현지 답사 주선 △평불협의 사리원 안번, 고성 등의 국수공장을 건립 △평불협이 별도의 단체를 구성. 이 사업을 승계시키더라도 금강산 국제그룹은 이 단체를 인정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한다 등 5개항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대북접촉 경과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가 추진되기까지 불교계의 대북접촉은 10년이란 세월을 가져야 했다.

1988년 당시 하와이 대원사 주지였던 기대원스님의 북한 방문과_남북불교도 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등이 대북 접촉의 기화선이 된것이다. 이어 89년에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법타스님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면서 LA의 도안스님과 지현정사도 잇따라 북한불교계와 접촉을 하며 북방포교의 기초를 닦았다.

91년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LA에서 남북불교지도자가 만나 합동법회를 봉행. 남북불교는 분단과 이념의 벽 허물기에 성공했다. 다음해인 92년 평불협의 창립은 대북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남북불교지도자는 95년에도 북경에서 회동을 갖고 상호교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기조를 재확인 했다.

교계 대북협력사업

작년 9월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가 중국을 통해 옥수수 2천톤과 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기탁한데서 남북불교 교류의 폭을 넓혔다. 98년 북한 옥수수심기운동본부에 1천만원을 전달하고 5월에는 1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조불련에 지정기탁하며 기상이변과 흉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의 확산에 불을 당겼다.

96년 불교계 33개 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본부장 법륜)도 적십자사와 유진벨 재단을 통해 식량지원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부터는 국제구호기금(JTS)를 통해 나진 선봉지역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구호사업도 펼치고 있다.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으로 남북불교교류의 새 영역을 개척한 평불협은 5월 밀가루 20톤을 지원하면서부터 가동되고 있는 사리원의 금강국수공장 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과제

금강산 사찰 복원 불사에는 적잖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성급한 기대로 다가서기보다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강산유적복원추진위원회가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확보하냐 하는 문제다. 이를 두고 범종단적 차원으로 추진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이 앞장서 추진함으로 대표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사찰복원과 성지순례 사업을 추진에 따른 재정문제의 투명성, 복원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등도 각종단과 단체들이 공동 참여할때 불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불교계 대북교류 일지

88. 8 통일불교운동협의회 창립
88. 9 하와이 기대원스님(당시 대원사 주지) 분단이후 최초 승려 북한 방문
88. 11 남북 불교도 교류추진위원회 설치
89. 6 법타스님 북한 공식방문
90. 1 남북불교교류추진위원회 결성
91. 1 한민족 불교교류 추진 미주불교협의회 창립
91. 10 미국 LA에서 분단이후 최초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 봉행
92. 2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 창립
94. 8 임진각 평화통일 기원법회 봉행
95. 4 평불협 미주 대표단 조선불교도 연맹 방문
95. 5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박태호 조불련 위원장 남북불교대표 북경 만남
96. 4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북한 방문
96. 11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창립
97. 10 불추위 옥수수지원
98. 3 평불협 대표단 및 조계종 총무원 대표단·조불련 대표단 북경 만남
98. 5 평불협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설립 및 1차 지원, 불추위 밀가루 조불련에 지정기탁

금강국수공장에후원금 보냅시다 (02)735-5559

2542년 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 무병장수와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정성을 담았습니다. "



백팔(108)상조회가 제조판매하는

윤달수의

파격적인 가격에 드립니다.

※ 전국 어디든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21세기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보운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

백팔(108) 상조회 회원 모집 및 지사모집

◆ 24시간 365일 장례상담 T)032-6128-108
◆ 운달수의 및 회원가입상담 T)032-6673-404



한 · 일 종교인 '생명과 평화 국토순례단' 발대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한상범)와 일본 묘법사 스님 30여명은 24일 경주 분황사에서 '생명과 평화의 제2차 한 · 일종교인 국토순례단' 발대식을 갖고, 분황사에서 쌍계사에 걸친 국토순례를 시작했다.

한 · 일종교인 국토순례단은 25일 남산 순례길에 앞서 23일 경주 불국사에서 전야제, 24일 분황사에서 참회단식을 결행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종교화합' 플래카드

Focus

부처님 오심을 봉축드립니다! 인천구치소 재소자교화위원회(위원장 선응)가 21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구치소에서 열린 석불입상 점안대법회장에서 종교화합을 기원하며 인천 천주교 교도사목후원회가 내걸은 플래카드가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인천구치소가 신축 · 이전되면서 인천불교도들이 재소자교화를 위해 시작한 석불입상 봉안불사는 개신교계의 강한 반대를 받기도 했다. 개신교인들은 인천 시민회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다.

이에 인천불교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5월말 개신교계와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이날 안치된 석불입상은 총 높이가 4.9m로 인천 검찰청 법원이 들어서는 법조타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비우는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

83세에 동국대불교대학원 입학 장경학씨



"앞으로의 여생을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포교사로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반세기를 후학양성에 매달려온 법학자로서, 83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포교사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한 전 동국대학교 법대학장 장경학씨.

장씨는 법해석학의 대가로, 법학계에서는 확고한 위치에 있지만 "불교 공부는 이제 겨우 시작이니,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는다.

"평생 동안 지녀 왔던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버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금씩 비워나가다 보니 그것 자체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란걸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장경학씨는 "80여년을 살고나서야 이제 겨우 깨우쳤지만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9월에 시작되는 강의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고 여느 젊은이 못지 않은 의욕을 보였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백혈병 어린이 돕는 윤영득씨

"헌혈은 생명의 보시"



"백혈병 등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는 물질적 · 정신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헌혈증서를 전달하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절실한 보시입니다."

생명나눔실천회 충남지부(지부장 조문호) 윤영득 후원회장(43 · 대한종합상사 대표)은 "헌혈기증 등 작은 관심이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겐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윤회장은 백혈병 청소년 10명을 위해 6월26일 지부창립 1주년을 기념, '백혈병어린이 돕기 헌혈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5백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헌혈증서 전달, 투병사례 발표, 김기흥 서산시장과 류상동 서산시교육감의 축사, 도신스님의 찬불가요, 기타 · 섹스폰 연주 등으로 진행된 이날 후원의 밤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 통하는 자리였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불청대상 받은 최윤선씨

"봉사활동 적극지원"



"이 상을 저희 서울지구 전체 회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받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제17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불청대상을 수상한 최윤선회장(36, 대불청서울지구)은 서울지구 회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96년부터 서울지구회장직을 맡아 오며 지난해 16차 불청대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치렀으며 지회와 회원들의 신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서울지구는 소쩍새마을 등 복지단체에서의 신행 활동에 주력한 반면 기도정진과 같은 수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이에 대해 최윤선회장은 "서울지구 회원들은 생명이 다 할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청년불자들입니다"라며 웃어 보였다.

오종욱 기자

교차로

군종사관후보생 임관식 참석



성타 포교원장 스님은 6월30일 경북 영천 3사관학교에서 열리는 군종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해 법문했다.

김포학사 공사현장 방문



지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스님은 6월23일 김포학사 이전 불사 현장을 방문해 전체 공정의 23% 진행된 현황을 점검했다.

中서 신계사 자료 수집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스님(은해사 주지)은 6월25일 신계사 복원을 위한 자료 수집차 중국 북경으로 출국, 28일 귀국했다.

소식지 '실천불교' 복간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스님은 소식지 〈실천불교-제1호〉를 복간했다. 48페이지의 복간호에는 총무원장 선거일정 및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 등이 실려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혜성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일부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보살선원 후불탱화 정안



각현 연꽃마을이사장 스님은 3일 팔공산 보살선원 후불탱화 정안법회 및 1백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053)983-3677

봉려관 스님 60주 추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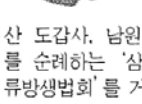
중원 제주관음사 주지는 6월22일 제주불교 중흥주 안봉려 관스님 6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美동부 불교파악위원장에



경암 미국 워싱턴 보림사주지는 16일 입국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으로부터 미국 동부지역 불교실태파악 준비위원장으로 위촉 받았다. 스님은 4월 19일 건립된 보림사 천불전 천불 봉안불사를 추진 중이다.

美 순회법회 마치고 귀국



대행 한마음선원장(본지 회장) 스님은 워싱톤 뉴욕 등 미국순회법회를 마치고 6월24일 귀국했다.

3사 순례 · 조류방생법회



원학 용연사 주지는 윤달을 맞이하여 6월29일 강진 무위사, 월출산 도갑사, 남원 실상사 등지를 순례하는 '삼사순례 및 조류방생법회'를 거행했다.

성수스님 초청법회

정암 부산 용궁사 주지는 8일 오전 11시 용궁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을 역임한 성수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소년기장돕기 음악회



구윤회 성보사 포교원장(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은 2일 오후 7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음성공양의 밤'을 연다.

격월간 '자양참소식' 창간

공영애 자양사회복지관장은 1일 개관1주년을 기념, 격월간 소식지 〈자양참소식〉을 타블로이드판형(8면)으로 창간했다.

"반쪽 굶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北 식량난 증언 연길 소설가 김학철씨



정토포교원 법당에 힘차게 들어서는 여든 초입의 김학철씨(82 · 소설가). 왼쪽 다리를 잃어 목발을 짚고 선 모습에서 60여년동안 한민족 '백성'만을 위해 살아온 외길 인생이 보인다.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을 2백만 중국 조선족들이 돕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대표 법륜) 창립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조선족상조회 고문 김학철씨. 그는 24일 정토포교원에서 열린 '조선족과 한국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주민의 먹거리는 50년대 문화혁명기의 중국 사정과 비슷하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간 방안에 두었다가 매장한다. 굶주린 사람들이 시신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김씨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열되면서, 법당을 가득 매웠던 청년불자들은 더욱 숙연해져 갔다.

사회주의 사상가임을 자처하는 그이지만 '백성 지상주의'라는 신념 때문에 이미 50년대에 북한과 중국을 등졌다.

김학철씨는 "어느 곳에서든지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반쪽이 굶어 죽고 있다면 다른 반쪽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긴 여운을 남기며 강연회를 마쳤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본부'는 실자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21-0552-767(예금주 이관환)
◇본부:(02)720-6564, 7067
◇충청지부: (0433)43-4556, 3550
◇부산 · 경남지부: (051)508-0428

도리산 육장사에 나투신 지장보살님

취직, 진급, 시험 99학년도 대학입시생을 위한

특별 철야 기도문

불자님들이여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잠못들어 고뇌하십니까?
도리산 육지장사에 나투신 지장보살전에 오셔서 기도와 포교 수행에 초지일관하신 윤지원 스님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요.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 본원경에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의 명호를 단한번만 듣고 합장 예경하거나 간절히 생각하고 따르면 이 사람은 삼십겁동안 지은 죄가 소멸되고 백번이나 33천 천당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쉬운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동참하시여 성원 성취 하십시요.

● 다 음 ●

1. 일 시
1차 철야일 : 불기 2542년 (1998년) 7월 18일 토요일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2차 철야일 : 불기 2542년 (1998년) 8월 15일 토요일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3차 철야일 : 불기 2542년 (1998년) 9월 19일 토요일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4차 철야일 : 불기 2542년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5차 철야일 : 불기 2542년 (1998년) 11월 7일 토요일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2. 장 소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128-1
도리산 육지장사 야외법당 ☎ 0351-871-0101
3. 접수문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 17-12 삼보사 ☎ 02) 352-6406~7

※ 도리산 육지장사는 서울 구파발에서 30분 자동차 거리안에 있으며 최고 명당터에 모유정에서 솟구친 약수가 있습니다. 기도 참석시는 필히 물통을 지참하세요.

지장만일 염불회 준비위원회
삼보사 신도회 일동

· 우리말 - 왕생의례집 ·

법사회에서 마침내 해낸

우리말 왕생의례집!!



알기 쉽고 편리한 우리말 왕생의례집입니다.
우리 모두 기다리고 원하던 바로 그 책입니다.
왕생의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 시다림 · 염습 · 성복제 · 발인 · 영결식 · 매장작법 · 다비 · 상용영반 49재(천도재) · 구병시식 · 제사 · 설(추석) 차례법 등을 총망라한 왕생의식집입니다.

법사와 불자들이 모두 상비해야 할 우리말 왕생의례집.

⊙ 시다림 · 49재 등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의식진행시 법사와 대중이 다같이 펴놓고 동참하면 좋습니다.

◐ 이 책의 특징 ◑

● 의식진행시 찾고 뒤지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한글의 운율을 맞추어 독송이 편리합니다.
● 한문 원문을 병기하여 필요시 적절한 혼용이 가능합니다.
● 왕생의식곡을 다수 실어 필요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본의 신구조화(新舊調和)로 낱장이 떨어지지 않게 실로 묶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1층
· 전화 : 02)264-1827, 266-1827 · 팩스 : 02)279-3427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직장·직능단체

IMF극복 수련회 '봄'

금융단불자련 **관악산 연주암서 철야정진**

나우누리불동 **도리사 찾아 참선·수계식**

불자교정인련 **직지사서 재소자 포교 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직장·직능단체의 수련대회가 늘고 있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정진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름수련대회 계획을 발표한 단체는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나우누리 부처님나라, 천리안불교동호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금융결제원불자회 등이다.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11~12일 관악산 연주암에서 수련대회를 갖는다. 금융인불자들은 11일 오후 5시까지 관악산을 등반한 뒤 연주암에서 철야정진기도 및 참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용이회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단불자들이 합동으로 수행정진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398-6164 이충훈간사.

나우누리 부처님나라(회장 허무룡)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3일간 경북 선산 도리사에서 여름수련대회를 연다. 이번 수련대회는 참선및 철야정진 순으로 진행되며 수계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도 4~5일 수행을 통해 교정인불자회의 중흥과 발전을 모색하는 임원수련대회를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다. 수련대회에는 전국 4개지부 32개지회 1백20여명이 참석한다.

또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화제)와 천리안 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는 7월말에서 8월초 수련대회를 열기로 했다. 금융결제원불자회는 이천 영월암에서, 천리안불교동호회는 '아미타불'을 주제로 금산사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니텔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0~2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설 2주년기념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어 혜정스님(법주사 율주)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산내암자도 순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유니텔동호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설 2주년기념 수련대회를 가졌다.



동화사주지 성덕스님 진산식

대구 동화사는 6월22일 대웅전에서 제23대 주지 성덕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진제 동화사조실, 성수·도원 조계종 원로의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노태우 前대통령, 문희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최동원 대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덕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동화사를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주역 교구본사로 자리매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사 차일혁총경 공적비 제막

구례 화엄사(주지 종열)는 6월21일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유족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에서 故 차일혁총경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故 차일혁총경은 6·25당시 남부군 토벌작전에 참가해 빨치산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라는 상부지시에 화엄사 각황전의 문짝만 떼어내 불태우는 등 천은사, 백양사, 쌍계사 등의 소실을 막아낸 바 있다.



극락암 경봉스님 16주기 다례재

양산 통도사 극락암(주지 명정)은 21일 경봉스님 입적 16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경봉스님이 정진하던 토굴인 삼소굴 중수회향법회도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서 명정스님은 "삼소굴의 중수불사는 단순히 토굴의 중수일뿐 아니라 큰스님의 뜻을 기리고 받드는 것"이라고 불사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날 월하스님, 청하스님, 월파스님 등 영축총림 문도들과 신도 3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제15기 행자 사전교육

조계종교육원(원장 암도)은 25일 직할교구 제15기 행자 사전교육을 성북동 길상사 수련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사전교육은 신체검사와 연수국장 견진스님의 지도로 불공습의, 교육국장 정혜스님의 기본습의와 발우공양 교육 등과 기초교리와 승가의 삶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사전교육에는 남행자 10명, 여행자 25명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우리 모임에선

전북불교대 청년회 창립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개교 10주년을 맞아 청년회를 창립한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창립준비위는 7월내로 창립법회를 갖기로 했다. 청년회는 창립과 함께 '강건기 학장과의 대화시간' '경전읽기' '한자공부'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 (0652)226-7878

세무사불자회 명찰순례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는 13~14일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선운사 송광사 위봉사 내소사 등 전북지역으로 사찰순례〈사진〉를 다녀왔다.

선운사 도솔암 법회에서 도솔암주 선진스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 일수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은 법당에서 참선 및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했다.

천리안 미륵불교모임 탄생

천리안 통신에 미륵불교모임이 생겼다. 이 동아리는 게시판 동호회/팬클럽에서 92번 모임마당으로 들어간뒤 24번 종교란에 있다. 종교란에서는 18번 미륵불교모임을 선택하면 된다.

미륵불교모임에는 '시와 명상' '일엽편주' '법문 듣는 법' '대화방' '알고싶어요' 등의 코너가 있다.



금융결제원 불자회 자광원 효도잔치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화제)는 6월 20일 부처님마을 성남 자광원에서 효도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결제원 고적답사반 '소리길' 전체 여직원 모임인 '한결회'도 함께 참가하여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빨래 및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전국교사불자 내달 8~10일 연수

조계종포교원이 개최하는 제4회 전국교사불자연수회가 8월 8~10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소개, 108배 및 참선, 분과 토의, 불교학생회 운영사례 발표와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영·정조시대의 문화예술'(최완수 간송미술관연구실장),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상'(고우익 교법사단장), '불교의 세계관'(암도 조계종교육원장), '현대인과 선'(성타 포교원장), '불교의 상담원리'(용타 동사섭회주).

참가희망자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02)720-7060.

제8교구 교사불자연합 태동

회원 120명…회장 조농연씨

상주 문경 구미 직지사(김천)교사불자회 등 직지사 관할구역내의 4개 교사불자회를 아우르는 '제8교구 교사불자회연합'이 지난 20일 출범했다.

4개 교사불자회 20여 임원들은 이날 직지사에서 창립식을 갖고 회장에 조농연교감(김천농남중, 직지사교사불자회장)을, 부회장에 나머지 3개 교사불자회장을 각각 추대했다.

1백20여명의 교사불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동연합회는 합동법회 개최 및 상호교류를 통해 침체되고 있는 교사불자회와 불교학생회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8교구 교사불자연합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직지사에서 수련대회겸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북지부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간병봉사로 포교하는 '하얀연꽃'

탐방 백련선우회

염습등 전통의식 공부
무의탁노인 장례서비스도
회원 50여명…대부분 여성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마음이 아픈이들을 토닥거려주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곳. 바로 백련선우회(회장 성태용)이다. 백련선우회는 2주년을 맞아 4일 길상사에서 2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기약하게 된다.

지난 96년 6월 22일 우리는 선우의 산하단체로 시작된 백련선우회는 간병봉사, 무료안구시술, 무료장례서비스 등 임종 및 장례에 관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회원은 50여명. 대부분이 여성불자로 구성돼 있으며 저마다 각각 인연을 따라 개인으로 또는 여럿이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무료안구시술을 한차례 성사시킨 바 있으며,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이들의 장례서비스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백련선우회는 회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여법한 활동을 위해 별도의 법요집을 제작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장충동 우리는 선우 법당에서 의식공부도 한다. 목탁치는 법, 요령 흔드는 법, 염불과 경전독송, 염습 등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스스로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곧 백련선우회의 활동이 단순한 간병이나 장례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 위안까지 제공하는 힘을 갖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의식교육 외에도 사찰을 찾아 회원들이 함께 수련회도 갖고 있다.

성태용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간병, 장례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선우법당에서 서로의 봉사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회원들.

무량사 관음라한전 건립불사 권선문

삼국유사 끝부분에 (대성효 이세부모 大城孝 二世父母)란 항목이 있습니다.

신라의 김대성은 보시하여 얻은 인연공덕으로 신라의 재상인 김문량(金文亮)집에 태어나 성장하여 현생부모와 전생부모를 모시고 현생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짓고 전생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지었다는 기록입니다.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스님(1206~1289)께서 게송을 지어 찬탄했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대성에 대한 이야기는 인과업보가 분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덕을 지으면 그 과보가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성도 밭을 시주하고 바로 재상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역사에 길이남을 뜻깊은 불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구촌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 찾아드는 명소지요.

아득한 옛적에 이룬 불사지만 현실에도 계속 작복하는 무루의 복락입니다.

민족의 문화유산은 물론이요. 유네스코 국제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이 사바의 연꽃이 되어 세세생생 무량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관음라한전 건립불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대자대비심의 발로로 관세음 보살님을 원불(願佛)로 오백라한(재대성중)님들을 모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중생을 교화하고 구원하는 성지 기도도량을 장엄코저 하옵니다.

불전을 장엄 가람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단월들이 작복의 좋은 기회를 삼아 각기 동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귀 복덕이 구족한 과보를 얻게 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관음라한전 건립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자손손 무량공덕 해가 되고 이고득락 하시기를 앙원하나이다.

◆ 관음·라한전 건/립/불/사

달 집	9,500만원		오 량 보	300만원	2개	집 차	30만원	450개	수 장 목	20만원	50개
불 단	8,000만원		기 둥	500만원	16개	소 로	5만원	950개	문 (궂실)	300만원	32짝
상량도리	1,000만원		초 방	150만원	16개	주 녀	400만원	4개	주 춧 돌	300만원	16개
마루공사일식	6,000만원		평 방	200만원	16개	사 례	100만원	4개	지붕용두	500만원	2개
대 들 보	2,000만원	4개	장 여	30만원	90개	연 목	30만원	200개	기 와	10,000원	3,500장
단 보	300만원	4개	조푹연꽃	20만원	300개	헛 진 목	20만원	200개	삼 존 불	7,000만원	
측 량 보	700만원	4개	도 리	100만원	50개	용 두	450만원	6개	오백라한	50만원	527라한

● 창건 공덕주를 모십니다. ●

귀의 삼보하옵고

영양 백련산 무량사는 청산관음대성 진신이 상주하는 관음기도 도량으로서 영양군.읍 입구 산성 아래 삼만여평에 이르는 임야에 천삼백평의 종교부지에 요사채. 지장전 영가단. 무량수전. 사천왕문이 전통의 건축양식으로 세워져 있고 그동안 선남자 선여인 들이 기도정진하여 서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어 모든분들이 기도정진하려고 하나 객실이 없어 안타까워 하던중이며 영양군.읍 소재지와 2키로정도 거리이며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포교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무량사에 객실 대중선방을 건립하고 납골당을 신축하는 등 할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사에 사부대중들은 상의하여 무량사의 제2의 창건불사라고 할 수 있는 대작불사에 창건공덕주를 모시고자 합니다.

영양읍은 첩첩산중 두메산골에 있는 작은 읍으로 이조시대의 현감이 부임하려 영양현 입구 송현당을 돌아들 때 타고 있던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아 말에서 내려 이 도량을 보고 삼배를 올리고 나서야 말이 움직여 현감이 부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인근에 있는 불자들에게는 청산관음진신이 상주하시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래가 있는 무량사에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장엄의 원력을 세우고 창건 공덕을 지어 평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건공덕주가 되시면 평생위패를 모시고 주지스님들 대대로 제사를 모셔 드리는 것이 사찰이 정하는 법도입니다.

산좋고 물좋은 마음의 고향 오셔서 무량사의 현상을 살펴 보시고 선근공덕의 대원을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佛紀 二五四二年 (丁丑) 六月 日

韓國佛教無量寺 觀音羅漢殿 建立委員會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2동 산1번지

☎ 0574)683-2879

無量寺 住持 華戒 合掌

법회안내



무진장스님(동산반야회 법주) 매주 토·일요일 오전10시 조계사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6시 동산불교대 교리강좌. (02)732-2115



밀운스님(봉선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군인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0346)555-5974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8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만해교육관 불교기초교리 강좌. (02)730-9108



실상스님(대구 법왕사 주지) 11일~17일 오전10시 칠곡 연흥사 큰법당 윤오월 생전예수재 7일 대법회, 14일 오후2시 대구교도소 방문법회, 21일 연흥사 개원 1주년 기념 삼존불 봉안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일요신도 정기법회. (053)311-9937

혜계스님(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초심자를 위한 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7시30분 법형제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10시30분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오전10시30분 정진법회. (053)426-2779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천안지역 3寺 순례
신행연 신행체험법회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9일 천안에 위치한 용화사, 광덕사, 성불사를 찾아 신행체험순례법회를 떠난다.

이번 순례법회에서는 동진출가하여 80년 가까이 수행한 용화사 구공 큰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천안의 대표적인 기도도량인 광덕사와 성불의 모습이 바위에 아로새겨진 성불사를 찾는다.

좋은 사찰, 좋은 법문이 있는 이 순례법회에 함께 참여해 보자. (02)582-6612

선율로 달래는 역사아픔
동명불원 산사음악회

푸른 빛을 더해 가는 산사에서 뜻깊은 음악회가 열린다.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김영동의 산중음악회가 4일 저녁 7시에 부산의 동명불원에서 막을 올리게 된 것.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개관준비위원회,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 공동주최하는 음악회는 김영동씨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한다.

'영산회상' '한의 이별' '어디로 갈거나' '산행'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들과 사물놀이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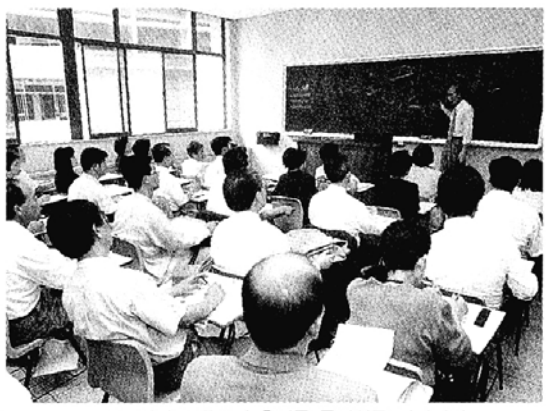
특히 이 음악회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의 아픔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싸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게 된 것.

아름다운 산사에서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는 음악을 감상하는 이번 음악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051)867-0501

대승불교 가르침 배우자
불국원 대승기신론 특강

더위야 물렀거라! 부처님 가르침이 나가신다.

불국원(원장 이중표)이 대승불교사상의 정화로 일컬어지는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강좌를 들으며 초여름 무더위를 이겨내지.

〈대승기신론〉은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에 따르는 올바른 삶인가를 밝혀준 경전이다. 원효대사는 〈대승기신론〉을 '모든 논리의 조종'이며 '여러 경전의 핵심을 하나로 꿰뚫은 것은 오직 기신론 뿐이다'라고 극찬했다.

이처럼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읽어봐야 할 기신론을 11일~17일까지 오후 2시(주간반), 오후 7시(야간반) 1일 2회에 걸쳐 이중표교수가 한글로 번역해 쉽고 친절하게 강의할 계획이다.

올여름의 무더위와 삶의 뜨거운 고뇌를 식혀 줄 대승기신론 강의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062)652-6050

초심자를 위한 교리강의
고봉불교학당 무료강좌

수원지역의 초심자를 위한 무료불교기초교리 강좌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상연구회 고봉 황성기박사가 여는 제2회 고봉불교학당 초심자를 위한 교리강좌가 바로 그것.

수원 팔달산 미륵도량 대승원에서 13일~24일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는 수원지역의 불자들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 (0331)255-5018

병자간호는 복짓는 일
청주서 호스피스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 청주교육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자비 실천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2일~30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 청주 조계종 자원봉사센터 교육원에서 열리는 호스피스교육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행, 이론, 실습으로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의 역사와 개요, 호스피스 구성원의 역할, 말기환자의 각 증상과 통증완화조절요법 등의 강의를 비롯해 사성제를 통해 살펴본 삶과 죽음의 의미, 연기법, 정토신앙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0431)54-2258

"윤달 내생의 공덕 쌓으세요"
본사 법보시용 '수원왕생경' 발간



중생들이 이생에 선업을 쌓아 내생의 복락을 준비하는 수행이 바로 생전예수이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무인년 윤5월을 맞아 예수신앙의 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 경전인 법보시용 〈수원왕생경〉을 발간했다.(값 1천원)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을 줄여 〈수원왕생경〉이라 부르는 이 경은 운제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이 번역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들기전 보광보살이 "시방의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어떤 공덕을 쌓아야 하느냐"고 질문한데서 시작된다.

살아 온 날들을 뉘우치고 선행을 다짐하는 참회와 서원의 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재임을 알려주는 이 경은 바른 믿음과 수행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여의고 우주법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 위한 길을 일러준다. (02)722-4162

나의 수행일기



고영을 〈전남여고 교사·탱화화가〉

구봉스님의 다비식을 했던 곳에 산들산들 바람이 분다. 바람 끝에 풀잎도 있고, 구름도 있다. 그곳에 모였던 이들은 다 흩어져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 가고 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지만 구봉스님의 모습이 가슴을 애절하게 파고 든다. 나에게 탱화를 전수해 주신 스승님이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의 몸이었지만 평생을 불모로서 부처님만을 마음 가득히 안고 사시다 열반하셨다. 어떤 이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느냐며 질문을 하곤 하는데 탱화배우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대화를 할 때는 한자와 표정, 몸짓으로 하기 때문에 스승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 등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다. 구봉스님의 욕심없는 삶, 청정한 마음, 타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 등. 탱화를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스님의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스님댁에서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또 가끔 들렀을 때 꼭 문 밖까지 나오셔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셨던 모습, 그 스님을 뵙고 그림을 시작한지 18년째인 올해 88년을 사시다 이승을 떠나셨다. 구봉스님의 열반은 나에게 가장 큰 법문으로 남아있다.

기독교신자였던 나는 대학다닐때만 해도 불교에 대해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졸업후 송광사 근처의 학교로 발령이 났다. 그때가 78년이었다. 함께 근무하는 처녀 총각선생님들끼리 어울려 송광사에 놀러 갔다가 구산스님을 친견했는데, '몸은 가만히 두고 운동장을 돌아보아라' 하셨다.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된 셈이다. 반야심경을 보게 되었는데 철학서 같다는 느낌과 뭔가 완전하게 알수는 없지만 어떤 명쾌한 답을 얻는 것 같아 푹 빠져들었다. 서양화가 전공이었던 나는 개인적으로 서양화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때인지라 자연스럽게 탱화로 시선을 향하게 되었다. 그때 불모인 구봉스님을 뵈었고 제자가 되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남여고에서는 불교학생회를 맡고 있다.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한 적이 없어 아는 것도, 가르칠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학생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씨앗만 뿌리고 있다.

요즈음은 광주 관음사 104위 신중탱화불사를 하고 있다. 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탱화를 하면서 전통미술의 뿌리인 불교미술이 미술대학이나 교양과정에서 당연히 강의되어져야 한다고 발원을 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일도 고통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좋지않은 일이 생겼을 때 후회도 거의하지 않는다. 인연법에 따라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 그런지 그저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을뿐이다.

얼마전 동료 여교사의 93살된 어머니가 동네 노인당에 자주 출입하는데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삶 발원
장애 불모 구봉 노스님에게 '무욕' 배워



하루는 딸에게 하는 말이 새파란 것들이 나는 무시하고, 저희들 끼리만 논다고 해서 도대체 새파란 것들이 몇살이나 되었어요 했더니, 이제 갓 80살 넘은 것들이 말이야 하더라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다. 내가 잘 가는 무등산 자락은 근무하는 학교에서 10분 거리다. 산도, 나무도, 산골짜기에 흐드러지게 핀 하얀 찔레꽃, 작은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 모든 게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미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탱화그릴 때 날아드는 모기를 죽이지 못하고 쫓기만 하는 것으로도 실천한다. 내가 불교를 좋아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현재생활속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며 작은 것을 스스로 실천하며 사는 삶을 나는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게 시 판

♣ 알림

△무료영정사진 촬영=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8일 복지관에서 무료 영정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선착순 10명에게 영정사진을 찍어준다고, 영정사진촬영은 매월 10명씩 실시할 예정이다. (02)421-6077

△북한농산물판매=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는 북한산 송화가루와 고사리나물을 판매한다. (02)733-2557

△간병인 파견=연꽃마을 간병협회에서는 유무료 간병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료간병의 경우(산모간병 포함) 12시간은 3만원 24시간은 4만5천원이며, 무의탁노인 등에게는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펼친다. (02)363-7884

△장애인 어울림 모임=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장애인 정책과 법률에 대한 토론 모임을 실시한다. 지체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852-0525

△자원봉사자교육=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은 3일 오후 2시 제3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042)488-6297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정토주간보호센터에서는 65세 이상 중풍,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타 이용자를 기다린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이용가능하며 물리치료, 한방치료, 간식, 중식등이 제공된다. (02)852-0522

♣ 강좌

△성훈따주기·주역=수효사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수효사문화원에서 맹란자씨의 지도로 제2기 주역강의를 시작한다. 또한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지 무구스님의 지도로 제27기 성훈따주기 강좌를 실시한다. (02)313-3060

△무료청소년수화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무료청소년 수화교실을 연다.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기초부터 말하기, 장애인과의 대화법 등을 지도한다. (02)817-8052

△조계사 문화강좌=조계사는 불화그리기·서예·판소리 남도민요·수지침·다도·선체조·한국무용·사군자 동양화·가요 부르기 등 3개월 과정의 문화강좌를 연다. (02)720-1390

♣ 모집

△머리미용·조리 야간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머리미용·한식조리사 자격증 대비 야간반을 개설했다. (02)852-0525

△성인피아노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피아노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자를 위한 바이엘 2개월 완성과정과 중급자를 위한 반주단기완성과정으로 구성돼, 영화음악과 째즈 등을 지도한다. (02)817-8052

♣ 부음

△문정수 부산광역시 시장 부친 문명조씨가 6월 21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영결식은 25일 불교의식으로 치뤄졌으며 영락공원에 안치됐다.

한국승가대학원
통신광정 신입생 모집안내

1.접수기간:7월5일-8월15일(기간엄수)
2.합격자발표:서류심사후 개별통지함
3.입학자격
●대학원 과정:불교의 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
●강원과정: ① 승가 대학원 졸업자
② 불교 관련 박사과정 졸업자
4.교육기간:각 과정 3년(6학기)
5.교육방법: ① 매주 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② 월 1회 대구강의실에서 특강
6.졸업후혜택: ① 졸업증서 수여
② 자격증 수여
③ 사원 개원시 지원

※자세한 입학 안내서 우편으로 청구하면 보내드림.
(우)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법화삼부경강원
(053)952-8711 017-501-8711

놀라운 효과! 확실하게 퍼드립니다.
기미! 잡티! 잔주름!
약사가 개발한 기미 잡티 전용
고기능성 화장품 탄생!!
- 보사부 허가 제 120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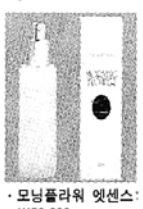
박동안 약사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참귄 휴먼크림·리퀴드 1set : ₩80,000

▶자매품



·모닝플라워 엣센스: ₩50,000

▶ 현직 약사가 직접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격 시장진입에 앞서 약사회 여자회원을 대상으로 판촉을 해본결과 반응이 예상외로 좋아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지고 있다.

●참귄 휴먼크림
기미·잡티제거원리(검버섯, 모공수축)
고농축된 천연미백 물질인 알부틴 7.2%, 알콕시 글리세롤 5.5%, 알로에베라(200:1), 효소비타민 C, 유근피, 황금, 황련, 당귀, 인삼생약엑기스가 도요세라의 원적외선 침투력에 의하여 피부 깊숙히 기저층, 진피층에 분포된 멜라닌 색소를 분해시킴으로 기미, 잡티, 검버섯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아연화 성분에 의해서 모공수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기미·잡티·검버섯·땀구멍 축소 ※

●자매품 - 모닝플라워
레티놀 2500IU 3%, 효소 비타민 C, 알긴산, 스쿠알렌, 천연로코페롤, 유근피, 비파엽, 도토리, 약쑥, 백간장, 인삼 고농축의 생약엑기스가 펴라믹 원적외선 작용으로 피부 진피층 깊이 침투되어 수분유지와 정상적인 각화작용으로 잔주름을 펴 드리고 예방하여 드립니다. 3% 효소 비타민 C가 미백작용도 잔하게 합니다.
※ 잔주름 제거·미백작용 ※

초원 케미칼·라이프 CO.
☎ 02) 725-5003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태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못느낀다.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 나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고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아무리 잘난척 대단한척 아는척해도 이마와 정수리에 엽나고 손, 발, 배 차가우며 배꼽주변 인중, 눈썹, 손가락사이 눌러보아 맺힌게 있고, 통증느끼면 몸둥이 하나 다스리지 못해 만병의 원인을 간직한 부끄러운 예비환자이다. 비전의 수행으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두통, 불면증, 상기병, 화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단시일에 극복된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3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회비일체없음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 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화암사 극락전 내부의 고주(高柱)는 길게 금이 가 있고 철사줄이 걸려 있다.

완주화암사 목조물 금가고 뒤틀리고 훼손된채 방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제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보물 663호) 등 불교목조건축물들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장마를 앞두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백제의 건축양식인 하앙식구조(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서까래를 길게 빼 지붕구조)를 보여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화암사 극락전은 내외부의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뒤틀려있는 상태. 내부의 고주(高柱·보통기둥보다 높게 세운 기둥)는 길다랗게 금이 가 있으며, 천장 아래로 원형에는 없는 별도의 구조물이 설치돼 천장을 받치고 있어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 외부도 뒷쪽 아래의 나무부재가 쥐가 드나들 정도로 구멍이 나 있다. 사정은 81년 극락전과 함께 해체·보수된 우화루(보물 662호)도 마찬가지. 기둥이 썩고 마루가 내려앉는 등 훼손이 심해 올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장마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관리국과 전북도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며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신라의 5층전탑(보물 189호)이 남아있는 송림사의 대웅전과 명부전은 기둥 등 목부재가 퇴락되고 지붕의 누수로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10여년전부터는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면서 서까래와 기둥이 썩기 시작했고 탱화의 부식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고작 지붕 전체를 비닐로 씌워놓는 조치를 취해 놓았을 뿐이다.

송림사측은 "대웅전 개축과 명부전 보수 등 전통사찰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사찰을 가꿔나갈 계획이었으나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며 "새 주지스님이 오시는 대로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대장경 민족 氣 결정체"

'하늘이여 땅이여' 작가 김진명씨

대장경 주조과정 법력과 의미 등 구체적 서술 소설통한 포교 일조



지난 2월 초판을 낸 이후 불과 4개월동안 50만부라는 경이적 판매부수를 올리며 소설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하늘이여 땅이여'(全2권 해냄 刊). 무려 5백만부가 팔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전3권)의 작가 김진명씨(41)의 또다른 히트작 '하늘이여 땅이여'에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이 소설 구성상 중요 요소로 등장해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컴퓨터천재들과 컴퓨터해킹, 증권, 자본과 정보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금융음모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치밀한 구성으로 흥미를 끄는 이 책에서 팔만대장경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대표이면서 나라를 지켜오고 있는 신비한 힘의 결정체로 나온다. 작가 김진명씨는 어떻게 팔만대장경에 주목하게 되었을까.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고조선 이후 가장 큰 역사가 이뤄졌던 기(氣)의 결정체입니다. 한반도 사상 최초로 위로는 임금부터 스님, 법사, 관리,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모두 일편단심으로 국력을 모아 16년동안 주조작업을 벌였지요. 지배층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던 세상의 어떠한 대 역사보다 그 뜻이 종교적이고 순수해 그 힘은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힘으로 몽고의 침입을 물리쳤지요. '힘'이라 하면 물리적인 힘만 생각하는데 생각의 힘, 기(氣)의 힘이란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대단하고 꾸준한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이러한 민족사적으로 크게 뭉쳤던 무형의 기가 들어가 있어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 김씨는 소설의 '천년의 법력' '토우와 팔만대장경' 등에서 팔만대장경의 주조과정과 그 법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때 어떻게 보존이 되었나, 팔만대장경이란 무엇인가 등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어 소설을 통한 불교포교를 톡톡히 하고 있는 셈.

'하늘이여…'에는 경판중 몇개가 일제때 도난당하고 가판(假板)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일까.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로서도 무척 궁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소설에도 나와있지만 1937년 해인사주지 장제월스님이 미나미총독에게 경관의 도난 사실을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민족대백과사전〉에는 대장경판의 총 수가 8만1천258매로 되어있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1968년 문공부의 의뢰로 경북대 서수생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만1천240매로 나와있어 18개의 차이가 나지요."

김진명씨는 불교계가 앞장서서 팔만대장경판의 정확한 숫자를 새롭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놓을 때마다 만루홈런을 치는 그의 다음번 책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군'. 신화로만 여겨오는 단군을 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김진명씨는 "오늘날 경제위기를 비롯 우리 사회 제반 위기의 본질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의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근세 서구 종교와 물질문명에 의해 왜곡되고 비틀린 우리 역사에서 불교가 할일이 많다"고 불교계에 기대를 표한다.

"세계의 어느 종교보다 순수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종교인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그리고 자비심으로써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이홍기씨 선화집 '침묵속으로'

일지 이홍기씨가 대원정사에서 펴낸 선화집 〈침묵속으로〉는 '틀에박힌 일상'을 부정하는 정신이 가득하다. '법상' '몽중몽(夢中夢)' '백팔번뇌' 등 47점의 선화들은 평화나 안심보다는 그 이전의 번뇌와 고통, 산다는 것에 대한 실존적 고뇌가 너무도 섬짓하게 그려져 있다. 그 일그러진 모습에서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부정과 고뇌에 찬 몸부림이 없다면 평화와 자유와 긍정은 없다는 것이 그린 이의 생각이다.



◇달마도.

이씨는 물감대신 황토흙을 사용함으로써 운필이 인위적이고 매끄럽기보다 거친 듯한 자연스럼움이 배어난다. 또 종이 대신에 러닝셔츠나 보자기같은 천을 이용한 것도 이채롭다.

'경주문화엑스포' 1일부터 입장권 예매

불교문화행사 볼거리 풍성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간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새 천년의 미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문화엑스포 입장권 예매가 1일부터 시작됐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다양한 불교관련 문화행사들도 마련돼 있다. 중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국제멀티미디어아트쇼=백남준 박현기 씨등 11명의 국내외 유명작가 참가.

▶세계문명관=이집트 인더스 황하 마야 등 6개 문명관 마련, 각 유물 전시.

▶전통문화 전시=석굴암, 고구려 고분벽화 등과 일본 시마네현, 중국 하남성 등 전통문화를 교류하는 기획전시.

▶유네스코사진전=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경주남산사진전=경주 남산의 유적유물 사진 50여점 전시

▶경주문화유적 관화전=경주 일대의 문화유적을 소재로 한 관화전시

▶오페라 '원효'=원효대사의 삶과 사상을 오페라로 소개

▶국제학술회의, 세계민속공연 등 개최.

문화 단신

태평무 전수회관 개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기능보유자 강선영씨(73)가 무용인생 60년을 맞아 고향인 경기 안성시 사곡동에 태평무 전수회관을 마련 23일 개관식을 가졌다.

사재 8억여원을 들인 이 태평무 전수회관은 대지 1천7백여평에 건평 410평규모의 2층 건물이다.

日 소장 수월관음도 도난

일본 오사카 에이후쿠지(睿福寺)가 소장해 온 국보급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도난당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문화청은 19일 "에이후쿠지가 수월관음도 등 고미술품 20여점을 14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수월관음도는 색채가 화려하고 문양의 구성이 치밀해 전형적 고려 수월관음의 화사함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4세기 중반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심시심 〈134〉

몸은 고목처럼

小亭近水月來先 작은 정자 물에 가까와 달이 먼저 오고 (소정근수월래선)
萬象虛心似翠煙 온갖 물상 마음 비우면 파란 연기 같애 (만상허심사취연)
移席逡巡無下土 자리 옮겨 요리조리 디딜 땅이 없고 (이석준순무하토)
擡頭咫尺半青天 머리 들면 지척에 푸른 하늘 닿다 (대두지척반청천)
柳梳風陌藍凝綠 버들은 바람 언덕 빗질하여 남색에 녹색 엉기고 (류소풍맥람응록)
花擘春滴膩細妍 꽃은 봄물결 나누어 섬세한 살결이 곱다 (화벽춘의이세연)
中有清談黃老士 이 중에 청담을 즐기는 황로의 선비 있어 (중유청담황로사)
身如枯木骨如仙 몸은 마른 나무이고 뼈대는 신선일세. (신여고목골여선)

월하대사의 '월선정(月先亭)'이라 제한 시이다. 정자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달이 먼저 오른다는 정자이니, 강가에 다달아 있음을 연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정자가 물에 가까이 있어서 달이 먼저 온다고 시상을 떠올려 시작하고 있다. 물에 가까운 정자에 달이 오른다 함은 물에 비친 달을 두고 한 말이니, 물빛은 가라앉아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니 이 강의 마음은 비어 있는 것이다. 물결이 일지 않는 강은 파란 아지랑이가 깔려 있듯 아스라하다. 이 시로 보아서는 허심의 주체가 강이어야 하나, 작자는 자신의 마음을 유추적으로 쓴 것이 분명하다. 나보다 먼저 오른 달과 오늘은 친구가 된 것이다.

흥이 돌아 일어나 춤이라도 출 자세가 되나, 물에 다가선 정자이니 아래로 내리 밟을 땅이 없다. 내릴 수 없는 곳이니 올리기라도 하려고 고개를 들면 바로 하늘에 닿는다. 이것이 이 강정의 공간이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이지만, 바로 아래가 땅이요 위가 하늘이라면 오히려 이 공간은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으니 무변 광대의 더없이 넓은 공간이다.

버들은 바람에 흔들려 저 언덕을 빗질하고 있다. 버들가지 하나하나가 빗살이다. 이 빗살이 푸른 언덕을 가다듬으니 물빛의 남색에 산빛 버들빛의 녹색을 덧칠하고 있는 것이다. 꽃은 봄 물결을 나누어 가지니 그 살결이 더욱 섬세해진다. 이 두 구의 대칭은 봄날의 자연을 미화시키는 절정이다.

이런 풍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에 청담을 즐길 수 있는 주인이 있다. 이가 바로 노장의 현묘한 고담을 즐길 수 있는 선비이니, 그 고고한 기상은 천년의 연륜을 자랑할 고목이요, 신선의 풍골을 지닌 선객이요 도사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순천 문화유적지도 나왔다

문화재연구소, 보물등 유적 797건 소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의 첫해 성과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순천시-편을 발간했다.

순천시의 문화유적 위치와 범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책에는 국보(3점)·보물(9점)·사적(1점)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 시도지정문화재(38점) 및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 등 총 7백97건의 문화유적이 소개돼 있다. 이중 5백17개 유적의 위치와 범위가 1/10,000 지형도에 표시됐고, 4백79매의 유적사진이 실렸으며, 현상변경된 2백80개 유적은 부록으로 실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불교문화재도 송광사 등 사찰(절터) 1백26건, 금둔사지 석불비상 등 불상 6건, 동화사 3층석탑 등 탑파 5건, 선암사 북부도 등 부도 67건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지도에 표시돼 있는 유적의 명칭, 사진, 소재지, 시대, 종류, 내용, 지도색인, 지정사항 등 제반 설명을 뒷부분에 담아 문화유적총람으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다.

한편 문화재연구소는 제2차년도 사업으로 공단과 택지, 온천개발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는 충남 천안시를 선정, 그 일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月 31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 원 불 교 대 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최 봉 수(동국대교수) ·주 명 철(동국대교수) ·정 병 조(동국대교수) ·오 국 근(동국대교수)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차 차 석(동국대교수) ·김 영 태(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 희 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 탄 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 기 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 열 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등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박사가 쓴 '불교와 교육'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음악은 90점, 체육은 80점. 한 학생이 받아든 점수의 평균은 85점이다. 85점짜리 학생, 이런 계산으로 과연 그 학생을 올바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학교교육은 이런 병폐를 안고 온 지 이미 오래다. 개성의 획일화, 점수화, 서열화로 이미 우리 교육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을 크게 저해시켜 왔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교육의 미래 불교서 찾자"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깔려 있는 인간 존중 사상이 결국 개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기 성취의욕을 스스로 발현해 낼 수 있는 미래형 교육관임을 보여준다.

교육개혁위원장을 지냈고, 교육에 평생을 바쳐 온 김종서 박사(78,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이 책은 평생을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애써온 김박사의 교육관과 불교의 교육이념이 만나 빚어낸 미래 교육의 지침서이다. 현대불교신문 97년 10월 1일자(제144호)부터 98년 4월 29일자(제172호)까지 '불교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어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김종서 박사

학습동기 유발 · 인성교육 등 불교와 접목 해법 제시

김박사는 이 책의 두번째 이야기 '대기설법, 눈높이 교육의 맨처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처님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었던 가르침을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한다.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스승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삼초이목(三草二木)'의 비유를 보자. 많은 수목의 큰 것, 작은 것은 그 성질에 따라 저마다 받아들이는 물기가 달라서 동일한 구름에 의하여 비를 맞지만 각각의 종류, 성질에 따라 적합하게 자랄 수가 있다.' 오늘의 교육은 '각 종류의 성질에 적합하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라도록 강요하고 있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이 오늘날 교육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삼매, 자아 실현의 최고 형태'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키우자' 등 스물 일곱 가지 이야기 역시 학습동기 유발, 교육환경, 인성교육, 청소년 문제 등 교육과 관련한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불교의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일체유심조를 기본 원리로 한 '자기 충족'과 성취동기와 자아실현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절대적 가치야 말로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념임을 증명해 보인다.

또한 정연한 이론을 펴는 중에도 경험을 토대로 한 문제중심의 접근방식과 평이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문장들은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롭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마음에 드는 제목 어느 것이나 골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김종서 박사는 책 서문에서 "부처님은 이미 2천5백년전 오늘날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다"며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책의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종서 박사는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발간을 기념해 6월30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21세기에 대응하는 불교 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성타스님외 17명이 쓴 '인물중국선종사 下'

명·청대 선사와 만남



5종가풍의 종장들로부터 명대와 청대의 선종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들이 한국선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조명한 〈인물중국선종사 下〉(불교영상회보사 刊)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94년 보리달마이후 현사사비까지 선종인물의 법맥을 중심으로 32인의 사상을 정리한 〈인물중국선종사 上〉에 이어 중국 선종사의 대표적 선승들을 망라했다. 임제, 조동, 운문, 위앙, 법안 등 5가7종의 종장들에서부터 명대의 마지막 선승 우익자육까지 21명 선사들의 삶을 재구성했다. 각각의 필진들은 이들 선사들이 남긴 공안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상과 생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선의 원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권에는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 이상현(민족문화추진회 국역위원)씨 등 17명이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상·하권을 합쳐 국내 학자와 학승 46명이 동원됐다.

한국선불교의 연원이 5가7종 선승들의 법맥에서 비롯됐듯이 그 영향은 실로 크다. 이중 임제의 법맥은 가장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한국선불교에 그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다. 또 신라 구산선문의 개창자들이 한결같이 중국 선사들로부터 심인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중국불교의 영향을 짐작할 만하다. 조주선사의 '끽다거(차나 마시거라)'나 당나라 운문선사의 '산은 산, 물은 물' 임제선사의 '무위진인' 등의 공안은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 승가의 어제와 오늘

조계종 교육원 '비구니 승가' 펴내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율장 조문이 어떤 경로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핀 책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이 펴낸 〈비구니 승가〉는 스리랑카 출신 학자 모한 위자야라트나의 불어판 연구서 〈비구니 승가의 탄생과 변화〉를 번역한 책. 초기 비구니 승가의 탄생과정에서부터 비구니 승가대중의 출가배경과 당시 사회적 관습, 비구니 득도에 따른 자격과 조건, 비구니 승가에 있어서 비구의 역할 등을 서술하면서 은사 비구니와 상좌 비구니와의 관계와 예법, 해탈의 경지와 그 과정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인도의 각 부파 불교의 여성들은 기원전 3세기에 스리랑카로 건너가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고 이곳 여성들에게 율장과 경장을 가르쳤으며, 비구니 승가는 수세기 동안 아주 빠르게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왕궁의 여성들이 승가에 들어오다보니 비구니 승가는 자연히 왕들에 의해 보호를 받았으며, 10세기까지 스리랑카에 비구니 승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여러 비문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그러나 초기에 제정된 팔경계에 따라 비구니 승가가 비구 승가에 종속되어야만 했던 이유로 인해 비구니 승가는 각 부파로 분리된 비구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비구들의 비구니 승가를 무시하는 태도도 비구니 승가 몰락의 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구니 승가에도 비구 승가와 마찬가지로 율장이 있었다. 율장에서는 어떤 조문을 제정하기 전에 먼저, 그 제정에 필요했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비구니 율장의 원전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는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각 조문에는 어떤 종류의 벌칙이 내려질 것인지와 그렇지 않은 상황이 기술돼 있다.

한명우 기자



■ '한국불교미술' '한국미술사 101장면'

한국미술 5천년 시간여행

최근 나란히 출간된 〈한국불교미술〉(문예출판사 刊)과 〈한국미술사 101장면〉(가람기획 刊)은 한국미술의 정수를 전문가가 쉽게 설명,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한국미술사학계의 원로 진홍섭교수(연세대 용재석좌)의 역저 〈한국불교미술〉은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던 불교미술품들을 시대별·분야별로 나눠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목탑을 번안한 석탑건립으로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졌던 탑파, 불교도상을 중시하면서도 한국인에게 풍기는 정감을 강조했던 불상, 정상에 음릉을 달고 종신에 넓은 공간을 남기며 무한한 함축을 내포하고 있는 범종 등 우리 불교미술품들을 통해 한국만의 미적감각과 예술혼을 맘껏 자랑하고 있다.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임두빈씨(한국미학미술사연구소 대표)의 〈한국미술사 101장면〉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에서 삼국·고려시대의 불교미술을 거쳐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1백1점의 주요작품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임씨가 직접 그린 문화현장의 생생한 풍경그림 등 2백20여점의 사진·그림자료는 한국미술사 여행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왜 그 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미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한국미술사 서술이 조선시대에 그친 점에서 벗어나 근·현대미술에까지 서술폭을 넓히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불교경전의 이해 | 이재창 지음

아함경·금강경 등 47경전 '한권에'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인 이재창 교수가 펴낸 〈불교 경전의 이해〉는 종류와 분량이 방대한 경전을 이해하기 쉽게 내용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제1편 총론에서는 경전의 성립과정부터 경전의 구성과 조직, 경전의 어계(語系), 한역경전, 고려대장경 등 '불교경전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모든 의문을 풀어내고 있다. 제2편 각론에서는 아함경 법구경 등 원시경전 18종류와 대반야경, 금강경 등 대승경전 29종류를 소개했다. 각 경전에 대해서는 개요와 함께 역본, 주석서 등도 서술해 책을 보다가 어떤 경 이름이 나왔을 때, 그 경전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에 충분하다. 〈경학사, 9천원〉

화제의 책

산거일지 | 김달진 지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덕목과 가치



"나는 오늘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머리를 깎아 버렸다.… 그리고 장삼을 입고 합장해 보았다. 겸손과 하심, 얼마나 평안하고 화평한 심경인가."

〈산거일지〉는 1989년 세상을 떠난 뛰어난 불교학자이자 문학가인 월하 김달진 선생이 남긴 유고를 수습한 산문집. 인생의 참된 의미와 선(禪)적 이상, 그리고 법문에 대한 깊은 통찰과 탁월한 인식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1부 '산거일기'는 한때의 입산수도생활의 감회 등 일상으로부터 평범하지만 심오한 삶의 단상들을 길어 올린다. 2부 '삶을 위한 명상'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덕목과 가치들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이 단문으로 살아 꿈틀거린다. 〈문학동네,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3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5	상자와 법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6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자현	민 족 사
7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8	밀교강좌	혜 정	출판시대
9	불교입문	조계종현집부	조계종출판사
10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5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 금 가 : ₩ 130,000

보급처: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플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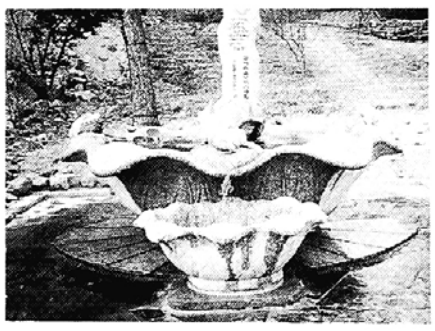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영역된 한국불교 텍스트가 세계 불교학계에서 읽혀지기 위해서는 고급영문의 사용은 물론 학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한 완벽한 번역으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한국학'을 주제로 22일 정문연 대강당에서 제10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불교 분과에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는 '한국불교 텍스트의 영역(英譯)에서의 제문제와 도전-원효를 중심으로'에서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일지라도 '읽히지 않는' 영문으로 번역됐다면 도서관의 서가(書架)를 채우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 텍스트 읽히는 영역 '시급'

정신문화硏 국제학술회의서 제기

버스웰 교수는 "세계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가 '평가 절하'된 것은 가용(價用)한 정보의 제공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번역과정에서 고급 영문을 구사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국 불교학자들이 영어 번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불교 연구자들이 불교 텍스트 영역에 있어 갖춰야 할 기본 시각으로 '고립적 시각의 탈피'를 강조한 버스웰 교수는 "만약 '한국적' 특징만을 강조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과 동아시아 전통들 사이의 당연하고 의미있는 상승작용과 연관성 중 많은 점들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효 등 한국불교 저술가들의 사상을 한국불교 내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동아시아 사상사 속에서 파악해야만 올바른 번역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또 버스웰 교수는 불교 텍스트 영역에 있어 △서론을 통한 텍스트의 의의·구조·문체·기여 등의 개관 상술 △상세한 주해와 경·론·소 인용의 의도를 밝히는 해석학적 구조 등 '학문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논평에서 윤원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가용한 한국불교의 정보가 빈약하다는 것은 한국불교에 관한 자료 번역의 빈약성을 의기하기도 하지만 번역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가용'한 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보를 사용할 목적에 걸맞는 질적 수준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번역의 '공동작업'을 제안한 윤교수는 "불교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다언어(多言語)를 구사할 수 있는 대가(大家) 한 사람에 의한 번역보다는 하나의 텍스트의 완벽한 번역을 위하여 여러 학자가 협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불교의 학적(學的) 정초작업을 위한 몇가지 제언'으로 논평에 나선 이종철 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서구 불교학자들의 충언(忠言) 중 한국불교 학계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폐쇄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적"이라며 "한국불교의 '찬란한 고립'의 허구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한국만의 고유한 '한국적' 불교를 찾으려고 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버스웰 교수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교수는 한국불교 학계 일각에서 '불교학이 아닌 종학(宗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소아병적인 연구경향이 한국불교사학계의 착실한 연구성과에는 걸맞지 않음에도 지배적 기류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문헌학적인 기초작업에 좀 더 비중을 두어 동아시아 문화권에 흩어진 한국불교 관계 문헌을 수습, 전체 원문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22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한국적 특징만 강조 폐쇄적 연구법 탈피

여러학자 협력 통해 영역 질적 수준 향상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인터넷 뉴스레터

300여 불교웹사이트 소식지 발간

법어·법회안내 등 볼거리 다양

뉴스레터를 읽으면 세계의 불교계 동향을 알 수 있다. 뉴스레터란 단체, 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불교 관련 웹사이트 중 1%(약 300여개)에 이르는 사이트가 정기적인 전자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다. 격월간·계간 등이 발간되고 있는 이 소식지에는 해당 지역의 법회, 신간, 법어, 뉴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식지 열람은 해당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메일링리스트는 사이트 정보를 열람한 후, 방문록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록하면 된다.

△부다야나센터 뉴스레터(http://www.buddhayana.nl/bq-apr98.html)는 네덜란드 불교계에서 발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소식지는 '국내·외 뉴스' '법어' '사사나(sasana·가르침)' 등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4월호 주요 소식 중에는 유럽의 불교학계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윈프리트 크루켄버그박사(독일)가 5월2일 타계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크루켄버그박사는 〈자연과학과 부처의 가르침〉(1989년 刊) 등 과학·종교계의 교류 확대에 주력해온 인물이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이 찍은 위성사진을 관독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북쪽 숲 속에서 앙코르와트와 규모가 비슷하고 1150여년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사원 유적지를 새롭게 발견한 소식도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과목카 세라스님(버마)이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불교신자의 도리' 등을 주제로 한 법문도 읽을 수 있다. 또 일본불교사에 대한 소고를 열람할 수 있다. 부다야나센터 출판사의 98년도 신간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호주불교학회뉴스레터(http://www.iinet.net.au/~ansonb/bswa/news0598/news0598.html)는 호주 불교계를 요목조목 알려주는 소식지. 최근호(5월)에는 '근본 명상' '계율-수계의 의미' '정(定)의 지혜' 등의 교리 강좌와 다채로운 호주 승단 소식을 담았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호주 불교계는 현재 '웨싹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웨싹(vesakha)'이란 팔리어로 4~5월.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출가·성도·열반일이 있는 이 기간동안 웨싹축제를 열고 부처님의 공덕을 기린다.

△필라델피아불교도연합소식지(http://www.liberynet.org/buddhist/newsletter.html)는 필라델피아 불교계의 법회·신간·모임 등의 소식을 담고 있다. 또 프럼트리젠도, 삼발라센터 등 필라델피아에서 대표적인 선원 10곳의 소개도 싣고 있다. 최근 발간된 6월호에는 바티칸 교황청이 지난 5월3일 필라델피아불교도연합 창립기념일에 보낸 축전도 게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알부퀄리퀴선원 소식지(http://www.viva.com/azc/articles.html)는 미국에서 일본불교계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알려주고, △지혜의 선원 소식지(http://www.wisdom.org/newsletters.html)는 영국 불자들이 쓴 선시(禪詩)와 신행수기 등을 읽어 볼수 있는 뉴스레터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한국근대불교 시작 1876년 개항부터"

김경집씨 주장



한국불교사의 시대구분을 조선 왕조사(王朝史)에 따른 종속적인 양상을 벗어나 불교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적인 특징으로 구분한 근대불교연구서가 처음 나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서원에서 출판된 김경집씨(동국대 강사)의 〈근대불교사연구〉가 그 것.

〈근대불교사연구〉는 기존의 근대불교사 연구서가 근대불교의 시작을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해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1876년 개항부터를 근대불교의 시작으로 보고, 일제강점기까지의 근대불교 동향을 서술하고 있다.

제1장 근대불교의 기점과 전개에 이은 제2장 허금전(解禁前) 신앙경향과 불교인의 활동에서는 △거사들의 불교신앙 △이동인의 개화활동을 밝히고 있다. 또 '도성출입금지의 해제와 추이' '해금후 승단의 신행결사' '개혁사상의 대두와 계승' 등 근대불교 태동기의 역동성을 펼쳐 보이고 있다.

김씨는 "근대불교사연구에 소외돼 있는 1895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은 불교계가 개화의 시대를 맞아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시기"라며 "이 시기에 불교계의 역동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 도입된 서양 문물과 사상 등 변화된 사회여건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보조지눌의 '진심직설' 본질과 실존의 합일"

이창구씨 논문발표

보조지눌(1158~1210)의 〈진심직설(眞心直說)〉에 나타난 진심과 오수(悟修)의 구조를 "수행의 성숙도에 대한 철저한 자기점검(眞心驗功)으로 본질과 실존의 완전합(完全合)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힌 논문이 발표됐다.

27일 보조사상연구회(회장 현호스님) 월례발표회에서 이창구씨(전북대 철학과 강사)는 '〈진심직설〉을 통해서 본 진심과 오수의 구조'를 통해 "〈진심직설〉에서는 돈오나 점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선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과 실존의 괴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며 "돈오와 점수를 통해 본질과 실존이 완전합일된 경지가 수행의 완성이자 성불의 경지임을 밝히는 것이 그 기본 구조"라고 밝혔다.

〈진심직설〉에서 처음 강조되는 진심의 바른믿음(眞心正信)은 본질과 실존이 괴리를 타파하고 합일된 돈오로 이해하며, 바른믿음 이후에 강조되는 수행의 정행(正行)과 조행(助行)은 점수로 이해된다.

김정은 기자

태국 방콕에 백만명수용 사원건립

타이어리 WFBY회장 방한 소식전해

'불교의 나라' 태국에 1백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원이 건립되고 있다.

제17차 전국불교 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궬럽 타이어리 회장은 "태국정부가 현재 방콕 시내에 명상수련을 위한 대규모 담마가야 사찰을 건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마가야 사찰은 240여만평 규모의 대지에 지상 2층 건물로 세워지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백만명의 불자들이 동시에 명상할 수 있는 중앙명상센터를 비롯, 각층마다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17차 불청대회에 참가한 타이어리 회장이 태국정부의 거대불사를 전했다.

오는 99년 완공될 담마가야 사찰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명상수련반을 운영하고 매달 첫째 일요일에는 이 사찰의 방장인 룸파 담마다에 스님의 명상특강반을 개설, 운영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종욱 기자

국제소식

달라이라마 "단식투쟁은 반 불교적"

티벳 승왕 달라이 라마가 20일 핀란드의 국영방송에 출연해 "단식투쟁은 죽음의 길이고 반(反)불교적"이라며 현재 미국 워싱톤과 인도 달람살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티벳승려의 단식투쟁에 우려를 나타냈다.

2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클레스 엔더슨 문화장관의 후원으로 마련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지난 40여년동안 10만여명의 티벳 망명자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왔던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티벳문화와 종교를 지켜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 이후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임시의회를 만들어 2년안에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선거에 의해 주정부가 수립되면 나는 승려로서 수행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 양택풍수측면: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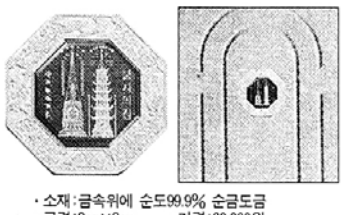
◎ 불자님들께는
본 책지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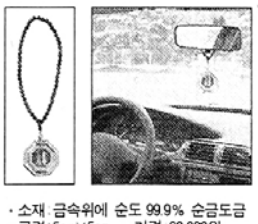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 8cm×8cm ·가격 : 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 5cm×5cm ·가격 :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떼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괘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팔괘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탑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니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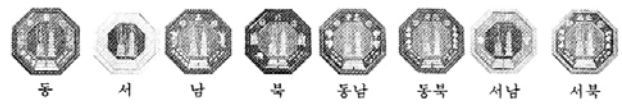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56

세존의 채찍

*어느 외도(外道)가 물었다. "말있음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습니다. 말없음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습니다." 세존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존의 대자대비가 나의 어지러운 구름을 헤쳐 깨달음에 들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고 떠났다. 아난이 부처에게 물었다. "외도가 무엇을 증험했기에 저리 찬탄하며 가는 것입니까." 세존이 말했다.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법이다."

*나 혜개가 말한다. 아난은 불제자인데 도리어 외도의 견해만 못하구나. 자 어디, 말해 보라. 외도와 불제자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송하여 가로되, "갈날 위를 걷고, 얼음의 모서리를 달린다. 계단이나 사다리를 딛지 않고, 아득한 낭떠러지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



그림 · 이준석

外道問佛:

世尊, 因外道問, 不問有言, 不問無言, 世尊據座. 外道贊歎云, 世尊大慈大悲, 開我迷雲, 令我得入. 乃具禮而去. 阿難尋問佛, 外道有何所證, 贊歎而去. 世尊云, 如世良馬, 見鞭影而行. 無門曰, 阿難乃佛弟子, 宛不如外道見解. 且道, 外道與佛弟子, 相去多少. 頌曰, 劍刃上海氷稜上走不涉階梯懸崖撒手.

선은 중국에서 피어난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세적 입장에서 변호에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난이 세존을 모시고 있던 어느날, 외도가 찾아와 세존에게 물었다. 외도란 지금은 불륜이나 혼외정사를 가리키는 혼탁한 말이 되어 버렸지만 당대의 의미는 '불교와는 다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는 당연히 불교가 성립된 이후의 용어이다. 처음 등장하는 외도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세존께서 처음 굴린 그 법바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다. 고행을 떠난 세존을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이윽고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는 그 고요한 기품과 확신에 찬 거조에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그 사람들.

이번 외도는 그들과는 좀 달라 보인다. "말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물음의 전부이다. 신기한 화법이다. 그럼 무엇을 묻겠다는 거냐는 의아한 얼굴에, 그걸로 끝, 더 이상 아무 말도 없다. 외도는 지금 물음이 아닌 물음을 던지고 있다. "언어도 침묵도 통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줄 수 있는가"를.

그동안 이런 딜레마를 자주 보아왔다. 가령, 덕산은 몽둥이를 흔들면서 "뭐든지 묻겠다고 입을 벌리는 놈이 있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머나먼 신라에서 유학온 수행자

"낭떠러지서 잡은 손 놓아라"

언어도 침묵도 통하지 않고 진리 드러 낼 수 있나

몰두하기도 했다. 자신은 이단이나 별종이 아니라 창시자의 가르침 바로 거기에 닿아있다는 것을, 초기교단을 조직하고 교리를 체계화한 사리불을 제치고 두타제일이라는 가섭을 내세워 염화미소의 전설을 만들어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말에 섭섭해할 것은 없다. 진정 가치있는 것은 육안을 비켜가는 법이고, 진실은 역사가들의 기술 너머에 있는 것. 감각이 허구이고, 제상(諸相)이 비상(非相)이라면 사실과 상상 사이는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 이중적 의미에서 그렇다. 우리는 소설을 허구로, 시를 상상력의 비실제적 공간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한 편의 시와 소설이 주는 감동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놓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한편 외계를 의심할 바 없는 실재로 확인시키는 감각과, 그를 표상하는 사유와 언어는 그렇지만 궁극에 있어 비실재적인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집착력을 줄여가는 훈련을 해 보아야 한다. 그 도정에서 언제쯤 〈금강경〉의 비의적 언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다. "수부티야, 존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런 까닭에 존재라 말한다(須菩提, 所言一切法者, 卽非一切法, 是故名一切法)"

지금의 이야기는 그 꿈인 듯 생시인 듯한 하나가 걸려들었다. 흉흉한 엄포에 움찔하여 국으로 가만히 있는 판인데 덕산이 냅다 몽둥이질을 해댄 것이다. "아니, 가만 있는데 왜 때립니까" 항의하자, "배를 타고 떠나고 나면 패줄 수가 없을게 아니냐"고 응수했다. 선사들은 이런 저런 방편설정을 통해 제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 병속의 새를 꺼내보라든가, 향엄처럼 나뭇가지를 물고 대답을 해 보라던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도망갈 길은 없다. 언어도 침묵도 허여되지 않는 칠통 속에서 수행자는 번민한다. 답답하고 후덥지근한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누구는 그저 앉아 있어 보라 하고(只管打坐), 누구는 화두를 성성(惺惺)하게 잡고 있으라 권한다. 노리는 효과는 같다. 집중!할 것.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계음이 명상을 방해하고 세속의 이런저런 잡사가 정신을 갉아먹는 말세(末世)를 살고 있다. 아무래도 현세에서는 자신의 본래면목과 대면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금생(今生)은 접고 다음 생의 윤회를 기다려 볼까나. 그러다 축생이나 아귀의 몸을 받는다면 만사휴의(萬事休矣). 지금 여기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 당지(當知)하라, 삼계(三界)가 화택(火宅)이고 생사(生死)는 화급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일터는 수행처…마음 챙기며 작업"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6



냉장고를 고치는 수선공은 모든 감각과 생각을 집중해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고 고친다.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그것과 똑같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수행과 동일하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찾는 그것,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것은 햇살이 비치면 법복을 갑고
달빛이 비치면 선(禪)을 노래하네.
산 속의 생활, 벗들에게 말할 일 없지만
벗들이여! 그대들이 삶의 진실을 원한다면
'욕망좇는 일' 만큼은 그만 놓게나.

"수선공 · 의사 · 간호사의 일 자기 다스리는 수행과 같아 집착 버리고 의무 다하라"

여기에는 비폭력 운동을 전개한 간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불교 경제론〉을 남긴 슈마허박사 등의 삶에 녹아든, 정명(正命)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철학들이 배어있다.

그들의 삶은 유 · 무정물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필요하다는 욕망'만을 가지고 유 · 무정물을 대하지 않았다. "내가 돌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고있는 이 세상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 유 · 무정물들과 연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명의 미덕 중에는 봉사정신도 있다. 냉장고를 고치는 수선공이 부처라는 말은 수선공들이 일터에서 고객들의 혼란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잡아주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타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세상과, 더욱 긴밀한 친교를 맺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찾는 길에는 사심없는(無慾) 행동의 길이 있다.

……

일터에서 불법을 실천하라.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나 집착은 말라.
이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당신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성과를 바라고 행동한다면
삶은 그때부터 무자비한 것이 될 것이다.
현명한 지혜는 욕망과 집착없이 일하는 것이다.

〈바가바드기타〉의 이 싯구는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심없는 마음으로 일할 때 정명을 실천하는 것이며, 또 보다 많은 행복을 만들기에 노력하기 보다는 유 · 무정물들과 얼만큼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가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증육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정명 ②

아야 한다. '원칙과 되풀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눈으로 보는 예술가, 임상의, 정비사, 영업사원 등의 작업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원칙과 되풀이'에서 느끼는 권태로움을 이기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첫번째 단계는 이것들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일터에서 명상적인 삶이 가능한가" "작업하는 도중에 '마음챙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은 한단계 성장하고, 사찰 수행에서 얻어지는 깨달음과 동일한 비중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각을 얻을 수 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5

불교와 수학

60

카오스와 전체론

김 용 운

공중에 돌을 던지면 포물선 그리나 살아있는 새 던지면 카오스선 그려

요소 환원주의 요소간관계 설명못해 '일즉다 다즉일' 무한 전제한 전체론

근대과학의 방법론은 기본적인 요소들의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요소환원주의'의 입장이다. 모든 물질이 원자의 결합으로 유일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전형이다. 뉴턴은 거대한 행성 궤도를 태양과 행성과의 힘의 관계로 환원하여 계산했다. 이때의 요소는 태양과 행성이다. 수학도 이 수법이 이용되었다.

정수론의 기본 요소는 자기 자신과 1 이외의 약수를 갖지 않는 소수이다. 가령

2, 3, 5, 7, ……

과 같은 것이 소수이다. 한편 6의 약수는

1, 2, 3, 6

이며 소수가 아닌 합성수이다. 수학 가운데에서 특히 수의 성질을 다루는 정수론의 기본정리는 '모든 수는 소수의 곱으로(순서만 생각하지 않고) 유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인수분해의 원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1, 2, 3, …… n과 같은 자연수를 말한다. 즉 6은 2와 3,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시되며 다른 어떤 소수의 곱도 될 수 없다. 이 기본원리를 이용함으로써 수에 관한 여러 성질이 많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수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가령 '1, 2, 3, ……'과 같은 자연수 전체를 '합해서 만들어지는 수의 표현 방법은 무한히 많으며 요소환원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전체에는 그 요소에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질이 있으며 요소환원주의에 대립되는 전체론(全體論)이 요청되는 것이다.

불교에는 '一卽多 多卽一'의 철학이 있고 한편으로는 성철스님의 말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즉 있는 그대로, 전체를 분할하지 말고 보라)는 전체론적인 입장이 있다.

얼핏보면 과학과 불교는 모순된 체계처럼 보이며 불교는 때로는 신비주의로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一卽多 多卽一'의 '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한성이다. 무한을 전제로 하는 '一'이기에 '一'을 보는 일은 곧 전체를 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 '산은 산, 물은 물'로 보는 것과도 같다.

'一'과 '多'는 個(요소)와 전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소와 요소, 전체와 요소의 상관관계에서 저마다 요소, 전체의 성질이 정해진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부처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기본사상은 '一卽多 多卽一'이다.

제석천(帝釋天)의 궁전에 걸려 있는 장식용의 망에는 각 망의 눈 하나하나에 한 개의 보석이 들어 있다. 그 보석에는 다른 망의 눈에 붙어 있는 모든 보석의 영상이 비치고 있다. 또한 이들 낱낱의 영상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영상도 담겨 있다. 그것이 또한 다른 보석에 비치고, 또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고 중중무진의 영상이 다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곧 '一卽多 多卽一'의 세계이다.

불교의 대상은 인간이며, 불교적 과학관은 인간학이며 인간의 무한성을 전제로 한다. 자금 돌을 던지면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그것은 던질 때의 힘으로 지배되는 요소환원주의적인 사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작은 새를 던지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카오스적인 곡선을 그린다. 새의 의지에는 무한의 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한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대상에서 이들 각 요소가 다른 요소의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체의 움직임이 각 요소(부분)의 단순한 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각 요소간의 관계이며, 있는 현상을 해부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된 무기물들이다. 이와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명제가 진리로서 통한다.

이때 살아 숨쉬는 인간이 산과 물에 관련되면서 함께 정보와 가치를 나누는 것이다.

근대 과학의 요소환원주의는 주로 무기물을 다루는 물리학에서 출발했다면 카오스이론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에서 발생했다. 생물을 분석하는 일은 곧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해부임으로 요소환원주의로는 금방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 · 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 · 호골(虎骨) · 인삼 · 박하수오 · 적화수오 · 원방통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 · 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 · 당뇨병 · 소화불량 · 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호스피스 전문인
양성교육 안내

I AMITA HOSPICE 교육에 관하여…

어디에서?
충북, 청주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자원봉사센타 교육원

언제부터?
1998년 7월 2일 개강하여 7월 30일 종강식

준 비 물
소명함판사진 4장, 필기도구 꼭 지참

교 육 내 용
7월 2일부터 매주 수, 목, 오전 10시부터 교육

교 육 대 상 자
포교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스님, 법사님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 불자님들.

※ 교육후, 대한불교 조계종 자원봉사 단원증과 수료증 발급!!

문의 연락처 ☎ 0431) 54-2258/54-1457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
청주 · 청원 불자연합 교육센타
원장 여 현 정 합장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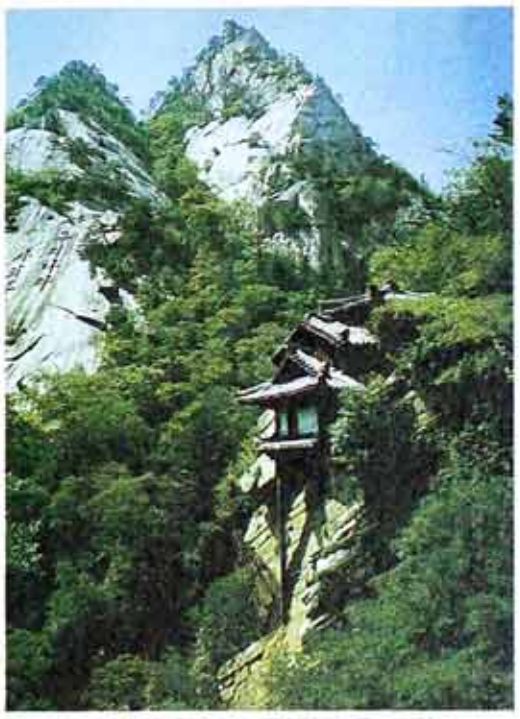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시방세계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02)732-1522
F. 02)737-0697


◇금강산에 남아있는 4개 사찰중 대표적 도량 표훈사 경내. 저 법당에서 북동포와 함께 예불을 모실 날이 기다려진다.


◇깎아지른 절벽에 제비집처럼 지어진 보덕암.


◇정양사 4층.


◇홀로 유점사 터를 지키고 있는 범종.

금강산 골마다 절 '아름다운 불국토'

"올가을 참배길 열려라"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쿠단 반세기 내내 불러 온 이 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온 나라가 금강산 유람이라는 '꿈 아닌 꿈'에 가슴 설레고 있다.

아, 금강산. 이미 산으로서의 이름보다는 분단의 아픔을 허무는 염원의 상징으로 각인된 그 절경이 누렁소의 발걸음 같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가 18일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1차로 신계사 복원 계획을 밝힌데 이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금강산 관광이 성큼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강산은 강원도 회양·통천·고성·인제 4개군에 걸쳐 있다. 기암과석과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수없이 솟아 있어 1만2천봉으로 일컬어진다. 최고봉인 비로봉(1638m)을 중심으로한 산역의 넓이가 5백30㎢에 이른다.

금강산은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라고 일컫듯이 골마다 사찰이 들어섰던 불교의 요람이었다. 오히려 산전체가 하나의 웅장한 화엄도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불교유적을 품고 많은 고승들을 배출해 냈다. 6·25 직전까지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등 4대 사찰을 중심으로 108개 사찰과 암자가 자리잡고 있었다. 또 탑·석등·마애불 등 많은 불교문화재가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 대부분이 불타 없어지고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만이 남아 있다. 그 밖에도 금강산 안내도에서는 칠보암, 불지암, 소광암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 삼불암, 묘길상 등 자애로운 마애불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표훈사는 백화암터를 지나 개울을 따라 올라 함영교(涵影橋)를 지나자마자 만나게 되는 금강산 4대 절 중의 하나이다. 표훈사는 신라 문무왕 10년 표훈조사가 창건한 고찰로, 6개의 전각과 1개의 누각을 비롯해 4~5동의 부속건물을 거느리고 있다. 표훈사는 일부가 소실된 채 남아있다.

표훈사 서쪽, 아름드리 전나무, 잣나무 등이 우거진 속으로 머루, 다래 덩굴이 엉키어 한낮에도 컴컴한 산길을 1km 정도 오르면 정남향 쪽으로 정양사에 이른다. 정양사 역시 표훈사와 더불어 1천3백여년전에 창건됐다. 현대의 건물은 조선 후기인 1791년에 고쳐지은 것이다. 뜰 북관 약사전은 들보를 쓰지 않은 팔각당인데, 지붕 꼭대기 화강암을 연꽃 모양으로 다듬어 올린 것이 이채롭다. 팔각당에는 한길이 넘는 석불약사가 안치돼 있고, 반야전에는 〈대반야경〉이 소장돼 있다. 그 앞 마당에는 그 구조의 정교함과 고색창연함으로 산중 명물로 꼽히는 신라말기의 작품인 2층 기단(基壇), 3층 석탑, 석등이 서 있다.

보덕암은 분설담 오른쪽 법기봉 중턱에 제비집처럼 걸려있는 3층의 암자다. 최초의 건물은 고구려시대(AD 627년)에 세워졌고, 지금의 것은 17C에 재건된 것이다.

20m가 넘는 아슬아슬한 절벽에 7.3m구리 기둥 하나로 받쳐져 있어 바람이 불거나 4~5명이 마루 바닥을 걸으면 절이 삐걱거리며 흔들리지만 3백년이 넘은 오늘까지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은 기이한 곳이다. 멀리, 만폭등 계곡 아래에서 바라보며 오르면, 보덕암은 무엇인가 사람을 안심시켜 주는 듯한 감을 주며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석가봉 기슭에 자리잡은 명연을 구경하고 장안사터에서 약 2km떨어진 삼불암교를 지나면 길 양쪽에 집채같은 바위 두개가 마주서 있다. 이것이 삼불암이다. 나옹화상의 원불(願佛)로서 조각되었는데, 오른쪽이 미륵불, 가운데가 석가불, 왼쪽이 아미타불이다. 그 밖에도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사선계에 위치하고 있는 묘길상은 귀의 길이만해도 1.5m에 이르고, 손의 길이가 3m, 발의 길이가 3m에 이르는 북한에서 제일 큰 마애불로 경탄의 함성을 자아내게 한다. 망군대 가는 길 오른쪽으로 십리에 걸쳐 기기묘묘한 울창이 헤아릴 수 없이 늘어서 있는 가운데 마치 큰 옥수수 이삭을 세워 놓은 듯한 다보탑 또한 대자연의 장중함과 위대함에 숙연하게 한다.



표훈사·보덕암·유점사터·장안사터 시공초월 무정설법하고 있다


◇남한불자들의 참배를 기다리듯 자애로운 미소로 서 있는 삼불암 마애부처님.

금강산 중 최대 사찰이었다는 유점사터에는 범종만 남아 있다. 장안사도 현재는 폐허가 되어 '장안사터'라 쓰인 푯말만이 외로이 해와 달을 반기고 있을 뿐이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마하연도 소실돼 부속건물인 칠성각과 부근 8각 정지인 연화대가 남아 있다.

수많은 고승들이 최고의 수행처로 꼽아 찾아들었던 금강산.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은 "계곡마다 스민 법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채 무정설법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금강산을 향하는 불심, 그것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뛰어 넘어 깨달음의 세상으로 달려가는 불자들의 기쁨이다. 올 가을, 무정설법의 법당으로 향하는 행로가 활짝 열려 마침내 남과북이 하나되는 환희의 날이 오길 기대한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신계사복원 어떻게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 성초, 김동현)는 신계사 복원불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신계사는 어떤 절인가, 불자들은 물론 금강산을 그리워 하는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원추진위원회는 오는 8~9월 대표단과 기술진을 현지에 파견하고 늦어도 내년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등 금강산 3개 사찰에 대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현 前 문화재연구소장, 김도현 前 문체부 차관, 단청 인간문화재 석정스님 등 2백5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가 신계사를 1차 복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건평 1백90평으로 규모가 작고 외금강 초입의 평지에 위치해 자재운반과 공사가 쉽기 때문이다.

8~9월 기술진 파견
내년 7월 공사착수
추진위 자금마련 '열심'

추진위는 "북한 측으로부터 신계사 설계도를 받았으며, 도편수를 현장에 체류시키면서 북한 노무자들을 동원해 건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불협은 신계사 복원을 위해 1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불자들의 성금과 관심있는 기업의 협찬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금강(회장 정상영)과 진일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계사 복원규모는 13개 건물 및 기타 부속시설로 모두 190.1평. 세부적으로는 최승전·수승전·대웅전·나한전·극락전·만세루·대문·어실각·칠성각·대향각·종각·3층석탑·석탑(2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신계사는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 법흥왕 때인 519년 보운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신계사는 6개의 전각과 1개의 누각을 비롯하여 기타 10여 동의 부속 건물이 있었고, 부근에만 5~6개의 말사를 거느렸다. 그러나 지금은 삼층석탑과 석축, 주춧돌 등만이 남아 있을 뿐이나 최근 북한이 유물박물관을 설치해 사지의 보존상태는 좋다고 한다.

도필선 기자


◇복원을 기다리는 신계사터.

금강산서 수행한 큰스님들 감회

올 가을부터 금강산을 직접 갈 수 있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뻐하는 이들은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만이 아니다.

금강산에서 출가 수행을 했던 많은 고승들 또한 마음의 고향, 금강산 방문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

■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금강산 마하연에서 3년간 용맹정진했던 때가 기억이 난다.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도 함께 커다란 마하연 선방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수십년을 먼 북녘땅을 바라만보다가 이제 드디어 갈 수 있게 된다니 그때 함께 용맹정진하던 수좌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다려진다.

■ **덕암스님**(태고총림 방장): 매년 6월이면 금강산 유점사가 있는 북녘땅쪽을 바라보며 통일의 그날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곤 했는데 너무나 기쁘다. 금강산에서 1년만 살아보면 온 천하의 변화무쌍한 진리를 한 눈에 볼수 있다는 은사 백산스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설산스님**(정토사 주지): 건봉사의 수좌들을 모아놓고, 결연한 의지로 독립을 외치던 만해스님의 강연이 지금도 뇌리에 역력히 남아있다. 금강산 건봉사에 올라 출가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보고 싶고, 그동안 내가 직접 지은 시 '금강산'을 노래로 만들어 울려퍼지게 하고 싶다.

■ **경운스님**(대각사 선덕):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해 마하연으로, 장안사로 두루 다니다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쫓겨 남한으로 내려 온 후 단 한 번도 내 고향 신계사를 잊어본 적이 없다. 신문기사에 나온 일제시대때 찍은 신계사 사진을 오려서 벽에 걸어 놓고, 이제 늙고 병들어 기력도 예전같지 않지만 신계사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 **월하스님**(통도사 방장), **석주스님**(칠보사조실), **지홍스님**(광양 운암사 조실), **고송스님**(과계사 조실), **화산스님**(대구 보광원 조실), **법룡스님**(동화사 비로암 조실), **법홍스님**(원효종 종정) 등 금강산에서 수행의 기초를 닦았던 노스님들은 늘 금강산 수행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시자스님들이 전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비룡스님


◇월하스님


◇덕암스님


◇설산스님


◇경운스님


◇화산스님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범지품(梵志品) ②

解微妙慧 해미묘혜
辯道不逗 변도불도
體行上義 체행상의
是謂梵志 시위범지

미묘한 지혜 깨달아 알고
도와 도 아닌 것 잘 가리고
으뜸의 이치 몸으로 행하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棄損家居 기손가거
無家之畏 무가지외
少求寡欲 소구과욕
是謂梵志 시위범지

제 집 생활 다 버리고
집 없는 두려움도 버리고
적게 구하고 욕심 적은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棄放活生 기방활생
無賊害心 무적해심
無所嫉惱 무소요뇌
是謂梵志 시위범지

생활 살림살이 다 버리고
세상 일과 인연을 끊고
말 중에 거친 말 없으며
팔정도를 살펴 아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所世惡法 소세악법
修短巨細 수단거세
無取無捨 무취무사
是謂梵志 시위범지

이 세상의 나쁜 법이면
길거나 짧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취하느니 버리느니 함도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今世行淨 금세행정
後世無穢 후세무예
無習無捨 무습무사
是謂梵志 시위범지

이승의 행이 깨끗하면
내생에 더러움 없으리니
물드느니 버리느니 함이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棄身無猗 기신무의
不誦異行 불송이행

다투지 않고 덤벼도 성내지 않으며 악이 찾아와도 항상 선으로 대하네

남을 해칠 생각 없고
번거롭고 괴로운 일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避爭不爭 피쟁부쟁
犯而不慍 범이불온
惡來善待 악래선대
是謂梵志 시위범지

다툼을 피하고 다투지 않고
덤빈다고 성내지 않으며
악이 찾아와도 선으로 대하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去婬怒癡 거음노치
憍慢諸惡 교만제악
如蛇脫皮 여사탈피
是謂梵志 시위범지

음욕·노여움·어리석음 없고
교만과 여러 나쁜 것 버리되
뱀이 껍질 벗듯이 한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斷絶世事 단절세사
口無추言 구무추언
八道審諦 팔도심체
是謂梵志 시위범지

行甘露滅 행감로멸
是謂梵志 시위범지

몸을 버려 의지함이 없고
외도의 일 입에 담지 않으며
감로법을 행해 적멸에 든 이
이를 범지라 한다

於罪與福 어죄여복
兩行永除 양행영제
無憂無塵 무우무진
是謂梵志 시위범지

죄나 복을 다 함께
영원히 없애어서
근심도 없고 번뇌도 없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心喜無垢 심희무구
如月盛滿 여월성만
誘毁已除 방훼이제
是謂梵志 시위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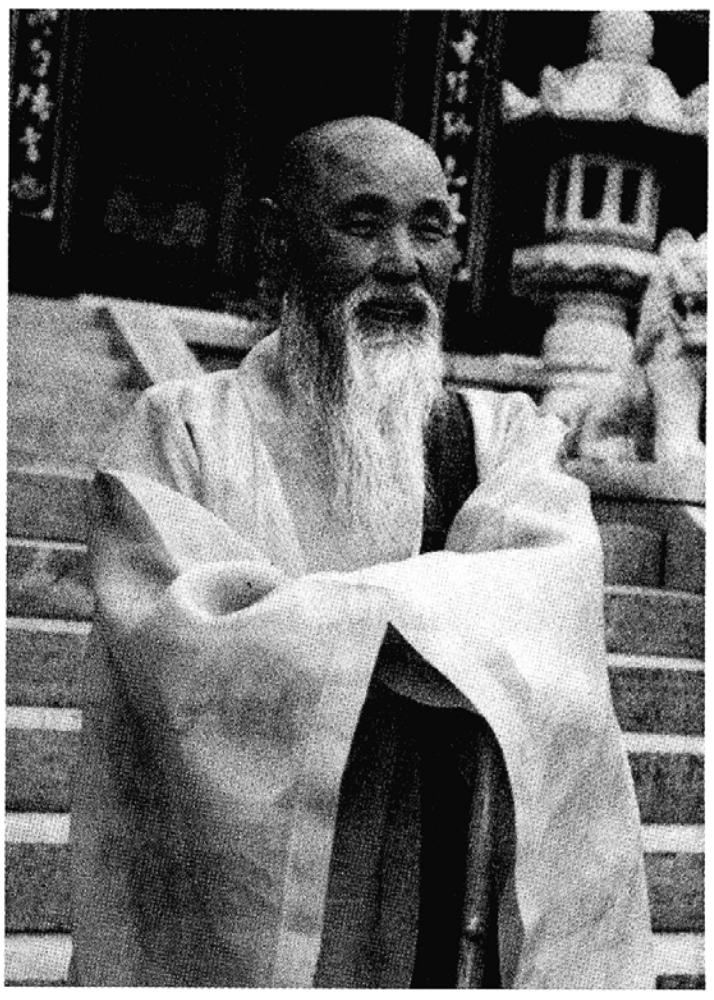
마음이 기쁘고 허물없음이
마치 보름달 같아서
비방과 헐뜯음을 이미 없앤 이
이를 범지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비워야 담을 수 있으니

화엄스님 〈동림사 조실〉



약력
- 1924년 일본 오오사카 生
- 1945년 일본 대판의학전문 졸
- 1948년 범어사에서 하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73년 범어사 주지
- 1974년 영구암 주지
- 現 김해 동림사에 주석

신라때는 시집갈 가(嫁), 승려 승(僧), 아이 아(兒)라고 해서 '가승아(嫁僧兒)'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시집보내기전에 큰스님 밑으로 보내 마음 비우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시집가면 그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싸 집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물이 꽉 찬 그릇에는 더 담을 것이 없지만 빈 그릇에는 무어든 담을 수가 있다는 이치지요.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시비분별하지 않고 집안을 흥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승아(慕僧兒)'라고 승려를 사모하는 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탓님이 도장을 찍어야 승려가 되었으니 아무나 승려가 될 수는 없었죠. 그러니 승려가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스님이 공부하고 도 닦고 마음이 텅 비면 빌수록 그를 따르는 신도들도 스님을 본받아 마음을 텅 비우기에 나라가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융성하고 바로 서려면 그 나라의 개개인이 바른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철학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기도 합니다. 불법을 따로 절에서 찾고 스님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이 이미 마음속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길 "보살마하살어 응당히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했습니다. 자기 마음부터 항복받아야 합니다. 항복은 나라고 하는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일체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학문이니 교양이니 지식이니 하는 것이 나라는 것과 얽혀버리면 밤낮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세계에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내가 교양있다, 잘났다 하면 이미 죽음의 독소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도 빈몸으로 왔고, 또한 왔지만 온 일이 없고, 살아 있어도 빈몸으로 살고, 살아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막상 죽어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은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부처도 중생도 아니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도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미동도 안하고 우주에 가득차 있으며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난 것도 아니며 우주전체가 본래로 나인 것입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사랑, 애착, 집착에 얽혀 있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마는 것임을 확연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중생공양이 곧 제불공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지우고 중생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삼세부처님을 받들어 모신다는 말입니다. 중생의 뿌리에다 대자대비의 물을 줘서 가꾸어 갈수록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꽃이 피고 불보살의 열매가 풍족히 열리게 됩니다.

요즘 어렵다고들 하지만 내가 출가하던, 6.25 전에 비하면 너무나 좋아진 시절입니다. 왜정때 군에 나가서 위낙 많은 것을 겪어서 인지 세상살이에 미련이 없더군요.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죠. 전쟁에서 살아온다는 것이 기적같던 시절에 나는 살아왔습니다. 모두 모친의 간절한 기원과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있죠.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일본에는 대도시 한가운데 지장보살을 모셔놓은 당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전쟁에 학병으로 징병된 후 그 당에 가서 매일 매일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고 보니 살아서 돌아오길 지

"삼세 부처님 바로 받드는 길은 '나'라는 생각마저 지우고 이웃을 공경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극정성으로 빌었던 것이죠. 내가 만들었던 등을 감나무에 걸어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새벽까지 지장보살을 염하고 돌아오곤 하는게 하루일과였어요.

나는 그때 남쪽 나라에서 패잔병이 되어 산에 숨어 있으면서 미군들이 버린 음식을 훔쳐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죠. 사람꼴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밤 포위되어 나를 제외하고 모두 전몰했습니다. 그때 다친 다리 때문에 지금도 고생을 좀 하고 있죠. 모두가 죽었는데 나는 시체속에 일주일정도 파묻혀 있다보니 썩은 진물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때 인생을 다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러던 어느날 밤에 모친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하고 시체더미를 헤치고 나와보니 등불이 뱅뱅 돌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아픈 다리를 끌며 등불을 따라 움직여 포로가 되었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을 상봉하게 되었는데 모친이 등불을 잃어버린 날짜와 내가 그 등불을 발견한 날이 일치하더군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의 힘에 의해 생환하게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신장님의 가피로 살아났으니 부처님의 은혜도 갚고 어머니의 은혜도 갚기 위해서는 중이 되어 수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 먹고 등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출가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은 속세에서는 거지노릇을 했더라도 일단 계받고 가사장삼 수하면 부처님이 앉았던 금방석에 앉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거지처럼 얻어 먹다가도 일단 중이 되면 임금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복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하고 한푼의 시줏돈도 무서워하고 옷 하나로 일생동안 빨아입는 등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없어서 어려운 것보다 많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호강을 물리치고 조용히 지족(知足)한 생활을 해 나가야 진정한 불제자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삿된 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돌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을 비우고 사세요"

"자기마음부터 항복 받아야 합니다 학문 교양 지식이 아상과 얽히면 밤낮 시비 분별하니 죽음의 세계죠"



◇화엄스님(앞줄 가운데 안경 낀 스님)이 범어사 선원장으로 있던 1974년, 범어사 선원의 하안거 결제 기념 사진.

"사랑·집착·미움·일체사랑 들고 나는게 생사 그 버릇 버리고 맑은 마음 향하는게 불교"

하고 탐내고 진심내고 어리석게 살던 중생이 그 버릇을 버리고 맑은 마음자리를 향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방자한 버릇을 묶어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 관찰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깊이 참구하며 생활하는 중에 염불이나 화두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일심으로 정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업식을 녹이고 자유자재한 마음 자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범어사에서 1백2십여명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백중 해제후에 6~7명의 스님들이 기장으로 다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 아무집이나 두드려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죠. 어느집 문을 두드리니 백발노장이 나오더니 우리를 보자마자 "아이구 대선사들 오셨습니다"하며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군요. 그 노장은 얼핏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죠. 공양후 모두들 피곤했든지 잠이 들었는데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장이 부채질을 하면서 나오더니 "모두들 자는데 여기 눈밝은 수좌가 하나 있는가"하고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나에게 선방수좌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백발노장이 "부처님께서는 삼처전심(三處傳心)을 하셨는데, 일처전심만 해도 될 것을 왜 삼처전심을 했는가?"고 묻는 겁니다. 삼처전심이란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 빙그레 웃었던 것과 지나가는 가섭에게 다자탑의 자리 반쪽을 내어 주어 나란히 앉았다는 것과 부처님 입멸로 슬피 우는 가섭에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발을 내밀어 보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뜻을 알지못해 대답이 궁색하다보니 선방수좌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비참한 심정이었죠. 그 노장은 "걸만 멀쩡했지, 모두들 밥만 축내는 것들이구만" 하고는 벌렁 눕더니 눈을 뜬 채 코를 골며 자더군요. 그 노장이 나에게 준 충격은 너무나 커 새벽에 살짝 빠져나와 철로따라 걸어서 범어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노장이 던진 화두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걸망지고 길을 가다가 상여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어귀마다 상여를 보관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상여집에 들어가 좌선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게 되죠. 배가 고프고 부슬부슬 비는 내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자니 잠이 오더군요. 잠속에서 상여집을 지키는 귀신이 말하기를 "귀하신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어떻게 하지요?"하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 생각하길, '내가 저놈을 봐야 하는데 저놈이 나를 보다니, 내가 공부가 없으니 저놈이 나를 보는 것이니 큰일났다' 했어요. 공부를 했다면 내가 무아경에 들어가 귀신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만 중이지 속마음은 속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 다시 화두를 잡았죠.

'일처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삼처전심을 했을까' 하는 화두를 계속 참구했지요.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마음은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온 일도 없을 것이고, 살아도 산 바가 없고 죽어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있을텐데, 도대체 그 마음이 뭔가 하고 간절히 참구하다 잠이들면 잠속에서도 화두가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화두삼매에 들어 있으니 아까 그 귀신이 "이 스님이 어디갔느냐"고 밤새도록 찾아요. 참 희안한 일이죠. 화두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힘을 얻게 되었죠. 3, 4년정도 공부를 하다가 범어사에 돌아왔지요. 어느 날 새벽종소리가 뎅- 하는데 마음이 휙 돌아가는 느낌이 오더라구요. '아, 이거 뭔가 되었구나' 싶어 기장의 그 노장을 찾아갔지요. 바로 전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가부좌를 한 상태로 이불 호청이 덮어져 있더군요. 독경을 해드리고 아들에게 덮어놓은 것을 걷어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역시 눈을 뜨고 돌아가셨더군요.

내가 그 시신을 보고 "당신께서 4년전에 나고 죽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금일에 죽음이요?" 했더니 손을 들어올리더군요. 내가 또다시 "그러면 그 손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실겁니까?"했더니 손을 더 높이 올리더군요. 거기서 또 한방 얻어 맞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말그대로 자유자재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관밖으로 발을 내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생사가 본래 없는 겁니다. 생사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 대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사랑 분별, 학문있다, 교양있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 생각들이 나고 드는게 전부 생사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감정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끌고 가는게 아니라 그것들에 휘둘리면서 사는 이상 그것은 아무 보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불하는 이는 염불하고 참선하는 이는 참선하며 깊은 몽중에라도 성성적적(惺惺寂寂) 적적성성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가 제대로 익으면 염불하고 참선하느라고 밥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학문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마침내는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망상이므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문이니 교양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꿈이며 나를 가리고 있는 장막일 뿐입니다. 그 장막을 벗기고 맑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 칠흑같은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참선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염불을 해서 업장을 녹이자고 하는 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중에도 염불이 나오고 몽중에도 화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화두 염불마저도 잊어버리고 나라는 생각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오각성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주삼라만상이 내 마음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불(佛)이 되어 가는 것이죠.

부처님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설명한 적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역대 조사가 마음을 전한 바도 없고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간단히 예를 하나 들지요.

어떤 남편이 엿을 먹고 있는데 한번도 엿을 먹어보지 못한 아내가 "여보, 엿맛이 어떻소?" 물었어요. 그 남편이 "맛있고 달콤하오." 그래도 그 부인은 엿맛을 모르겠거든. 또 물었지. "여보, 엿맛이 어떻소?" 그러자 그 남편 하는말 "묻지 말고 직접 먹어 보구료"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엿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묻기를 "여보, 엿맛이 어떻소?" 하니까 그 부인이 빙그레 웃었답니다. 허허, 이것이 바로 삼처전심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이 삼처전심의 화두를 풀어 달콤한 엿맛을 보듯이 마음자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나와 경전 59

법구비유경



덕 진
울산 정토사 주지

법구경 배경인연 풀이한 비유 설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답제시"

불교는 신앙적으로 좋은 종교요, 철학으로도 심오한 진리가 있다 그러나 심오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기도, 뜻이 완연히 드러나게 가르치기도 쉽지가 않다. 필자는 특히 어린이나 학생, 불교입문자에게 설법을 자주 하는데 간결하고 쉬운 법구경을 많이 인용한다.

필자는 수행포교초기, 어느 큰 스님 법석에서 '장자의 네 부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미있고 인상이 깊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것은 〈법구비유경〉의 한 대목이었다.

그 요지를 보면 어느 장자에게 네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에게는 귀한 옷도 사주고 아끼며 끔찍히 사랑했다. 둘째 부인도 귀중하게 돌보며 사랑했고 셋째는 볼 때는 아끼나 그저 그렇게 지냈는데 넷째 부인에게는 무관심과 냉대로 대했다. 장자가 어느날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면서 네 명의 부인들을 각각 만나 동행해 줄 것을 간청했다. 끔직히 사랑하고 잘해준 첫째와 둘째 부인이 응당 같이 가겠다고 나설 줄 알았으나 두 부인은 정색을 하며 같이 못간다고 냉정하게 거절했다. 셋째 부인은 동리밖까지만 따라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냉대했던 넷째 부인은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고 했다. 장자는 평소에 넷째 부인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소홀히 대한 것을 절실히 후회했다. 여기서 장자는 우리 모든 사람을,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며 첫째 부인은 육체를, 둘째 부인은 재물을, 셋째 부인은 가족이나 친지, 넷째 부인은 마음공부를 비유한 것이다. 평소에 사람들은 육체를 호사스럽게 가꾸고 끔찍하게 아끼며 재물을 좋아하지만 결국 죽을때 가지고 가는 것은 평소에 해놓은 마음공부라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이다.

비유란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러한 생활속의 쉬운 비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재미있고 인상적인 비유가 가득한 〈법구비유경(法句譬喩經)〉은 한역 〈법구경〉의 게송 가운데 3분의 2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것이 설해지게 된 인연과 핵심 교훈을 구체적 비유를 들어서 알기쉽고 흥미롭게 설한 경이다.

법구 설화마다 문답형식으로 엮어져 그 본말을 확실히 하여서 〈법구본말경(法句本末經)〉 또는 〈법유경(法喩經)〉이라고도 한다. 내용의 갖가지 비유적 이야기는 가히 환상적인 인도인의 상상력이 창작해낸 풍부한 비유담으로 비유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은 전 4권 40품으로 엮어져 있고 각 품마다 한가지 이상 다섯가지나 여섯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다. 이 경은 서기 290~306년에 법거와 법립에 의해 한역되었고 고려대장경 1020에 있으며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신관 20번에 있다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둘었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이야기나 출가수행자가 처와 자식의 연을 끊지 못해 집으로 가려하자 '지붕잇기를 촘촘히 잘하면 비가 와도 새지 않듯이 뜻을 단속해 그대로 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르침,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란 마치 한 여관에 머문 나그네들이 아침이 되면 일어나 각자 자신의 길로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등의 비유는 평소 내가 군부대나 교도소 등에서 설법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들이다. 어린이나 학생 법회때는 신통력의 비유나 수행자의 비유를 들어 호기심을 일으켜 경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법구비유경〉은 설법이나 글을 쓸 때 너무나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혹 우울할 때나 좌절이 생길 때 이 경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어느새 마음이 가뿐해지고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생겨남을 느낄 것이다.

나는 설법할 때 이 경의 설화를 설명해주고 그 핵심 게송을 대중과 함께 꼭 복창한다. 대중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서 〈법구비유경〉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신도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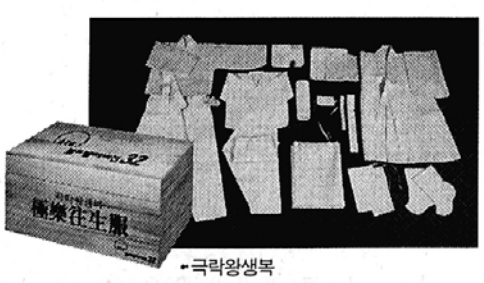
뉴코아 백화점 6개점 동시 실시!!! (6월 24일 부터 7월 24일 까지)

불교TV 효도상품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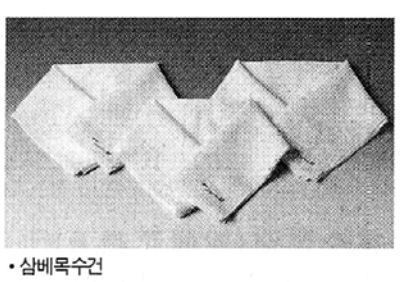
강남신관, 성남 킴스클럽, 일산 뉴코아, 수원 인계점, 평촌점, 평택점

btn 불교텔레비전이 불자님들께 '명품삼베' 보급을 위해 뉴코아백화점에 효도상품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극락왕생복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과 마음의 양식까지 구비하였으니 불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예로부터 윤달에는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지어두어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이 윤달에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도를 위해 '명품삼베'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 드릴 불교문화상품, 불교관련서적, 영상제작물,
우리옷, 사찰전통음식, 불교괜시상품 등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극락왕생복


• 삼베목수건


• 삼베양말


• 불교문화상품, 불교관련서적, 영상제작물,
우리옷, 사찰전통음식, 불교괜시상품 등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btn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뉴코아 서울·경기지역 ●강남신관(지하1층) : 02)530-5647 ●성남 킴스클럽(1층):0342)780-3226 ●일산 뉴코아(6층):0344)900-5602 ●수원 인계점(7층):0331)30-5705 ●평촌점(10층):0343)80-5703 ●평택점(9층):0333)50-6647

"궤도차 타고 남북한 오갔으면 …"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6·25 한국전쟁 발발 48주년을 며칠 앞둔 21일, 25명의 불교문화체험기행단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지역으로 떠났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전적과 비무장지대를 둘러봄으로써, 다시는 동족간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며 분단의 아픔을 체험했다. 또한 민통선 인근에 위치한 화엄도량 도피안사와 생지장도량 심원사, 6사단 군법당 철원사 등 3사순례를 통해 호국불교의 힘으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국보 63호).

■ 땅속에서 전쟁 치른 철조비로자나불
신라철불 … 조각미 탁월
'기도 성취' 영험담 많아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철불로 능숙한 조각과 조형수법이 돋보이는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63호). 9세기 후반 불상의 한 전형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높이 91㎝의 이 불상은 전쟁 때문에 영영 그 자비로운 미소를 중생들에게 현현치 못할 뻔 했다. 한국전쟁 동안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스님들이 소실을 우려해 화개산 자락에 묻어 두었던 이 불상은 1957년에야 제15사단장 이명재장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치열한 격전으로 소실된 도피안사는 1959년 이명재장군이 중수해 군에서 사찰을 관리하다가, 1985년 조계종에 사찰관리권이 이관되어 현재는 복원불사로 여념이 없다.

전쟁 직후 이 장군은 이 곳이 절터인 줄 모르고 대대본부를 설치했다가 사고 등 우환이 끊이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꿈에 비로자나 불상이 나타나 당신을 땅에서 꺼내 사찰을 중건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대대장 역시 같은 꿈을 꾼 것을 알고 불상을 찾게 되었다.

이 세상에 충만한 '진리 그 자체(法身)'를 조형화한 이 불상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특이한 상서가 많이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 참배자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장군 진급, 고시 준비생 등에게 영험이 많다고 한다.

유서깊은 도피안사에서 기행단은 천년이 지난 철불 좌대를 어루만지며, 통일신라의 불국토가 이 시대에 재현될 것을 진심으로 발원했다.

월정리역 녹슨 철마 "북녘산하 달리고 싶다"
백마고지 지옥의 전장터…숨진원혼 왕생기원
도피안사·심원사 선열 희생 기리며 영가천도

기행단이 먼저 찾은 곳은 남북한 냉전을 상징하는 제2 땅굴.

1975년 3월19일 야간근무중 한 초병이 지하에서 나는 폭음을 듣고 발견했다는 이 땅굴은 1시간에 중무장한 3만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기습남침용 지하 통로. 견고한 화강암층에 지하 160m 깊이에 3㎞까지 파고 들어 온 북한군의 집요함이 일행을 놀라게 했다.

"동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증일아함경). 기행단은 하나 같이 동족을 세번 싹이나 외침에서 구하기 위해 안타까워 하신 부처님의 동족애를 떠올렸다. 장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소' 기증으로 무르익고 있는 동족 화합의 분위기가 민족통일의 연꽃을 피우길 발원했다. 견학온 초등학생들은 군사분계선 300m 지점에 놓여 있는 땅굴속 레일과 궤도차를 보고 "통일이 되어 이 궤도차를 타고 남북한을 오가면 재미있겠다"고 한 목소리.

이어 도착한 곳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어로 유명한 월정리역과 '철의 삼각 전망대'.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지 못하고 끊어진 월정리역은 서울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한 간이역.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부서진 열차의 잔해가 앙상하게 남아있어 분단의 비극을 더욱 실감케 한다.

만리장성처럼 철원평야를 감싸고 휘감아 도는 대전차방벽에 우뚝 선 '철의 삼각 전망대'에서는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앞에 '김일성 고지'와 '괴의 능선'이 바라다 보인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비무장지대. 여유있게 노니는 10여 마리의 해오라기가 유난히 경화롭다.

지구상에 남은 최후의 냉전지대. 남북의 철조망 사이에 강처럼 놓여있는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생태계가 '전쟁과 평화'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온갖 희귀조와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이곳이 통일후에도 자연공원으로 남아 평화의 상징이 되길….

남방한계선을 따라 5분 정도 서쪽으로 달려 백마고지에 도착했다. 1952년 10월 6일~15일 열흘동안 고지주인이 24번이나 바뀌고 중공군 1만4천여명 등의 사상자를 낸 세계 전사(戰史)상 유례가 없는 전쟁터. 지금도 나무가 듬성듬성 나있을 정도여서 그때의 참상을 웅변하고 있다. 일행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헌화하고 엄숙하게 숨진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전적지는 인근에 위치한 노동당사. 해방후 5년간 공산치하에서 주민들을 탄압하던 곳. 철원, 김화, 평강, 포천일대를 관장하던 이곳은 1개 리당 8백 가마의 쌀을 착취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던 곳으로 악명 높다. 2년전 원혼들이 자주 출몰해 건물 뒤쪽 방공호의 땅을 파보니 수많은 인골과 실탄, 철사줄이 발견되어 초소를 폐쇄했다고 한다.

일행은 가슴 시린 6·25 격전지를 뒤로 하고 철원군 동송면 화개산에 위치한 도피안사로 순례를 떠났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통제구역' 속에 위치한 관계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피안사. 일행은 모든 중생을 피안의 해탈세계로 건너게 한다는 '도피안(到彼岸)'이란 절 이름 처럼 우리 민족이 상호불신의 강을 건너 통일 불국토에 도달하게 되길 기원했다.

점심 공양후 도피안사(주지 도견) 총무 정여스님이 호국사찰인 도피안사의 유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절은 865년(경덕왕 5)에 처음 산문을 열었어요. 도선국사가 향도 1천5백여명과 함께 이 절을 창건해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63호)을 봉안하고 삼층석탑(보물 223호)을 건립했습니다. 도선국사는 이 절을 비보국찰(裨補國刹) 중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화개산이 물에 띠 있는 연약한 연꽃의 모습이기 때문에 석탑과 철불로 산세의 약점을 보완해 국가의 내실을 다지고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며 도착한 곳은 동송읍내에 위치한 제6사단 군법당 칠원사. 군종병 정석한 상병을 전적지 안내자로 미리 보낸 손기두 군법사가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와 반갑게 맞았다. 사병들에게 초코파이와 콜라를 선물한 일행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갑사의 뜻으로 일행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해준다. 기행단도 법사의 염불에 맞춰 일심으로 귀명정례하며, '민족통일기원 삼사순례'의 의미를 되새겼다.

3사순례의 최종 코스는 생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심원사. 720년(성덕왕 9) 사냥군 이순석(李順石)이 사냥을 나가 멧돼지를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돼지는 보이지 않고 어개에 화살이 꽂힌 지장보살석상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어 출가했다. 그 뒤 그는 우리나라 제일의 지장성지인 석대암(石臺庵)을 창건했다. 그러나 6·25전쟁과 함께 석대암은 폐허가 되었다. 지장보살상도 실종이 되어 행방이 묘연하던 것을 한 불자가 찾아내 심원사에 봉안하게 되었다 한다.

심원사 주지 영도스님은 관명진언(光明眞言)을 외우며, 6·25동란 당시 전사한 원혼 등 억울한 영가를 천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영도스님은 심원사를 참배한 일행에게 "천지만물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조상을 공경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고 법문했다.

'통일기원 삼사순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원일인지 전혀 막히지 않았다. 통일의 길도 오늘처럼 시원하게 뚫리면 얼마나 좋을까.

글=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철의 삼각 전망대'에서 기행단이 비무장지대 및 북한 지형을 모형지도로 살펴보고 있다.



◇월정리역에 놓여 있는 '폭격으로 부서진 철마(鐵馬)'. 철마가 부활해 다시 달릴 날은 언제일까.



◇진흑한 고문이 행해진 노동당사의 잔해가 흉물스럽다.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선식(仙食)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에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예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해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의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산(치산)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영업장주(東園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이다·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령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강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악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하늘이 무너진대도 자기 믿어야"

안팎경계 대하는 방법

문 저는 얼마전에 운전을 하다가 6만원짜리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막 화를 냈더니 그 다음에는 10만원짜리를 내게 됐고 그래도 돌려놓지 못하니까 다음엔 30만원짜리 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45만원짜리가 터지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연속으로 생기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번연히 알면서도 안돌려놔지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아,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돌려놓으니까 돈은 내게 되었지만 마음은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안팎의 경계에 대해서 무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향상의 도리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면세계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는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무심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이것도 주인공 너가 한 거지.' 하면서 그 상대방이 덕으로 인해서 심부름을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한다면 30만원이고 45만원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대립이 되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에 끝날 것을 두 번 세 번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 이치가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자기를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인공을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어 볼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없는걸요. 그러니까 오래 다녔거나 처음 왔거나간에 한번 일러준 것을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은 좀 쉬운 것 같애요.

> 그냥 볼 뿐이고
> 그냥 들을 뿐이고
> 그냥 갈 뿐이고
> 그냥 디딜 뿐이고
> 움죽거릴 뿐이니
>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림 · 최주현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픈 병이나 낫자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누구나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싹은 바로 자기 뿌리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상대를 보고 형상이나 이름을 믿지 말라.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너의 내면에, 너를 이끌어가는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면공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고, 그냥 갈 뿐이고 디딜 뿐이고 움죽거릴 뿐이지, 남는 것이 없어요. 떠 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놈이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현실에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어떤 놈이 움죽거리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잘 알아서 실천토록 하십시오.

자긴 빠지고 주인공에 놓아야 물리 터져
"내 생각 남 모를줄 알면 어리석은 겁니다"

법회에 나오는 마음자세

문 보통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병이라든가 가정의 우환 등 주변의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나오시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처음엔 초발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오래 다니다보면 법회에 안나오면 그냥 좀 서운하고, 또 이익이 있고 그냥 좋으니까 다닌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근본자리를 믿도록 다지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나오시든지 나오시는 건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도 천차만별로 마음의 차원은 있죠. 그것은 앞서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죠. 어떤 차원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든 나를 다지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건 모두 같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이 이 마음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하죠. 그 속에는 젖은 것 마른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또는 좋은 것 나쁜 것, 높은 것 낮은 것 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잘 생각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근심 걱정을 하가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인의롭고 여유있고 지혜롭고 자비한 그 마음으로써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어디서나 남을 탓하지 않고 나로 돌린다면 저절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위로는 상세계에 통신이 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같이 더불어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듣고 있는 자들이 이 허공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것을 남이 모른다고 생각을 한 그 생각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써 하면 모두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체만물이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이롭게 생각을 내준다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죽어갈 때도 다 이롭게 살려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한손'입니다. 한마음 한손! 한발로 딛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또 듣지 않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가둬두고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면 세세생생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꿈에 할머니가 목을 조여

문 저는 마음 공부한지 2년 됐습니다. 몇 달전부터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음을 증명해 봐.' 하고 관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주인공이 나타나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증명해보라고 하면서도 영 믿기지가 않아서 한달전부터는 잠자기전에 반드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날 밤엔 꿈인지 생시인지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 물었는데 제가 무시했더니 제 목을 졸랐고, 또 어느날 새벽엔 갑자기 문밖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고 가스렌지에 갑자기 불이 켜지고 제가 막 빨려가는 느낌이 들어 소리지르다가 깨어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약간 신경쇠약증세가 와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상기된 얼굴에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4)

마음의 끈이 풀리면 얼었던 삶도 풀린다.

"세상 천지가 내 것이기에 내 소유 아닌 게 없고, 내 것 아닌게 없기에 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할 것이 없다. 그대로 잔잔한 물이 돌고 도는 것 같고 화창한 봄날에 꽃이 만발한 것과 같을 것이다.

가지려고 하면 가질수록 불안해진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편안해진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나누려들면 오히려 내 것이 줄어든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소유하려는 좁은 소견을 털어 버리고 자유롭게, 다소유하며 산다.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좁은 유리병 안에 갇혀서 밖을 바라보며 내 것 네 것에 애태우게 된다."

소유는 구속이다. 집착은 족쇄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소유 당하고 내가 붙잡히는 것이다.
가령 그 대상이 돈이라고 하자. 내가 벌고 내가 갖는다고 하지만 일단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는 알게 모르게 돈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 누가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내 손을 떠나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된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도 그렇다. 일단 내 것이다 싶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게 마련이다.
대상이 사람인 경우도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가 늘 함께 해주고 늘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는 비탄에 젖고 괴로와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걸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데 왜 떠나보낸단 말인가.
사랑하는 만큼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랑이란 곧 서로를 묶는 끈이요 서로의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묶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게 참다운 사랑일 것이다.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가령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다면 그가 자유인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제 삶을 살게 하라.
이런 말이 있다. '젊은 이가 겪게 되는 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은 자비심 많은 어머님을 갖는 것이다.'
자비심 많은 어머니는 자녀의 독립을 가로 막고 자녀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그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 그 누구를 자유롭게 하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돈이 제 갈길을 가게 하라. 소유는 자유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는다해도 그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그로부터 해방되고 싶거든 바라지 말고 버려라. 그를 풀어 주어라. 그를 풀어주면 나의 족쇄도 풀린다. 그를 풀어주지 않고 나만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착과 탐욕은 어떤 경우라도 나의 노비문서요 그것의 족쇄인 것이다.

그것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와 그것을 묶는 끈, 애착과 탐욕을 끊으라는 것이다. 그 일이야 말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삶인 것이다.
진정코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내 삶에선 내가 주인이다.
주인인 내가 그 무엇에 묶여서, 그 누구에 묶여서 산다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요 노예인 것이다. 코루레에 궤인 소나 목줄에 묶인 번견(番犬)과 무엇이 다르랴.

몸을 풀어주라는 게 아니다. 일부러 버리라는 게 아니다. 끈은 마음의 끈이다. 내 탐욕의 끈이요 나의 집착이 끈이다.

마음으로 풀면 된다. 마음이 풀리면 삶도 풀린다. 얼었던 강이 녹듯이 삶의 강물도 녹는다. 강물이 풀리면 배가 오고 님의 소식도 올 것이다.

협찬 : 김남운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둘로 보지않고 놓아야 열쇠 얻어"

☞ 15면에서 계속

년원의 한 스님을 찾아 뵙고 상의를 드렸더니 '둘로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또 바람부는 소리가 나면서 저를 괴롭히길래 '주인공, 네가 하는 것이지.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을 알았으니 됐어.' 하니 할머니가 나타나려 하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몸이 시원해지더니 머리도 개운해지고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스님, 지금껏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수행을 해나가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그것은 당신이, 주인공이 당신한테 나타나 주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그건 바깥으로 끄달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꿈으로도 나타나고 온통 다른 모습으로 나투어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 너가 하는 걸 알았어' 하니까 그것이 나오다가 없어졌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란 건 이게 절대적이죠. 당신 싹이 당신 뿌리를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믿지 못하니 싹만 허공에 뜬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거기 놓고, 들리는 것도 거기 놓고, 모든 걸 감사하게 놔라 이랬지, 그걸 좇아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건 현실이예요. '너가 있다는 건 너만이 증명할 수 있어.' 하면 눈뜨고 현명하게 나타나는 걸 말하지, 꿈으로 나타나고 눈 한쯤 뜬 때 나타나고 이러는 게 아니예요. 현실이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모습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신 모습이 바로 주인공의 모습이예요. 참 당신이 있다면 당신의 겉모습 안에 있어요.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내가 산으로 다닐 적에 지금 이름 붙여 말하는 '주인공'을 무척 보고 싶어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참 너무도 광대하고 묘해서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없어지기도 전에 안에서 '색경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색경을 보니까 내 모습이 거기에 비치겠죠. 그리고 또 '바로 그 모습이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없어도 공부를 못하고 또 정신계가 없어도 송장이 되니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못났든 잘났든 내면에 종자의 뿌리는 바로 자기를 리드해가는 선장이 되는 겁니다.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니 어떤 일이 닥쳐도 무조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 이거는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자기는 쑥 빠지란 말입니다. 몸은 심부름꾼일 뿐이고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심부름꾼이 나타나 나서면 되나요? 주인이 하게끔 다그쳐 던져야죠. 그러면 물리가 터지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공부아닌 게 없어요.

살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 큰스님 가르침 중에 '알고 몰라야지 모르고 모른다면 안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살생과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이 공부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많은 살생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적에 고기도 많이 잡고 산으로 들로 다니며 뱀도 많이 잡고 개구리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 법을 만나고부터는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내가 돌로 때린 뱀이 아픈 몸을 끌고 굴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나서는 진심으로 그 생명들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길을 가다가 들짐승이나 죽어있는 걸 봐도 '주인공 둘이 아니잖아. 저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주인공 너밖에 없어' 하고 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작은 생물들도 예전같이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옛 인연이 생각날 때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답 이것이 죄가 되고 안되고는 그 생각 차원에 따라 있다고 봅니다. 공한 도리를 스스로 알면서 둘 아닌 도리를 행한다면 아무렇게나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게 되죠.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죽이지 않으면 안되게끔 닥친 것, 예를 들어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윗사람을 봉양한다든가 하여튼 산 생명을 죽이게 됐을 때, 이럴 때 이 공부하는 사람은 주인공 자리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깊이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과 그 모습과 죽이는 모습, 그것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 아니게 자기한테로 하나로 돌려놓으면 그 의식은 인간으로 천도가 될 것이며 또 그 모습은 약으로 쓰일 것입니다. 양면으로 쓰게 되죠.

> "보이는 것도 거기 놓고
> 들리는 것도 거기 놓고
> 모든걸 감사하게 놔야지
> 그걸 좇아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잡아죽인다면 크게 죄업을 짓게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백정노릇을 하던 어떤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보니 몇 십년 전부터 죽인 생명들이 현실에 하나로 되면서 전부 천도가 됐더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싹 없어진 거죠. 한생각에 한깨달음에 그냥 멀고 가까운게 없이 한순간에 다 해치워 버린 거죠. 그런 것과 같이 댁도 어릴 때 그렇게 했어도 지금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남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걸 알고 마음을 내고 가신다면 그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왜 무효가 되느냐?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댁의 마음속에 전부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으니까 연방 들어갔다가 천도가 되는 까닭에 그것이 모두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나투며 응해주는 마음이 부처
생명 하나를 봐도 내생명 같이 생각해야

옛날에 어느 나라에 난리가 나서 싸우는데 이쪽 군사는 백 명 밖에 안되고 상대쪽 군사는 천명이 되더랍니다. 이쪽의 군사가 적으니까 그 군사를 이끄는 대장이 '주인공, 당신만이 꼭 이기게 할 수 있고 이 군사들을 용기있게 살게 할 수 있어. 이 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내 형제요 바로 나이기 때문이야' 하고 아주 간곡히 청했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군사들의 마음이 흩어지면서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됐더랍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치도 있기에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히 급할 때 응용하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누구를 이기게 하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하나를 봐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갈 것은 한생각에 천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안하면 안되리만큼 인연이 왔을 때 마다하지 말라 한 거지, 강제로 일부러 때려죽이러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온 것, 내가 꼭 해야될 것을 마다하지는 말라 이런 겁니다. 그건 왜냐? 상대는 알고 벌써 천도가 되기 위해서 뛰어든건데 그거를 오히려 마다한다면 알고 뛰어들었던 그 영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간혹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웃집에 죽은 분이 꿈에 나타나서 내 말 좀 해달라고, 스님한테 가서 내 얘기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하더랍니다. 말만 들어도 자기는 천도가 되겠으니까 알고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정신계의 모든 이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니까 답답한 게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한편은 그렇게 안해놓으면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수행을 거쳐서 인연의 도리도 알고 자기의 습이 다 녹은 사람이라면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 주겠지만 습도 녹지 않은채 무조건 알게 해놓으면 '과거에 네가 나한테 이랬지?' 하고 아마 도끼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을 둘로 보지 않고 일체를 다 놓고 여여하게 사는 사람 앞에 열쇠를 맡기게 되고 그래서 정신계의 이치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공덕 · 비밀정토의 의미

문 생각과 공덕, 비밀정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 비밀정토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것도 둘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모습이 내 모습과 둘이 아니니 일체 차원을 논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 차원이 5차원이라면 아주 어리석은 1차원 2차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닥쳤으면 내가 어리석어지고 똑똑한 사람이 앞에 닥치면 내가 똑똑해지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응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돼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가 공덕입니다. 공덕 아닌 게 하나도 없죠. 한생각 한마음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주죠. 때로는 법신이 되고, 때로는 보현신이 되어 나투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밀정토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도 남의 눈에 띄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가 할 일을 꾸준히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밀정토를 알 수 있겠죠.

'부처' '도' 가르쳐 주십시오

문 부처와 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 부처라는 것도 이 세상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댁의 몸뚱이 속에는 많은 생명들의 의식이 있는데 봤다고 해서 혼자 본 겁니까, 들었다고 해서 혼자 들은 겁니까, 움죽거렸다고 해서 혼자 움죽거린 겁니까? 전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움죽거렸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나 혼자라 해도 혼자가 아니거든요.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한 덩어리의 개체입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어도 누가 물을 마셨을까요? 더불어 같이 마셨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이 내가 한 겁니까? 더불어 같이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라는 건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응해주는 그 마음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할 수 있으며, 뭐든지 내가 됐다, 내가 했다, 내가 간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는 까닭에 도라는 것도 부처가 그냥 생활하고 가는 것이 전부 도인 것이지 도 아닌 게 없죠.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생각 자체가 바로 도입니다. 즉 생활이 도의 근원이 되고 그 근원에서 일거수 일투족 그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도'라고 하죠.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뿌리에다 그냥 다 맡기시면 뜻으로 알게 될테니 그렇게 노력하세요.

종교마다 수행 다른 까닭

문 저는 학생인데요, 제 친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구 꿈에 흰 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주 나타나서 무섭다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다 나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이시니까 하느님께 기도를 해서 그런 꿈을 안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한테 '그런 나쁜 꿈을 꾸게 한 것도 주인공이니까 안꾸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 너잖아' 하고 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관해줬어요. 그러다가 문득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났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주인공에 관하게 되는지, 서로 다르게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개신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외국을 가봐도 전부 자기는 쑥 빼놓고 타의에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또 남을 해롭게 하든 사기를 치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안단 말이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했다 해도 자기가 한 일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기가 수습을 해야 하고 자기가 돈을 떨어뜨렸다면 자기가 돈을 집어야 하고, 땅바닥에 넘어졌다면 자기가 땅을 짚고 일어서야지 누가 대신 해주는 사람 없어요. 대신 죽어주는 사람, 아파주는 사람, 먹어주는 사람, 잠자주는 사람, 똥 누어주는 사람, 깨우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주처가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도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 장난같고 귀신장난 같은 거니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잘못했느냐 하면 '나'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 각자 너'라고 해야 될텐데 '얘기하는 사람 나'라고 했으니, 예수님도 생각은 각자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잘못했는데 말하자면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딴 것은 믿지 말아야겠구나'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못났든 잘났든 각자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세상이 있고, 너를 형성시킨 보배가 바로 너의 불성이니라, 너의 뿌리니라" 이러셨거든.

> "자기가 잘못한것 자기가 수습하듯
> 땅바닥에 넘어 졌다면 자기가 땅을 짚고
> 일어서야지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나무로 비유했고 그 주인공은 바로 뿌리로 비유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고 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느니라.' 했거든. 그랬으니까 '따르기는 따르되 믿는 것은 너를 믿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타의에 의존하고 믿고 그러는 게 기복이란 얘깁니다. 기복을 믿어서는 공덕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꾸 바깥으로 끄달려서 영계성이나 유전성을 끌어들인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자식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기도 하고 말야. 자기 뿌리만 믿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텐데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학생이 관해 준 그 애는 그 뒤에 어떻게 됐니?

*친구의 부모님도 이 공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건 하느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마음속에 주인공이라는 큰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한테 말을 해야 그런 꿈도 안꿀 수 있고 좋게 돌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안믿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혼자 계속 관했는데 그 뒤로는 친구가 꿈을 안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고맙다고 관했습니다.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심요법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기공·지압·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고혈압·간경화·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한달분(60첩)

1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담당 정 재 환
015-7705-5457/016-341-4584

평생무료진료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오인술한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한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요양기관)원장 한의학박사 한택천(前명지한방병원장)-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교양과정:일용생활불교의식, 상용의식, 통과의례 〈매주 월·목 오후 3시〉
●기본과정: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매주 화·금 저녁 5시〉
●중급과정: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매주 화·금 저녁 7시〉
●어산작법: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원왕생과정: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원왕생 봉사회원 모집 ※각 과정 통신생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만다라 개운법(九성기학 급소) 학인모집

■생활철학, 운명판단, 운세개운, 풍수, 방위, 실점
■발행 저서
-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가정수상술」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 「만다라 개운법」

※ IMF시대, 시대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
※ 일본 운명, 관상술 한국지회장, 일본 점술협회 장회원

직접지도 저자 배 성 현·김 식 이

서울사무소 02)872-3452
수원사무소 0331)258-1669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3개월 졸업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통신생도 모집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동양사상을 공부하실 분★

■ 과 목 : 불교경전, 참선지도, 노장사상, 주역원문, 관상, 가상(家相), 풍수
■ 강 사 : 金 素 湖 居士
(전강, 탄허스님 門下에서 수학·월정사 주역강사)

★ I.M.F 이 어려운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 출장상담도 해드립니다.

02)914-6551
011)755-5333
달마선원 김 소 호 합장

사주·명리학 배우실 분

평생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진로선택 등을 자신있게 풀이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개강일 : 7월 1일부터 3개월
(주2회 오후 1:30부터 4:30까지 3시간씩)
※ 오전반도 있음
■ 수강료 :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 장 소 :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 구 인 구 직 •

동양비전특강

혼자서는 백년을 공부해도 인연이 없으면 알기 어려웠던 신선(神仙)이나 선도인(仙道人)들이 알고 있던 간단하고도 알기쉽고 명확한 비급을 함께 연구할 회원을 약간명 모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의문점을 물어도 알고, 묻지 않아도 알고 일년 당월 당일 당시의 용건도 알고 마음속까지도 알고 비전되어온 도액비방과 의술 단방도 알 수 있는 것이 동양비전입니다.
※ 상대앞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지도상담)

※ 동양비전연구학회 ※
02-597-6211, 017-332-1633

경력 간부 관리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오며,
함께 일할 도반을 모십니다.

■ 연 령 : 40세이상
■ 대 상 : 남·여
※ 주부 재택근무자 모심.

전화 02)738-4224
(法淨) 나 찬 귀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 돈독하시고 평생 같이하실분

064)32-76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 제한없음)

⊙ 천년고찰
천마산 중화사

0414)42-2057
중화사 주지

• 수 련 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분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하계수련대회 유치

삼도봉의 청정계곡에 위치한 만계사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학생 및 불교신행단체의 소규모(50名이내) 하계 수련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므로 대회개최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만 계 사
0547)437-4135 ~ 6

• 불교용품 •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東 禪 寺 ◆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봉술, 전법, 호신술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펼치고자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관 일반 회원은 매주 화·목·토 수련가능
관 스님, 행자는 특별 개인지도하며 출장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함
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자격부여(타 무술 유단자도 환영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사찰명 : 아미사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리 3반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귀하
1998.6.20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 타 •

산 삼!

(심마니 모임)

017)232-6005

• 사 찰 안 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주)광 진 불 사

◇ 운영 맡아서 하실 분
◇ 위치 : 서울 노원구 석계역 부근
◇ 평수 : 약 30평
◇ 가 액 : 약 2천 5백만 (부대비용 일체포함)
◇ 상담후 절충가능

02)948-8020

◇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실평수 : 34평
◇ 가 액 : 3,500만원 (싯가는 8천만원임)
◇ 방 3, 주방 1.

02)3426-4488
02)511-1080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 (황토흙방 3)
◇ 가액 : 5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포교당 운영 하실 분

◇ 위 치 : 대구 광역시 시내
◇ 건 물 : 3층 건물에 3층
◇ 평 수 : 59평
◇ 법 당 : 38평
◇ 요사채 : 방 2개, 주방, 거실, 사무실, 샤워시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가
◆ 수련장 가능 현재 성업중 당장 입주하여 법회할 수 있음.

053)654-7163
011)790-7162

◆ 포교원 급 안내

◇ 위 치 : 부산시 서면 롯데백화점 앞
▶ 포교원 최고요지!!
◇ 평 수 : 40평(2층 3층)
◇ 2층-거실, 목욕탕 및 부엌, 방 3칸
3층-법당, 방 2칸
◇ 월세보증금 : 매매가 6천 5백만원, 2천만원에 월 백만원
◆ 뜻있는 스님은 만나서 협의요망. 단, 스님들만 전화요망합니다.

051)817-4983~4
011)589-3350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 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 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無), 시설비 -1천 3백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344)979-0212
011)667-0212

◇ 포교원 급 양도

◇ 위 치 : 서울 강동구 시장 중심통
◇ 총 50평(법당 35평, 방 3개, 공양칸, 창고 및 샤워시설
◇ 가 액 : 보증금 포함 총 3천 5백만원 (월 50만원)
※ 18년 유지된 포교당으로 성업중이나 사정에 의하여 급 양도합니다.

02)488-1569

◆사찰을 찾습니다.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상 요양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장스님(보살절)절의 예수재 및 천도재를 정상 운영하여 드리겠습니다.

02)943-9942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체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 사찰양도안내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전철역 부근
◇ 건 물 : 4층건물의 2층
◇ 건 평 : 약 30평
◇ 법 당 : 삼전불·지장단·신중단·영단(최고급 시설)
◇ 요사체 : 주방, 거실, 화장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2)202-1123
011)255-3999

◆ 포교원 양도

◇ 대단위 아파트 단지
◇ 염창동(강서구)
◇ 26평 아파트 상가 3층건물의 3층
◇ 전세 : 4,000만원
◇ 권리비, 시설비, 월세 없음.

02)663-2671
02)664-8389
※ 오전 11시 이후 전화요망!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체 : 주방·거실·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사 찰 안 내

◇ 위 치 : 대진 논산간 국도 중간지점 (산속위치)
◇ 대 지 : 602평(종교용지 등록)
◇ 건 평 : 대웅전 신축건물 35평
삼성각-신축건물 5평
◇ 구 조 : 외오포, 내철포, 목조건물, 요사채 33평, 현대식 건물, 조립식 22평 건물
◇ 특 징 : 산세수려, 사찰앞 계룡산 기슭 기도도량 적합
◇ 가 격 : 4억

0461)33-3048
011)458-3048

◆토굴 (영선암)

◇ 위 치 : 안동시 풍산읍 서미 1동 학과산 중대산 바위
◇ 가 격: 전세 5백만원
◇ 법 당 : 10평
◇ 요사채 : 10평

051)817-4983~4
011)589-3350

◆포교당 안내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방학전철역 부근
◇ 평 수 : 약20평
◇ 가 격 : 보증금 2천만 (시설비 약간포함), 월세 40만
◇ 요사채 : 법당등 최고급 시설완비, 주방, 화장실, 거실

02)955-6609

◆天 藏 地 秘 (음택·양택)

■ 사람의 無價寶는 解脫이요 땅의 無價寶는 天藏地秘이다.
■ 하늘은 땅을 돕고 땅은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는 것이다

農山 011-573-2700

◇ 대구시내 포교당

◇ 급히 양도함.
◇ 법 당 : 60평
◇ 시설완벽 방4 주방1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 시설투자 7,000만원
◆ 양도가액 1,000만원
(불구용품점 700만원은 별도)

053)943-4170
016)586-3669

◇ 위치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 200평
◇ 대웅전 : 요사방 2개, 산신각
◇ 매도가 : 7천 5백만원

※ 가격절충 ※

0559)32-4807

사찰 분납 인수하실 분

◆위 치 : 경북 예천
◆부 지 : 700평(등기평수)
◆법 당 : 20평 / 요 사 : 25평
◆가 액 : 8,000만원
◆특 징 : 신축건물로 1억2천만원 투자를 했사오나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분납으로 드립니다.

◆위 치 : 충남 논산
◆부 지 : 3,000평
◆요 사 : 20평
◆가 액 : 1억
◆ 특 징 : 입주즉시 법회 가능

⊙ 본 도량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외 일반인, 무속인, 보살, 대리상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상담 : 080)512-4447 / 012)1648-6334 담당 : 조법사 합장

◆포교원 운영하실분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평 수 : 50평 3층건물(3층), 방 2개, 주방(주차유)
◇ 가 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시설완벽, 법회 및 의식 즉시가능
◆ 특징: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 밀집지역 포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사찰안내(구옥)

◇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 평 수 : 약100평
◇ 터밭 있음
◇ 요사채 별도, 방 3칸, 주방, 전세 3천, 매매도 가능, 사정상 급매

0351)63-6735
011)271-2136
012)346-2136

◇ 사찰안내

◇ 위 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 대 지 : 437평
◇ 층건평 : 83평(방 11개) 법당(27평), 사무실(15평) 요사채 41평(방4), 주방, 화장실
◇ 가 액 : 4억 5천만원
◇ 특 징 : 발전요충지의 명당

(부동산사절-직접면담)
0331)32-4999
012)925-6118

◆ 사찰 안내

◇ 위 치 : 충남 천안 목천 IC에서 20분거리(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 대 지 : 267평
◇ 건 평 : 30평 1동, 20평 1동, 산신각(방5개)
◇ 가 격 : 6천 5백만원
◇ 특 징 : 조용한 산속 기도도량. 완전 포장도로, 천안서 버스 4회운행
◆ 단, 스님에만 한함

0417)554-8216
015)4414-8242

◆ 사찰 급 안내

◇ 위 치 : 전북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523번지
◇ 평 수 : 81평
◇ 건 평 : 30평
◇ 가 격 : 3,500만원

0655)33-1359

◆ 사찰안내 사정상 급합

◇ 위 치 : 포천일동 온천관광단지 부근
◇ 사찰용지 : 372평
◇ 건 평 : 57+33평
◇ 양도가 : 1억 3천만원
◆ 97년도 신축국망봉 강씨봉산맥 천연계곡집

02)646-2365
011)228-8092

◆토굴 사정상 급히 팝니다.

◇ 위치 : 경기 용인
◇ 대지 : 416평
◇ 건평 : 15평
◇ 가액 : 5,300만원

스님께서 유학을 급히 가게되어 양도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357)31-8736
011)284-5101

부다피아 쇼핑몰

buddhapia shopping 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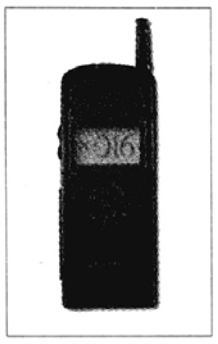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 016 특별할인 한정판매

SPH 2000 **30대 ₩150,000** (가입비 포함)



- 크 기 : 129×51×24.3mm
- 무 게 : 154g(소형배터리 사용시)/플립형
- 통화시간 : 밧데리 M200분/L300분
- 대기시간 : 밧데리 M55~70시간 /L85~115시간
- 특 징 : 다양한 색상 음성인식 다이얼링
- 색 상 : 검정색

※ 우송료 별도(₩5,000)

SPH 3100 **20대 ₩230,000** (가입비 포함)



- 크기 : 114×50×22mm
- 무 게 : 109g(중형배터리 사용시)
- 연속통화시간 : 밧데리 M130분 /L240분
- 연속대기시간 : 밧데리 M35~45시간 /L65~75시간
- 색 상 : 검정색

※ 5만원상당의 매직프리이어폰 교환무폰 제공
※ 우송료 별도(₩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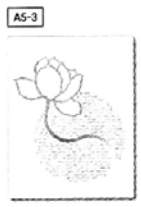
PCS폰 분실보험 무상가입
★ 분실, 화재, 도난시 삼성화재 보험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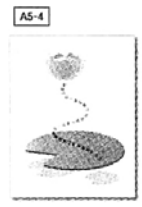
A5-1



A5-2



A5-3



A5-4

불교디자인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쓸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격 : 아동용 ₩ 5,500
성인용 ₩ 6,500 / 9도 칼라 인쇄



법성게 걸망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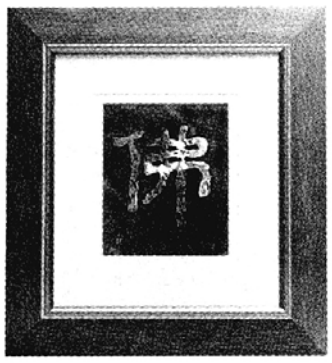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촘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 선택사항 : 수공예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A8-1



오보크린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비듬,무좀등의 피부병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비누입니다.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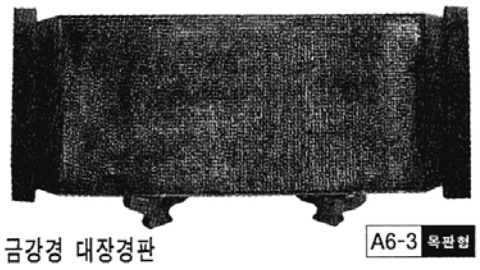


골동품형 A4-1 / 개금형 A4-2 / 브론즈코팅형 A4-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 580,000 (개금)



A6-3 목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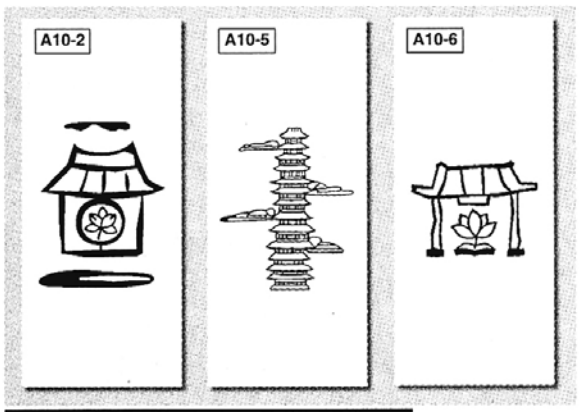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경판받침



A10-2 / A10-5 / A10-6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11-1



A11-2

다포

가격 ₩ 800 / 기장 50㎝ 폭 39㎝
재질 : 면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 질 : 면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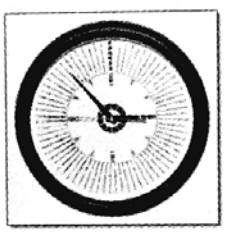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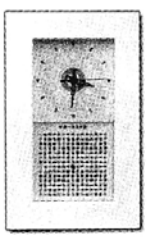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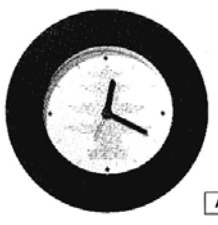




A3-3



A3-1



A3-2

사각링 벽걸이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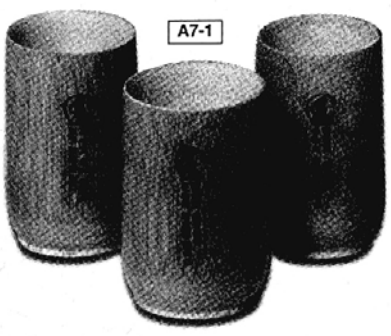
화엄경 약찬게 , 보왕삼매론 경전 문구 디자인 100개 이상 주문시 원하시는 경전 및 문구를 넣어 드립니다.
가격 : ₩ 13,000

사각 그림 벽시계

색상 : 청색, 흰색
크기 : 200(가로) 320(세로) 45(두께)㎜
특성 : 하단부분 화엄일승법계도 및 법성게 경전문구 디자인
가격 : ₩ 11,000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벽걸이겸용)

색상 : 군청, 노랑, 빨강
크기 : 160(가로) 160(세로) 45(두께)㎜
특성 : 심플한 모양의 다양한 칼라와 탑 모양의 반야심경 한글 및 한자 내부디자인
가격 : ₩ 10,000



A7-1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줄 인쇄이며 10자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A9-1

단주 열쇠고리

A9-2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 가격 : ₩ 4,000

"호연지기 배우며 부처님 만난다"

새싹불자들이 고대하는 여름방학. 에버랜드에서 열리는 부다피아캠프 등 다채로운 여름 캠프가 어린이 법우들을 기다린다. 각 단체 사찰 등에서 준비하는 여름 캠프는 학교생활에서 맛볼 수 없던 호연지기와 불법의 향연으로 펼쳐진다. 어린이 법우들의 신행점검과 신나는 캠프의 즐거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새싹불자를 위한 신나는 여름캠프

부다피아캠프 심신수련 · 불교문화체험 중점
숲속창조학교 다도 · 전래놀이등 전통문화 만끽
연꽃어린이캠프 인형극 '부처님세계' 동심 초대

현대불교신문사가 올해 문을 연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는 23일~25일까지 2박3일간 사찰문화 답사를 통한 심신수련과 에버랜드에서의 각종 놀이를 하며 공동체 정신 등을 함양시킨다. 첫날은 조계사에서 출발해 수원 용주사, 여주 신륵사, 이천 목아불교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불교문화유적답사 시간으로 마련된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불교동화'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둘째날에는 용인 와우정사에서의 불교퀴즈대장경을 통해 교리실력을 뽐낼 수 있다.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서 신나는 물놀이,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공룡전, 동물원 관람, 캠프화이어까지 숨찬 하루가 펼쳐진다. 셋째날에는 아미타전과 로즈가든을 관람한 후 페스티발월드에서 신나는 오후를 보내고 회향식을 마지막으로 내년을 기약한다. 2박3일 동안 펼쳐질 부다피아 캠프의 동참금은 5만원, 선착순 5백명만 참가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포교회의 제5회 연꽃 어린이 여름 캠프 '부처님과 함께 동화나라로'는 21일~23일까지 남양주 동원정사에서 열린다. 초등학생 3백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연꽃 캠프는 인형극으로 마련하는 불교이야기 '편안하고 아늑한 부처님 세계'를 비롯해 '공포의 세계' '물의 세계' '모험과 탐험의 세계' '불꽃의 세계' 등으로 꾸며진다.

새벽문화학교의 숲속창조학교는 단체참가만 가능한데 7월25일부터 8월23일까지 1박2일, 2박3일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숲속창조학교에서는 한복을 입고 생활하며 발우공양, 다도, 단전호흡, 민속놀이, 신라문화유적 답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선재연구모임에서 마련하는 선재전래놀이 여름절살이는 다른 캠프와는 달리 사찰에서 생활하며 시간의 구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전래놀이를 즐기며 사찰생활을 배우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1백여명을 대상으로 백담사에서 전래놀이와 함께하는 사찰생활을 만끽해 볼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여름 어린이 캠프

단체	행사명	장소	일정	연락처
현대불교신문사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신륵사 · 에버랜드	7.23~25	(02)732-1523
목동청소년회관	역사탐방 바다캠프	백제문화권 남해해수욕장	7.20~22 8.4~7	(02)646-6815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제5회 연꽃어린이 여름캠프	남양주 동원정사	7.21~23	(02)738-7860
선재연구모임	선재전래놀이 여름절살이	백담사	8.12~14	(02)493-7769
새벽문화학교	숲속창조학교	경주 새벽문화학교	7.25~8.23	(051)253-0933
봉선사	'98 여름숲속학교	남양주 봉선사	7.19~21	(0346)68-1951
선암사	제1회여름숲속학교	부산 선암사	7.24~26	(051)803-7573
은석초등학교	연화어린이 수련회	직지사	7.17~19	(02)216-0184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세부일정

시간	첫째날(절)	둘째날(에버랜드)	셋째날(에버랜드)
08:00~09:00		기상, 세면, 랄랄라 불교레크리에이션, 체조	
09:00~10:00		아 침 공 양	
10:00~11:00	등록접수(조계사)	행복해요 불교나라2	신나요 불교나라4
11:00~12:00	입제 및 발대식	용인 와우정사, 불교퀴즈대장경	아미타전 관람
12:00~13:00	자 떠나자! 부다피아로	재밌어요 불교나라3	로즈가든 관람
13:00~14:00	점 심 공 양		
14:00~15:00	용주사 신륵사 목아박물관	민거나말거나박물관, 세계문화재컬전관	페스티발월드 이용
15:00~16:00		캐리비안베이(수영장) 이용	
16:00~17:00			
17:00~18:00	반가워요 불교나라1	공룡전, 동물원 관람	회향식
18:00~19:00	저 녁 공 양		
19:00~20:00	저 녁 예 불		
20:00~21:00	그룹별 윤회만남	장기자랑 및 캠프파이어	내년에 만나요. 성불하세요!!!
21:00~22:00	조별 지대방		
22:00~23:00	세면 / 정리 / 참선		
23:00~24:00	달콤한 꿈나라로…		

〈문의 (02)732-1523〉

건강 365일 〈25〉 시호(柴胡)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옛날 어느 마을에 호씨성을 가진 구두쇠 진사가 살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호진사댁 머슴 이만이 병이 났다. 병이 난 이만은 오한, 구역질이 나타나며 삭신이 쑤시고 먹지도 못했다. 학질이란 병이었다. 호진사는 약값이 새경보다 더 들 것같아 내보내기로 작심하고 이만을 불렀다.

"오늘부터 너를 쓰지 않겠으니 우리집을 나가거라."

"저는 천애고아로 오갈데가 없습니다"며 이만은 사정을 했지만 호진사는 그것은 네 사정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기를 재촉했다. 그동안 소처럼 부려먹고 병이 드니 이렇게 쫓아내나 하는 생각에 이만은 서럽기 그지 없었다. 호진사는 며칠 동안만이라도 몸조리를 하고 오면 될 것 아니냐며 새경 몇푼을 쥐어주고 이만을 내보냈다.

삭신이 쑤시고 먹지도 못한 이만은 얼마 못가서 어느 연못가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렸으나 기운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풀뿌리를 캐서 먹으며 그렇게 연못가에서 지낸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열도 내리고 춥던 것도 없어지고 움직일 수가 있었다.

병이 나은 이만은 다시 호진사 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얼마의 세월이 흘렀다. 인과응보인지 호진사의 외아들이 바로 이 병에 걸렸다. 호진사는 외아들인데 잘못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당황했다. 그때 이만이 생각났다. 호진사는 이만을 불러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만은 호진사를 그 연못가로 데려가 당시 먹었던 풀을 보여줬다. 호진사의 외아들도 이 풀뿌리를 먹고 거뜬히 나았다.

학질 · 두통 · 오십견 등에 특효
사물탕에 8g 넣고 달여 복용

감기균이 쓸개로 들어가면 학질등이 오며 편두통이나 입맛없음, 만성위염 등을 일으킨다. 대변도 고르지 않고 특히 견비통(오십견)이 생겨 어깨가 무겁고 결리며, 팔꿈치 통증, 손가락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이 생기고 발가락에 쥐가 나기도 한다. 이럴 때 시호를 달여 먹으면 효과가 탁월하다.

복용법 사물탕에 시호 8g을 넣고 달여서 하루 두 번 복용한다.

"나의 적성 · 공부법 찾아줍니다"

자신의 성격 · 흥미 · 적성 등을 파악하고 이해해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다.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여름방학을 맞아 심리검사, 학습방법향상 프로그램등 다양한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학습방법향상 중학교 1 · 2학년을 대상으로 총 12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적성 · 성격 유형 검사, 장래희망 발표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중력 향상, 시간관리, 올바른 독서방법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 접수는 3일부터이며 강의는 20일, 22일, 27일, 29일, 8월3일, 5일 오후 3시~5시까지이다.

목동청소년회관 방학프로그램 운영
자기표현 훈련도

자기표현 훈련 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통해 원만한 학교 ·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훈련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검사와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과 6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두가지가 있다. 중학생 자기표현훈련은 학교 폭력, 자살등이 만연하는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감정표현법을 가르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20일부터 8월29일까지 주 2회, 모두 8회에 걸쳐 실시된다.

초등학생 대상 훈련은 20일부터 주 2회 1시간동안 실시하는데 연령별로 나눠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을 온화하게 하는 연습을 통해 대인관계와 적극적이면서도 부드러운 감정표현법을 가르친다.

심리검사 만5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사가 가능하다. 지능 · 성격 · 적성검사 등의 세가지 코스로 나눠 검사가 진행된다. 매주 월~토요일에 마련되는 지능 · 성격검사는 미리 예약을 해야하며 검사비는 상담료를 포함해 각 1만원이다. 검사는 50분~90분이 소요되는데 특히 진로적성검사는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8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 등 세 차례에 걸쳐 마련된다. (02)646-8341

과학탐방 · 도덕회복 강연 '눈길'
청교련 대전지부 여름방학 특별학습

봉사활동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청교련 대전지부 자원봉사센터(지부장 종실스님)가 준비하는 특별 프로그램은 도덕성 회복 강연, 청소년 문화학교, 과학탐방, 자원봉사 체험학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도덕성 회복 강연은 증학생을 대상으로 7월25일 열리는 오영재 교수(한서대 교양학부)의 '미래와 청소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19일에 강의하는 이창식교수(한서대 사회교육원장)의 '호두껍질 속의 세계'와 8월23일에 강의하는 안권순교수(한서대 청소년학과)의 '청소년과 건강'으로 평송청소년수련원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문화학교는 7월29일부터 31일까지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열린다. 과학탐방은 대전시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원(8월3일~5일), 자원연구소(8월6일,7일,10일), 표준과학연구소(8월11일~12일) 등에서 시설견학 및 기초과학비디오 관람과 주변환경 정화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 체험학습은 자원봉사에 대한 소양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을 유도하는 교육과정으로 중학생은 8월13일~14일, 고등학생은 8월18일~19일 양일간 실시된다. (042)488-0732

단 신

관음사 법웅사학생회 결연

청주 관음사 학생회와 원주 법웅사 학생회는 6월28일 원주 법웅사에서 자매결연식을 갖고 앞으로 동 · 하계 수련회 공동 개최, 연합법회 등을 봉행할 것을 다짐했다.

약물남용 근절 캠페인

청소년교화연합회 진주지부(지부장 김기원)는 '98 진주시 6월 청소년 어울마당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행사를 6월28일 진주 차없는 거리에서 개최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으로 시작해 약물남용 근절 가두 캠페인을 벌여 성황을 이뤘다.

어머니 환경감시단 교육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어머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을 6월23일에 가졌다.

어머니 환경 감시단 교육은 △유해환경 감시단의 역할과 활동 △청소년 심리와 이탈지도 방안 △선체조 △자녀들의 올바른 성문화 △자녀와 학부모의 역할 등으로 진행됐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및 편입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7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 화 불 교 대 학

♣ 불/자/정/보(사찰) ♣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인중개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토굴, 절터 별장터(5천만원)
● 설악산 봉정은 봉황의 머리, 횡성의 봉복산은 봉황의 배, 봉황의 꼬리인 봉미산 두계곡 만나는 부처꼴, 정남향 일출일품, 전망일품, 청정지역.
● 암벽약수, 2층 황토토굴.
● 길 · 전기 · 전화 有
● 전 : 470평. - 잠실에서 1시간 20분 소요.
0338)71-7745

◆ 사찰 양도받으실 분
◇ 위치 : 부천역서 5분거리산속에 위치
◇ 부지 : 1천평
◇ 법당 25평, 요사채(小) 9평, 산신각
◇ 평수 : 2층건물 100평 ◇ 가격 : 상담후 절충!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미륵불 · 석등 조성되어 있음.
011)281-3256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입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불자 세상보기


◇사이버 가수 '아담'.


◇채널I 사이버 여가수 '사이다'.

사이버 인간 허상인가 신인류인가

인간성 상실-우상주의 만연 등 우려
자비넘치는 '사이버스님' 탄생 기대

2000년 음력 4월 초파일, '사이버 달마스님'이 봉축대법회에서 화면을 통해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達摩西來意)'을 설한다. 이날 불교TV에서는 '사이버 선재동자'가 '특집영화 화엄경'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연기를 펼친다. '부다피아' 등 불교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저마다 '사이버 스님'들이 봉축가요를 발표하거나, 불교성지를 동화상과 함께 소개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펼쳐질 사이버스님들의 활약상이다. 최근 사이버가수 '아담'과 '류시아'에 이어 사이버대학생 '라이언(경희대)'과 '스노우(숙명여대)', 사이버딜러 '새출발' 부부 등 컴퓨터 그래픽으로 탄생한 '사이버 인류'들이 잇달아 탄생하고 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터넷 가상공간을 뛰어넘어 현실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사이버스님이 활약할 날도 멀지 않은듯 하다.

사실 이런 사이버인간들은 '인간의 애욕을 응축한 허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이버스타들은 10대 소녀들이 좋아하는 여러 스타의 매력 포인트를 짜닷춰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相)의 조합'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셈이다.

조만간 사이버 애인을 두고, 사이버 섹스까지 하는 시대가 닥치리라고 한다. 박상희 대중음악연구원장은 "사이버 인간의 증가는 골치 아픈 '인간관계' 대신, 컴퓨터가 그려내는 '가상 천국'에만 탐닉하는 냉혈인류를 탄생하게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사이버 스타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음란·선정성에 대한 규제가 없다', '또다른 스타 중독증과 우상주의를 만든다', '청소년의 인간성 상실이 우려된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세계는 서부개척시대 미국과 같은 기회의 땅이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중요하다"는 박종만 아담소프트사장의 말처럼, 사이버세계가 갖는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사이버인간은 고도의 동영상기술이 요구되는 첨단과학으로서 IMF관리체제를 돌파할 수 있는 벤처산업의 선두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쌍방통신으로 영상과 음성을 활용한 다양한 재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가능케 하는등 긍정적인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잘만 활용하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실현하는 또 다른 불국토의 가상인류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목회와 신학〉 2월호가 "한국교회가 사이버세계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불교계도 사이버세계의 포교전략을 세울 때다. 자비심 넘치는 법음을 전할 사이버스님의 탄생이 기다려진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가상세계도 불국토로"

"인연으로 이루어진 온갖 현상은 꿈이랴, 허깨비랴, 물거품·그림자들. 응당 이러히 보아야 하리."〈반야경〉 가상공간의 사이버인간은 꿈과 같은 현상세계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허깨비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신망 속에서는 존재하는 '가상 인간'은 '비유비무(非有非無)'의 허망한 인간의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타에게 환호하는 것은 "견고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니 이는 절대적 경지의 것이 아니매 즐길 것이 못된다"는 〈살발다경〉의 말처럼 허망한 일이다. 하지만 꿈같은 가상세계도 청정불심으로 창조해 간다면 또다른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 기존 사이버인간들이 인간의 덕성보다는 피상적인 외모에 치중하는 단점을 보완해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 원만구족한 불교적 인간상을 창조해 사이버불국토를 장엄해 나가야 한다. '부다피아' 조원희실장은 "사이버스님을 만드는 것은 포교전략상 필요하다. 불교적인 콘텐츠(내용)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55개의 대표적 부실기업이 드디어 시장에서 강제로 밀려나게 됐다. 이번 '6.18 퇴출'은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경쟁력이 없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결국 시장퇴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퇴출기업에서 발생할 실직자는 물론 유관 중소기업의 도산에 따른 2차적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실직자들의 생계보호와 조기 재취업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도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재기의 의욕을 다져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는 고인(古人)들의 명언처럼 용맹정진의 자세를 갖는다면 실업의 고통을 이겨내고 IMF 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再起 "끝없는 정진 앞에 좌절없다"

▨용맹정진하여 온갖 악도에 떨어뜨리는 여러 번뇌를 없애며, 용맹정진하여 무지의 산을 무너뜨리며, 용맹정진하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해 싫증을 내지 않으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장애의 산을 파괴하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고생을 교화해 완성시키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미화한다. 이런 방편으로써 중생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화엄경〉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큰 강물에 자기 몸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하자. 그는 필시 강물을 건너가기 위해 큰 노력과 큰 정진을 할 것이요, 이런 큰 노력과 큰 정진 때문에 꿈에서 깨어날 것인데, 일단 깨고 나면 지금까지의 행위가 다 그치게 될 것이다. 〈화엄경〉

▨이를테면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니, 마치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다. 〈유교경〉

▨게으름은 온갖 악의 근본이요, 게으르지 않음은 온갖 선의 근원이다. 〈열반경〉

▨이를테면 큰 바다도 한 사람이 말로 헤아려 무한한 시일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그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지심(至心)으로 구도하여 정진해 마지 않을 경우, 무슨 구함인들 얻지 못하며 무슨 소원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대아미타경〉

▨이를테면 위대한 영웅이신 세존께서는 생사의 무거운 짐을 버리시고 부지런히 수행해 좌절하지 않음으로써 빨리 보리에 이르셨다. 〈부자합집경〉

▨이를테면 보살은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해서 무량겁에 걸쳐 근행정진(勤行精進)하여 목숨을 안 아끼면서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야 더없는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육바라밀경〉

▨이를테면 보살은 중생의 몸과 마음이 게을러 정진에서 멀어져 있음을 본 까닭에 정진의 갑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한편,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노력 정진케 하느니라. 〈수호국계주경〉

화해의 '통일소'-반목의 '잠수정'
"상호 인내는 평화"

'통일소'와 잠수정 사건은 한편에선 협력과 화해, 한편에선 긴장과 반목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두 얼굴이었다.

북한 잠수정이 속초 앞바다 영해에 들어왔다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군 당국에 끌려온 사건은 국민을 두번 놀라게 했다. 공교롭게도 6월23일은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를 전한 날이었고, 유엔사와 북한 사이에 장성급 회담이 재개된 날이었다. 또한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는 100여명의 외국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도 열렸다.

정부의 '햇볕정책'이 모처럼 결실을 맺고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려는 때에 찬물을 끼얹듯 발생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은 국민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자 한반도의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적 대치상태에서도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남북의 엄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는 〈섭대승론〉의 가르침이 남북한 평화론의 요체가 될 것이다.

김재경 기자

"생명복제는 인간존엄성 위협"

진교훈교수 불교환경교육원 강좌서 주장

"유전자재조합은 돌연변인 생물체의 확산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자연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격한 감시와 예방책의 강구가 선결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생명체의 정체성(正體性)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서울대 진교훈교수(국민윤리학)는 6월19일 불교환경교육원이 주관하는 생명운동아카데미 강좌에서 '생명복제 시대의 생명윤리'란 강의를 통해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진교수는 '인조염색체 합성'과 관련, "인조염색체는 조물주의 권한인 인체설계도까지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2005년경 인체게놈사업에 응용되면 지능과 성격이 우량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임의로 만들어 내는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교수는 또 "인간복제는 '천부적 인권파괴', '인간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인간복제는 소·돼지 등 동물의 복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인간복제가 허용된다면 △인간(특히 남녀) 상호의 존성의 파괴로 사회가 와해되고 △인간의 유일성과 대치 불가능성이 사라져 인간의 상품화가 야기되며 △인간의 정체성·자발성이 상실되고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환경시계 '9시4분'

유네스코, '인류생존위기' 경고

환경재앙은 인류의 생존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을까.

유네스코 본부가 일본의 환경단체 아사히 가라스재단의 조사를 토대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류멸망 시점을 12시간 단위의 12시로 볼 때 현재의 지구상태는 9시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6월 22일 밝혔다.

세계 9개 대륙 613명의 환경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는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전혀 불안하지 않음'(0:01~3:00), '약간 불안'(3:01~6:00), '상당히 불안'(6:01~9:00), '극히 불안'(9:01~12:00)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나타난 9시4분은 인류생존이 위기의 최후단계인 '극히 불안'의 초기에 해당한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선진국은 개도국에 환경보전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경 기자

새상품 종무·신도관리 '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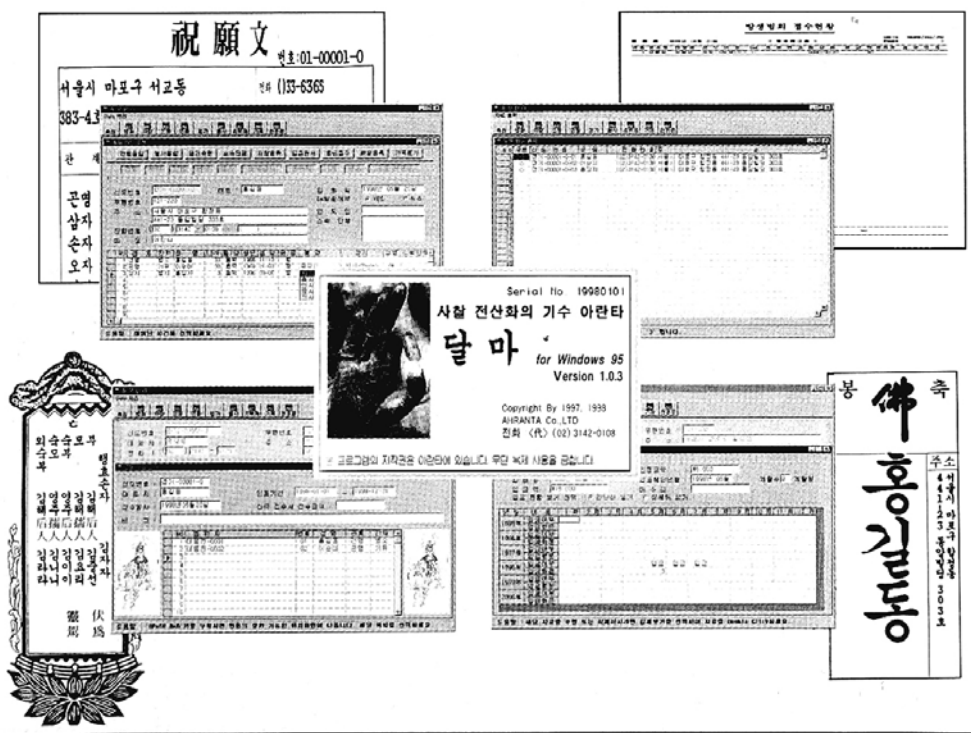
기존 도스용 종무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한 WIN95용 프로그램 '달마.' 사찰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전산화해 준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통신 프로그램 'A/S박사'로 전국 어디서나 3분이내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란타. 가격 150만원. (02)3142-0108



해낸 일보다 남은 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찰 전산화의 선두주자 아란타

신도관리 전산화 이젠 문제없습니다.

아란타에서 개발한 달 마 for win 종무관리 시스템



어렵게만 느껴지던 컴퓨터 이제 자신있게 시작하세요!

Windows 버젼 출시 기념 할인판매

사찰관리 프로그램 전문업체로서 10여년 동안의 노하우로 개발한 프로그램 달마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한 Windows95용 종무관리 시스템」

불교계 전산화의 일꾼으로 만들어진 아란타 종무관리 프로그램」

달마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도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출력물(축원문, 위패, 등표…)은 스님의 만족도를 한층 더높일 것입니다.

■ A/S는 자체개발한 통신프로그램으로 전국 어디서나 3분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AHRANTA

스님께서 키워가는 기업 아 란 타

삼일사이(3142)에 컴퓨터의 백팔(0108)번뇌를 해결해 드립니다.

· 고객 지원 센타 ·
☎ 02)3142-0108

* 21세기 사찰 전산화를 이끌어 가는 준비된 기업 아란타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1-23 동암빌딩 303호 · TEL : 02)3142-0108 · Fax : 02)3142-2329

시론

스포츠 광신 '유감'

월드컵 축구가 한국을 점령했다. 사람들은 밤잠을 안자고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경기의 텔레비전 중계에 열광하고, 또 탄식하고 있다.

지역예선에서 본선진출권을 확보했을 때 영웅이 됐던 차범근감독은 멕시코에 3대 1패, 네덜란드에 5대 0패하자 그순간 '대역죄인'이 됐다.

도에 넘치는 축구열기
마치 경제회복 척도인양

16강 진출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우쭐했던 한국사람들은 그것이 좌절되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분노하고 어깨가 쳐졌다. 16강 진출만 하면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우쭐댈 것 같더니,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나라가 망한 것처럼 풀이 죽는걸 보니 애국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정경회 〈언론인〉

하기야 4년전 '미국 월드컵'에서 자살골을 넣은 콜럼비아 대표팀의 수비수 에스코바르는 귀국한 뒤 총을 맞고 죽었다. 16강 진출실패에 분노한 괴한들이 그에게 자그마치 12발의 총탄세례를 퍼부었다. 이쯤 되면 축구를 섬기는 신흥종교의 광신도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애국심에 불타는 애국자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88년 서울올림픽 이래 스포츠를 내세우는 애국운동이 국민을 다그쳐왔다. 전두환정권, 그리고 권력의 편에 섰던 자칭 지식인·전문가들은 "올림픽을 치르면 선진국이 된다"고 선전했다. "일본이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 "수조원의 흑자가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88년 올림픽에서 흑자를 올렸다거나, 2002년 월드컵에서 흑자가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호들갑은 믿을 게 못된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경기장 건설비는 슬쩍 빼고 계산한 흑자이기 때문이다. "경기장은 어차피 지어야 될 고정시설이니까"라는 게 그 이유다.

그나마 지금 한국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는 프로야구건 축구건 자기자신의 발로 뛰는 스포츠가 아니다.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는 스포츠'다. 그것도 텔레비전으로 보는 오락이요, 구경거리라는 뜻에서 '쇼'다. 인기가수가 나타나면 괴성을 지르고 몰려드는 10대들의 광기나, 어른들의 축구열기나 비슷한 '대중문화현상'이다.

미국에서는 스포츠를 가리켜서 '신흥종교'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있다. 특히 올림픽에서는 스포츠가 민족주의 그리고 정치와 혼합돼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스포츠에는 정치가 개입해 왔다. 전두환정권은 프로야구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마비시키려 했고, '88 올림픽'이라는 구호로 정권을 유지했다. 김영삼정부도 일본과 함께 월드컵축구를 공동 유치해 놓고 벼슬이나 한 것처럼 우쭐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부도가 났고, 세계에 '구제금융과 투자'를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축구에 이겼다고 거덜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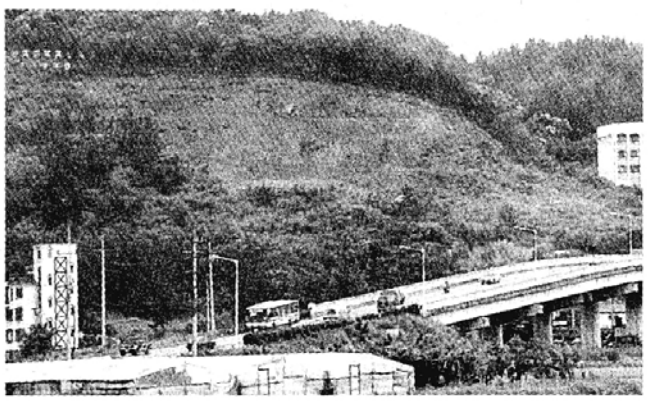
스포츠란 이기면 좋고, 진다 해도 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해보지도 않고 16강 진출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김치국을 마신 사실이 창피하다.

그 옛날 로마사람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겐 '빵과 서커스'만 주면 된다고 했다. 배불리 먹이고, 서커스구경을 시켜주면 복종한다는 '우민(愚民)정치'다. 지금 우리가 미쳐버린 '보는 축구'도 '서커스'에 해당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설익은 애국심' 경계해야

부처님은 "여러가지 흉악한 놀이와 서로 찌르고 치거나 씨름같은 갖가지 변덕스런 놀이를 가까이하지 말라"고 이르셨다(법화경 안락행품 제14). 또 "바둑·장기·노름·투호(投壺)를 가까이하지 말라"고 이르셨다(열반경 고귀덕왕보살품 제10의 5). 속칭 '주색잡기'의 '잡기'를 경계하셨던 것이다.

스포츠라는 이름의 '신흥종교'를 경계하고,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설익은 애국심'에 도취해서도 안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게 우리의 현실이다.





◇'98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경주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다. 사진은 행정소송 마찰을 빚고 있는 선도산 병원부지(왼쪽)와 경주 남산의 이미지에 전혀 맞지않은 흉물스런 교도소 입구.

열린마당

경주 보존과 개발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가 각종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유적지는 아파트와 쓰레기매립장으로 바뀌고, 자연환경은 도로확장과 병원건설로 흉측하게 변해 버렸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주 남산은 산불이 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들의 개발욕구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경주의 문화재 파괴현장을 돌아보며, 경주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천년문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정재훈 〈문화재위원〉



경주에 가본 사람들은 역사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채 고도의 이미지에는 맞지 않은 아파트 등 현대식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데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경주는 도시개발과 문화유적의 보존정책 사이에 심각한 갈등현상을 빚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을 제일주의로 하는 도시개발의 근시안적 정책 속에서 문화유적 보존정책은 당연히 지역민의 빈곤만을 강요하는 장애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새로운 창조의 모태로서 무한한 경제적 자산임을 깨달아야 한다. 발전의 걸림돌로만 보이는 문화유산을 경주시민의 눈에 자랑스러운 자존심이 되고 세계를 향한 문화시장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고도에 대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가나자와市가 제정한 '전통환경보존 조례' 등을 마련하거나 영국처럼 보존지구나 도시전체를 지정하는 '고고학적 중요유적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영국은 문화유산의 보존지역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의 보존정책이 수립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짐으로 지정을 선호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상 불이익이 없게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등을 전면 면세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역사보존-개발이익 공존지혜 내야

김영종 〈경주발전협 회장〉



경주의 지역문제는 궁극적으로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선택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사람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논리를 근거로 경주도 다른 지역과 같이 지역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경주가 많은 문화유산을 담고 있어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는 보존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기에 지역적으로 너무나 광대하다. 잘못된 개발억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빈곤감 또한 너무나 짙다. 한 예로 경주시는 도시계획상 고도지역 미관지구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다가 개발공사시 건축주에게 발굴비용까지 전액 부담시켜 왔다. 경주시민들은 재산권보호와 체계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역사적 고도 로마나 파리에도 오래된 건물과 문화유적을 철저히 보호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대식 고층빌딩이 들어선 지역이 존재한다. 과거의 역사보존과 현대문명이 하나의 도시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도 두가지 정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역사도시에 걸맞게 지역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나 현대의 공존이 경주발전을 위한 기본적 행정철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적 보존 … 주민 피해 최소화

해답은 고도보존법

고도 경주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문화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도보존법은 경주 부여 등 유서깊은 역사도시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달리 옛도시 전체와 주변환경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해당지역의 신·개축, 택지조성 등 고도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 보존특별지구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도시 건설, 세금감면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도보존법에 대해 문화계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외국의 사례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정부의 재정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고도보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경주 문화재 파괴현황

■ 천군동 확장공사=경주에 가본 사람이라면 보문호를 끼고돌아 감포로 이어지는 천군로(보문교삼거리~보불로삼거리·5km)의 풍광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같은 정취를 느낄 수 없다. 문화엑스포의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차선인 천군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서 도로 주변을 마구 파헤쳤기 때문. 도로를 따라 시원스레 조성됐던 숲은 베어지고 통일신라 전성기의 쌍탑이 남아있는 천군동사지는 금당지 등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전조사없이 공사가 강행돼 호반도로의 정취는 사라지고 문화재의 훼손또한 심각하다.

■ 동천동 고층아파트=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속히 개발붐을 타고 있는 경주는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市)가 오히려 문화재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동천동. 원래 군부지였던 이곳을 불하받은 경주시는 신라고도의 유적이 불과 10m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파트 부지로 (주)우방에 매각, 경주 왕경의 범위를 밝힐 수 있는 문화유적의 파괴를 초래했다.

■ 선도산 병원건립=산 정상에 거대한 마애삼존불이 있는 등 신라 천년의 유적이 즐비한 선도산의 등산병원 건립건은 계명대가 문화재관리국을 상대로 낸 '경주 선도산 발굴불허처분 취소소송'이란 웃지 못할 헤프닝으로 번졌다. 문화재위원회가 '선도산에 건물을 짓는 자체가 문화유산 파괴'라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축'이라 맞서는 당당한 계명대의 태도 뒤에는 시 개발을 위한 재정확충이란 명목으로 이곳을 매각한 경주시의 무분별한 개발논리가 깔려있다.

■ 경주남산=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적의 보고 경주남산은 지난해 입은 산불로 심하게 앓고 있는데다가 흉물스런 교도소까지 자리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유네스코 실사단이나 문화엑스포 때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천할 지 의문이다.

제11회 까치마을 여름 수련대회 모집안내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래와 같이 가족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이란 심신을 수련하므로서 마음과 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과 이기주의로 나밖에 모르고 편하게 살려다 보니 윤리도덕은 사라지고 IMF라는 경제한파가 왔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과 협동심, 인내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나누어 주는 보시행(普施行)으로 공동체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자녀들의 심성(EQ)을 길러주는 수련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구분	대 상	일 자	인 원	회 비
1차	가 족	7월 24일~26일(2박3일)	50가족	1인당 20,000원
2차	청소년	7월 27일~30일(3박4일)	200명	1인당 30,000원

※서울 참가자는 단체로 출발 (교통비별도)

● 아 래 ●

■ 장 소 : 김천 복암연수원(직지사옆)
■ 대 상 : 1차: 일반가정 가족
2차:초중고생
■ 준 비 물 : 개인별로 쌀대(大)1되, 필기구, 세면도구, 양말5켤레, 모포, 수건5장, 손전등
■ 마 감 일 : 6월 30일 마감(수련회 당일은 접수가 안됨)
■ 행사내용 : 1차:불자로서 익혀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극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가족끼리의 대화의 시간 외 기초교리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2차:불자로서 익혀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극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발우공양, 미니올림픽, 찬불가, 참선의 실제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 접 수 처 : 까치마을 (02)873-6646~7 FAX: (02)873-6648
(우편:151-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391-9번지 지장사내)
■ 회비송금처 : 국민은행(812-21-0329-747:엄묵상)
실명이므로 송금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 기 타 : 연수후 기간중 공양을 해 주실 자원 봉사 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연수기간중 보조교사를 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강 사 : 법전스님(까치마을 촌장, 지장사 주지), 법명스님
황학헌(불교 교육 연구원 원장), 장덕수(불교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불교계사찰 및 어린이회 특가한시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스님과 선생님들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원가에 가깝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제품들의 이익금은 저희 까치마을에서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불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용 T ₩3,500원
초등학생용 노트 ₩ 400원

· 주문시기:6월 1일~7월 30일까지
· 주문방법: 전화로 주문후 온라인 송금하시거나 서울, 경기지역은 방문을 원하시면 방문후 주문받습니다.
- 까치마을(지장사) 전화:873-6646
- 혜일기획 전화:278-1681
- 장덕수 핸드폰:016-304-1681
· 담 당 자:법전스님, 장덕수
· 온 라 인:
- 국민은행 806-24-0129-284(예금주:장덕수)
- 한일은행 020-175515-02-501(예금주:장덕수)

※실명이므로 송금후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티셔츠는 300매 이상 주문시 기존 나와 있는 디자인의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인쇄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성씨대보총람 全4卷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읽기 어려운 한문족보를 대한민국 275성씨별 3,349본관별 대동보(大同譜)·세계보(世系譜)·파보(派譜)를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도록 한글 중심으로 집필.

1



※ 4×6배판 전 4권. 총 8,000여면
희귀원색자료 150여면 호화영구
소장본 정가(4권)480,000

- 特 長 -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상) 제1권】
●275성씨별 총설·시조의 연원·본관지연혁·세거지 변천사·집성촌
●파명록·단군왕조이래 201위(位)역대임금 존영과 업적을 칼라로 수록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하) 제2권】
●원형그대로의 옥새와 마패등 유물 칼라로 수록·벌열·종문행례
●세계표, 항렬표, 역대인물고, 성씨별 인구분포도·현대인물선·묘원사원, 서원, 명당, 정려, 행의문과 소재지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 제3권】
●역대위인 3,000여 위(位)존영·400여 독립유공자 존영과 투쟁사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 제4권】
●시조, 중조, 파조, 선조 영정·성씨 본관별 세계표와 묘소, 제우
●효자각, 열녀문, 신도비, 묘비등 성씨별 유물과 유직지 등 칼라 집대성

책임감수 前충남대학교대학원 柳正基교수

2 全人教育의 教科書!

◆ 현대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줄 동양 古典의 精髓!
◆ 特 長
· 원문을 해독하기 업도록 모든 한자에 우리말 음(音)을 달아 초보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원문에 담긴 참학돈 깊은 뜻을 풀어 풍부하고 정확한 해의(解義)를 곁들였다
◆ 論語·中庸·大學·孟子·周易·詩經·禮記·春秋·書經·大辭典·故事成語



4×6배판 1,020면/정가 50,000원

◆수백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갈고 닦아온 문화민족의 위대한 유산

3 國內書道大典의 最高峰



◆ 特 長
· 당대와 당된(名筆) 金正喜선생, 阮元, 翁方綱등 한·중대서도가의 필적이 지닌 기운과 서예의 기본법인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수록
· 서도의 전수인 해서, 행서, 초서, 전서와 묵화 및 어보등을 집대성시켜 조보지침의 서도기법 장중에 귀감토으로 제작

구입방법
정 가 : ~~680,000~~
특별현금가 : 150,000
할 부 가 : 50,000×4회

☎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종단소식

조계종

경제난극복 기원법회

3·4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로 구성된 강원불교연합회(회장 도후·신흥사주지)는 10일 강릉 동해관광호텔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취임 및 경제난극복과 강원도민 화합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현해 월정사주지스님의 법어, 경제난극복 결의문 낭독,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흥사 보살계 수계식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7월20일 대웅전에서 전계대화상 석성우스님을 계사로 초청, 보살계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실직자 돕기 무료급식

총무원(원장 인곡) 사회부는 매주 토요일 탑골공원에서 실직자돕기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친다.

총무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백여명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활동과 더불어 실직자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글과 휴대형 관세음보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성흥사 청동삼존불 점안

군산 성흥사(주지 송원)는 청동 삼존불을 새로 조성, 7월3일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춘명 원로스님과 남파 전북종무원장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고 전북종무원 간부 스님을 비롯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천태종

도계 영락사 법당기공



강원도 도계 영락사(주지 덕진)는 6월 11일 총무원장 운덕, 사회부장 문덕, 감사위원 법산스님을 비롯해 김일봉 삼척시장, 김성용 도계읍장 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회가 평화롭고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 종도 모두의 신앙좌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법당 신축불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변함없는 신심과 노력정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천 금강사 창립21돌 법회

김천지회 금강사(주지 지도)는 2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5백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에 이어 독경대회,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해 신도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친분을 도모했다.

진각종

밀교문화대학 불적답사

밀교문화대학(학장 석봉)은 23일 6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적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불적답사지는 안산 칠정사와 용인 와우정사로 교도들은 사찰 곳곳을 돌아보며 사찰에 깃든 의미를 되새겼다.

서울교구 신교도 체육대회

서울교구 신교도 체육대회가 17일 강변에서 열린다.

6백여명의 신교도들이 참석하며 축구, 육상, 대동놀이 등은 물론 열띤 응원전을 통해 교도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어울 한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음종

법성사 국난극복 3사 순례

창녕 법성사(주지 법성)는 26일 국난극복 삼사순례를 다녀왔다.

금산사, 백양사, 선운사 삼사를 순례하며 경제난 및 사회문제의 소속한 해결을 기원한 이날 법회에는 2천여명의 신도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미타종

진신사리친견 만등불사

총무원(원장 권성우)은 총본산 봉암사에서 7월20일 운달을 맞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만등불사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미타종 창종 55주년을 자축하고 국운융창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되며, 권성우 총무원장이 봉행위원장, 사회부장 최법장 스님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올 불청대회 '외화내빈'

1천3백여명 참가 사상 최대 규모
문화행사 치중…위상강화 미흡
"청년불자 정체성 찾는 계기돼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가 6월20~21일 개최한 제17차 전국불교청년대회는 예년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처음으로 전통 사찰에서 모든 일정이 진행됐다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불자 작은 깨침, 사회 속의 큰 울림으로'를 주제로 전북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3백여명의 청년불자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국민회의 장성원의원, 관인희 김제시장, 세계불교청년회장 괄럽타이어리 등이 참가해 역대 어느 대회보다 큰 규모였다. 또 21일에는 7백여명의 청년불자들이 전주시내에서 'IMF 극복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강산에 등 대중스타들의 공연에만 치중한 전야제와 내빈 축사, 시상식 등 일반적 행사 진행을 탈피하지 못한 본 대회는 대불청 위상정립과 조직강화 등을 일궈내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불청대회 결의문 채택 과정은 이같은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환경보호 △다종교사회의 불교위상 강화 △북녘동포돕기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은 대회 기간 중 한차례의 토론도 없이 본 대회장에서 낭독 후 채택됐다. 서울불청회장 김인택씨는 "결의문은 대회 준비기간 중에 별다른 논의없이 마련됐기 때문에 실천강령 조차 없다"며 대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결의문임을 아쉬워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결의문 낭독 후에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또 이번 대회는 모든 일정이 처음으로 전통사찰에서 진행됐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대회 기간중 봉행된 불교의식은 삼귀의 청법가 법어 사홍서원 뿐이었다. 청년회원들은 "체육관 같이 닫힌 공간보다는 전통 사찰의 열린 공간이어서 좋았다"고 말하지만, "새벽예불과 같은 의식이 결여돼 신행단체의 대회가 단지 문화축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에서 진행한 만큼 새벽예불에 참여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21일 도법스님이 '생명위기 시대의 청년불자상'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치며 "청년불자들이 정체성을 찾고 창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불청대회를 기대한다"는 말은 대불청 회원들 모두에게 던지는 자각의 일침이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제17회 불청대회장인 금산사 경내에 입장하는 대불청 2개 직할과 15개 지구 기수들.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네팔 자활센터 '아침을 여는 마을' 착공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이 추진하는 네팔 자활센터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 건립공사가 6월 19일 카투만두 교외 현지에서 시작됐다.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 완공 예정인 자활센터는 건평 1백평 규모에 재봉과 목공예 등의 강좌를 개설, 매년 50명씩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네팔 주민들의 자활을 돕는 한편 무료진료, 한국-네팔 불교문화 교류사업도 벌인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관광지 26사찰 실직자에 관람료 면제

국도립공원과 국민관광지 내의 26개 합동징수 사찰들이 실업자 가족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은 26일 전국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실직자 가족에 대한 국립공원입장료를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국도립립공원과 국민관광지의 사찰을 탐방하는 실직자는 구직신청확인서나 생활보호대상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전국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먼저 입장료 면제방침을 세우고 뒤늦게 사찰측에 문화재관람료 면제를 권유한데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사찰의 결정을 종용하는 것은 일방적 행정"이라고 성토하고 추후 사찰관련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국립공원 입장료폐지의 조속한 실현과 농지법 개정규칙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될때까지 전국합동징수 사찰에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합동징수사찰주지회의는 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대원사 철불좌상 점안

충주 대원사(주지 법광)는 6월 18일 이시종 충주시장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불좌상아미타불(보물 제98호)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95년 중창불사도중 화재가 발생, 보호각이 소실돼 충주시립박물관에 임시 이운됐으나 충주시의 보조금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원위치에 봉안됐다.

김중근 기자

"전법 재가자는 포교사로 불러야"

송위지교수 월간 '법회와 설법' 서 주장

법사인가? 포교사인가? 조계종포교원이 발행하는 월간 〈법회와 설법〉 7월호에 부처님 말씀을 펴는 재가자의 호칭을 포교사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위지교수(외국어대 철학과)는 '법사인가 포교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함부경전을 근거로 "법사란 좁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며, 포괄적으로는 출가수행하는 스님들을 일컫는다"며 "법문을 하거나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포교사'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계종포교원이 발행하는 매체에서 재가자 호칭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재가자의 호칭으로 '법사'가 널리 쓰이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방송광고공사 폐지 안될말"

배기선 사장 밝혀…"벤처기업에 요금 할인"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배기선)는 6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방송광고공사가 광고영업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 자리에서 배기선사장은 "7월 중순부터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백87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요금을 정상 판매단가의 30%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외국 광고주 유치 전담팀도 가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폐는 불교방송을 비롯한 공중파방송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북불교대 학사이전 고승초청법회등 행사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새학사를 마련하고 27일 이전법회를 봉행한다.

전주시 삼천동1가 안행택지개발지구에 신축된 전북불교대학은 총건평 5백여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3층(대·소강의실, 사무실)과 4층(큰법당 회의실 대중방)을 사용하며 지하1층과 1,2층은 임대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2일부터 5일까지 신학사에서 '사찰음식 특별전'을 겸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개교 10주년을 맞는 전북불교대학은 이밖에도 고승초청법회, 학사이전 원만성취 특별정진, 학인작품 및 소장품 전시회 등 다양한 개교기념행사를 펼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성하출판 TEL : 273-4451~2 FAX : 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위산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대위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중용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爲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불국사안내 신도모임

구품연지

회원 30여명 일요일마다
가람배치등 자세히 설명

"불국사에 가면 '구품연지(九品蓮池)'를 찾으세요."

이 땅이 곧 불국토임을 가람배치로 표현한 대표적 사찰 불국사. 매주 일요일이면 불국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 곳이 '관광지'가 아닌 '부처님의 나라'임을 알리기 위해 경주의 불교문화와 불국사를 안내하는 모임이 바로 '구품연지'.

구품연지는 94년 지도법사 정법스님(동국대 한문학과 재학)이 부처님오신날에 일반신도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면서 비롯됐다. 신도들의 반응이 좋아 일주일에 한번씩 안내를 하게 되었고, 그후 96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과 신도들로 '구품연지'(회장 이순형, 월성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부장)를 구성했다.

정법스님은 "불자들과 관람객들 대부분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웅장함만 보고 돌아가기 일쑤"라며 "불교문화재 특유의 감명을 전해주고 싶어 안내에 나섰다"고 말했다.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사찰을 안내하기는 구품연지가 처음이며 유일한 모임이다. 학생들은 불국사는 물론 경주지역의 불교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신도들은 이를 토대로 공부를 한다.

1970년 복원 당시 잃어버렸던 청운교·백운교 앞의 구품연지를 복원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자는 원력을 담아 모임의 이름을 '구품연지'로 정했다. 97년부터는 3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 등 세차례 불국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국사를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안내도 곁들이고 있다.

"불국사 안내책자는 많지만 문화재와 연혁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무는게 대부분이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불국사가 곧 부처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을 찾는 사람들의 안내는 우리가 해야죠." 회장 이순형씨는 "다른 사찰에서도 이같은 모임을 만들어 불교를 더욱 알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법스님은 "불교적 가치보다는 문화재적인 가치만 높이 평가하면 사찰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가능한 불자들이 중심이 되는 안내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농지법개정 촉구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6월 25일 경주 불국사에서 회의를 갖고 농지법 개정을 위해 종단 집행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사주지모임은 또 국립공원 입장료폐지와 본사주지 등 종단 중진스님들을 징계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는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혜광스님(법주사주지), 중원스님(관음사주지), 성덕스님(동화사주지), 지선스님(백양사 주지), 법장스님(수덕사주지), 법등스님(직지사부주지) 등 7명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뉴스 & 뉴스

고운사 16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법조) 후임 주지 추천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6일 오후 2시 고운사 우화루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6월 25일 회의를 갖고 "제1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산중총회 일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판정, 고운사 산중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포교사고시 문제집 개정판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올 11월 시행될 포교사고시를 앞두고 최근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개정판을 펴냈다.

개정판은 95년판의 오답을 바로잡고 〈불교교리〉에서 문제를 신규 출제했다. 또 문제의 정답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입문서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성운 기자

5일 염불만일회 정토법회

전국염불만일회는 'IMF 극복과 민족 통일을 위한 전국염불만일회 정토법회'를 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동산교육회관에서 봉행한다.

5일 현장스님(전남 대원사 주지)의 법회를 시작으로 12일 해장스님(강원 건봉사 주지), 19일 설산스님(서울 정토사 조실), 26일 한탑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종교인협, 8·15사면 촉구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청화)는 6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인권협의회와 공동으로 8·15 양심수 및 장기수 대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종협과 인권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심수와 장기수의 대사면을 촉구하고, 8월15일까지 각 단체별로 사면촉구를 위한 서명활동 및 홍보물 배포 등의 일정을 발표한다.

도필선 기자

8·15통일축전 허용 '환영'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은 6월10일 북한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대표자회의 명의로 '8·15 통일대축전'을 제안해 온데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통일대축전 허용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불련은 "정부의 '8·15 통일 대축전' 허용방침을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며 "종교, 경제, 사회단체 대표들이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한 제반 논의와 접촉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불교의 대승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번 행사가 평화적으로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6·25 전몰장병 위령재
호국금강사등 전국 사찰서

6·25 제48주년을 맞아 전국의 각 사암은 전몰장병 고혼천도법회 및 보훈가족 위안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김상래)는 6월25일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민·관·군 불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6·25전몰장병 및 희생영령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영가천도재를 시작으로 위령대재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심원사지, 도피안사, 제2 땅굴, 월정리 전망대,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 사찰과 전적지를 순례했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6월 25일 6·25전몰군경 호국영령 왕생극락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를, 대전 한밭불교회(회장 원각)는 6월 25일 대전국립묘지 현충관에서 제6회 국태민안 세계평화 호국영령영산대법회를, 11군단 호국충열사(주지법사 강의중)는 6월 24일 군단내 대연병장에서 6·25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서울 노원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호명)는 6월 22일 상계직업전문학교 대강당에서 보훈가족 초청 위안법회를 실시했다. 7백여명의 보훈가족들이 초청된 이날 행사는 위안법회를 비롯 불자연예인 위문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에앞서 6월 19일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와 육군 57사단 호국용마사(주지법사 문병렬)가 '호국영령 전몰군경 천도 방생대법회'를, 6월 16일에는 법륜종(총무원장 혜우)이 대전국립묘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개최했다.

김중근기자〈gamja@buddhapia.com〉



◇6·25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들을 위해 창건된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는 6월25일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성보관리 '직접'

사찰별 조사 문화재 신청

개별 사찰의 비지정 성보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정신청에 조계종이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덕운)는 이달부터 홍천 수타사를 시작으로 국가지정 가치가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천왕상·범종 등 성보 4점을 확인, 문화재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개별사찰에 대한 조계종단 차원의 성보조사와 지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계종이 성보문화재에 관한한 창구를 단일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관리소홀로 유실되거나 현황파악이 불가능했던 비지정 성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조계종은 이 사업을 95년부터 성보실태조사를 해 온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월정사 본말사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해 지정가치가 높은 성보를 선별, 지정신청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별사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사단을 파견, 정밀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윤기석 기자〈gsyoon@buddhapia.com〉

이웃을 돕는 사람들
실직자 5백명
유료봉사요원 채용

실직자 구호 및 자활 모임터인 '아침을 여는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실직노숙자 가운데 5백명을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으로 취업시키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도시노숙자에 대해 숙식제공 위주의 소극적인 종전 지원책을 자활조장 중심의 지원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마련한 노숙자 종합지원 대책에 따른 것.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제도'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직노숙자들을 봉사원으로 채용, 숙식을 제공하고 월 90만원의 급여를 주는 것. 유료봉사원들은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일하게 된다.

복지시설 유료봉사원은 서울역 등 노숙자 밀집지역 8개소에서 1차 상담을 통해 희망자를 가리고 이웃을돕는사람들이 근무시설을 최종 지정, '유료봉사원증'을 발급해 연고지별로 배치된다. 노숙자 상담은 사회복지학 교수 8명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23명, 종교계 인사 48명 등 79명이 맡고 있다. 이 제도는 숙식이 가능하고 6개월 근무하면 5백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6월25일) 이 제도를 실시한 지 불과 8일만에 신청자가 400명, 취업 확정자가 331명을 넘어서 조만간 5백명이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은 이밖에 실직자의 상태를 보고 귀향시키거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문화자료 7만건 DB화-CD롬 추진

불교문화재 자료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문화재 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통일부는 21일 경향신문사가 추진해 온 '한민족문화 네트워크 연구소'의 남북협력사업을 승인했다. 연구소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스장 자료 20만건중 7만건을 화상 음성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자료로 넘겨받아 '사이버 남북통합문화관' 및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CD롬도 제작할 방침이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불교관련 자료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설조·현고스님등 '심의'

2일 조계종 재심 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은 5월11일과 22일 징계 결의된 설조(불국사주지) 현고(前 송광사주지) 법조(고운사주지)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재심을 청구한데 따라 2일 11차 심판부를 개정한다. 임연태 기자

박물관 위탁 '반대'

김해시, 시민대상 설문

김해시와 김해박물관은 지방박물관 위탁운영과 관련 시민과 학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반대의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빈약, 전문인력 부족, 문화재 훼손 등을 들었다.

목탁소리

아빠(?)없는 소쩍새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아빠 스님은 어디 갔나요? 빨리 데려 오세요." 요즘 원주 소쩍새마을 가족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원장 보각스님이 사임(3월27일)한 지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 원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소쩍새마을은 방문객과 후원금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5년 7월 '가짜승 일력'이 운영하던 소쩍새마을을 인수해 열과 성을 기울여 정상화시킨 보각스님이 원장직을 그만둠에 따라 후원금과 방문객이 각각 이전의 20%, 50% 이하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쌀과 반찬등 후원 물품도 격감한 상태다. 특히 한 달에 120명씩 찾아오던 자원봉사자가 절반이상으로 줄어 하루 한번 목욕해야 하는 가족들이 일손 부족으로 더위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종합복지타운의 건립과 관련해서도 복지타운의 인·허가 과정을 남겨놓은 현재 원장이 없어 행정상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횡성타운에는 최근 재활농장과 숙소가 설치되었으나, 법당 건립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원장직함이 비어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소쩍새마을을 아끼는 한 관계자는 "현장의 공사가 석달 연기되면 완공이 석달 늦어지는 것이지만 서류상의 시기를 놓치면 2, 3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계의 복지전문가들도 "원장이 공석인 상태로는 횡성종합복지타운의 건립불사가 원만성취되기는 어렵다"면서 "불교복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임자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보각스님의 원장 복직은 소쩍새마을을 운영하는 승가원 이사회(이사장 지하스님)의 결단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자들은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양보가 있기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jgkim@buddhapia.com〉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뿌리 뽑힌다.

CELL FORTE (셀 포르테)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등에 대한 멕시코 국립대학의 임상연구 결과 관절염, 관절통, 중풍 기타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관절염, 노화 등의 면역기능 강화에 의한 효능이 임상실험 결과 60명을 상대로 98%이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셀 포르테에 대한 석학들의 증언

- 미국 Jame 박사 "**셀 포르테**는 2억 2천 이상되는 미국인들의 관절염을 치유하는데 주목할만한 물질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 미국 Corade 박사 "**셀 포르테**는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변형성 관절염의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기타 Lowa 대학 및 Wabash 대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
- 셀 포르테는 현재 세계 33개국에 수출중

한달분(180정) ₩220,000 / 2개월분(360정) ₩400,000

사례문

이영래(57세 복싱세계챔피온 트레이너) 본인은 세계챔피온인 문성길, 장정구, 김용강등 많은 권투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다리등에 만성신경통과 관절염으로 20여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한약과 양약등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고 침도 많이 맞아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여 한 때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할까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광고에서 셀 포르테가 좋다는 광고를 보고 속는 셈치고 2개월분을 구입하여 복용중에 처음에는 진통이 심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함께 복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차도가 나타났고 10개월을 계속 복용하고 부터 저의 몸은 정상을 되찾았고 현재는 거짓말처럼 아픈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세계 챔피온을 만들고저 땀을 흘리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와같이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저 이 사례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건강을 찾아준 삼천실업에 감사드립니다. ▶ 이영래

청보원 서울:(代)790-8200
본사: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8번지

※ 셀 포르테의 자세한 안내 책자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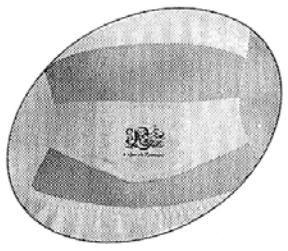
▶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 예금주 : 삼천생업
- 농 협 : 394-01-004150
- 우체국 : 100149-0210155

※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등기, 소포우송)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비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전원주·김민종 '인기 절정'

불자 탤런트 안방포교사 역 '톡톡'



◇전원주씨.

전원주와 김민종.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불자탤런트 들이다. 코믹광고 '국제전화 002'로 주가가 폭등된 전원주(59)씨. 시청률 2위를 고수하고 있는 SBS드리마 '미스터 Q'의 주인공 김민종(27)씨는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비며 대중포교 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67년 '청춘극장'에서 수다스런 가정부로 연기에 입문한 전씨가 데뷔 후 20여년간 맡은 단골 배역이라곤 아줌마A, 가정부, 주모 등. 그것도 기껏해야 한달에 5~6회 정도의 출연이 전부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방송국PD들이 가장 섭외하기 힘든 사람으로 전원주를 꼽는다. 그만큼 인기 상종가다. 전씨는 KBS-TV '코미디 세상만사'를 비롯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등 총 7개의 TV 프로그램에 캐스팅되어 있다. 또 '국제전화 002' '싱싱 냉장고' '모기 살충제 홈매트' 등 CF와 인터뷰, 강의 요청에 잠잘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올해로 연기생활이 35년째. 방송 녹화에 들어가기전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수경〉을 늘 암송한다는 전씨의 오른쪽 손목에는 항상 단주가 채워져 있다. 법명은 대원행(大願行). 전씨는 "무명시절 대사도 거의 없는 단역이 주어져 연기를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일 때마다 손에 낀 단주를 굴리며 기도했다"며 기회가 되면 불교방송에서 포교 프로그램을 진행 해보고 싶다고 한다.

전 손목엔 항상 단주
김 언제나 군자 목걸이

SBS-TV 드라마스페셜 '미스터 Q'에서 주인공 이강토 역을 맡아 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김민종씨는 '착한사람' '기다릴수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록 변주곡들이 실린 제4집 앨범 '애(愛)'를 발표하는 등 가수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민종씨.

늘 군자 목걸이를 걸고 있고 시간만 나면 절(능인선원)에 나가 기도한다는 김씨는 지난 4월 조계종 포교원이 제작한 신도등록 캠페인 CF에 참여하기도 했다. 법명이 '법진(法眞)'인 김씨는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군자 목걸이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ikm@buddhapia.com)

방송소식

불교TV 이사 30명 충원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22일 포이동 구룡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불교총지종, 일붕선교종, 보문종 등 30여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불교TV는 또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삼베수의 및 납골당 분양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안도 통과 시켰다.

한편 불교TV 문화사업단은 24일부터 뉴코아백화점 7개 분점에서 '효도상품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다.

CTN '茶' 우수프로 뽑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19일 케이블TV CTN의 특집 다큐멘터리 '차(茶)' 등 3편을 2분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뽑힌 다큐멘터리 '차'는 차의 정의, 기원, 종류 효능 등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 '인간의 위대한 발견, 차'와 차의 한국전래 과정 및 한국의 삼속에 뿌리 내린 차문화를 조명한 '차향을 따라서' 등 총 2부작으로 구성됐다.

신행수기 당선작

참회의 눈물② · 끝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밖으로 찾던 지난날 반성
달라진 남편에게 삼배
모두가 불법 알았으면…

마음공부는 수행하는 스님네들만 하는 공부인줄 알았다. 책 속에 있는 조사님들의 말에만 있는줄 알았지, 내 마음 속에도 부처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저 밖에서 부처를 찾겠다고 방황하던 날들이 우스워졌다. 한순간 알고 보니 이제까지의 모든 고통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이렇게 신령스러울 수가.

그저 믿기만 했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가슴은 사랑으로 출렁거렸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모진 고통을 주었나 하는 참회의 눈물이 주루룩 흘렀다. 내가 우는 것도 아닌데 그저 눈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느낌이다. 업이 녹는 물 같았다. 모두가 내 탓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었다. 그저 남편이 고마워서 삼배를 올렸다. 스님에게 공부를 점검받던 날, "스님! 제 남편에게 삼배를 하고 싶은데요"했더니 "그럼 하십시오." 군더더기없는 딸막한 말씀이 텅 빈 내 머리 속과 같았다.



그림 · 이준석

눈만 뜨면 한숨과 절망으로 하루를 보냈고 좁은 천근만근이나 무거움을 느꼈고 미칠 정도였던 머리 속도 어느 한 순간에 치료가 되어버렸으니 어느 약이, 어느 의사가 이렇게 상큼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으랴.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었다. 업짓는 말만 골라 하던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하고, 화도 잘 내더니 이젠 순한 양이 되었다. "내게 업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안되나"라는 말도 하고 광소에는 관심도 없던 성철스님의 법문테이프도 꺼내 들어보곤 한다. 이렇게 날마다 좋은 날인데 어찌 하는 일이 안되겠는가. 앞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오로지 내 걱정만 하고 살던 나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덕분에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 이 부처님 도리를 내 식구들, 내 부모님들, 형제들, 세상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불법공부를 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불국정토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좋은 불법을 스님들은 왜 올바르게 가르쳐주시지 않는지, 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지 않는지 의문이다. 기복에 끌리는 것도 잠시일뿐 모두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무조건 집착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마음을 삿되게 하지말고 착하게 살라 하지만 애쓰며 산다고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만이 아닌 진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으면 한다. 이 마음 한번 보고 나면 모두가 그대로인 것을 애쓸 필요도 없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저절로 그리 되니까 얼마나 편한가. 화를 낼래야 낼 수도 없다. 이 마음이 화를 안내니까 장사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장사가 잘 안되면 오늘은 이 마음이 이 몸을 편히 쉬게 하는구나 하고 시간이나 채우다가 문닫고 들어간다. 전 같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폭발하기 일보직전일텐데 이젠 다르다. 잘되는 날 있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마음이 편하다.

어떻게 보면 불교가 사람을 게을러지게 만들고 아둔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편안한 마음 속에서 뭐가 되도 되지, 인상 써가며 아귀다툼 속에 싸워봐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바쁘게 살다보니 선원에는 날마다 못가고 있다.

"놓아라. 많이 놓으면 많이 얻고, 적게 놓으면 적게 얻는다" 하셨지만 알만큼은 못놓고 있다. 이제 내 소원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잘돼서 내가 일을 놓아도 되는 것이다. 여러 도반들과 같이 정진하면서 부처님 말씀 속에서만 살고 싶다.

인금숙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숭림사 후불탱화(부분). 1740년경.



◇지오토作 '프란체스코의 죽음'(부분). 1220년경. 아씨시 성프란체스코성당 소장.

번민·갈등 단절하는 의미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⑪

삭발

불가에서는 머리카락을 '무명초(無明草)'라 부른다. 거친 풀을 잘라내듯 일상의 번민과 갈등을 삭발행위를 통해 단절하라는 의미가 있다. 삭발염의는 출가수행자의 상징일 만큼 부처님 생존시부터 출가수행자는 삭발을 했다. 머리카락은 번뇌를 상징하므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포살하는 날)마다 삭발을 하며 자신의 수행일상을 점검하며 경책하였다.

위 그림은 숭림사의 후불탱화로 부처님 십대제자들이 귀밑과 정수리를 돌려 깎아 부처님의 정상 육계상처럼 보이도록 삭발을 했다.

아래 그림은 지오토 작 '프란체스코의 죽음'의 부분 그림이다. 수도원장인 프란체스코의 임종을 지키는 수사들의 머리가 아래부분만 둥그렇게 남기고 전부 삭발된 것을 볼 수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역·사·속·으·로·떠·나·는
죽·음·기·행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저자 : 맹 란 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담은 꿈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 3462-2277 ·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